

가

문익준 · 최필수 · 이장규 · 나수엽 · 이효진 · 박민숙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문익준 · 최필수 · 이장규 · 나수엽 · 이효진 · 박민숙

Ⅰ 서 언 Ⅰ

2013년 10월에 개최된 18기 3중전회는 새로 선출된 시진핑 지도부가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재설정하여 자원 배분시 시장의 결정적(decisive)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제체제 개혁에서도 국유기업 개혁은 중요한 이슈들 중의 하나입니다.

향후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도 빠르게 향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에는 샤오미,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중국 기업들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였습니다. 또한 포춘지가 발표한 2014년 글로벌 500대 기업 중에서 중국 기업이 91개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국유기업들은 영업수익의 비효율성, 인사제도의 폐쇄성, 경쟁력 부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014년에는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중국 시진핑 지도부하에서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 구조조정이 가속됨에 따라, 중국 국유기업의 기업 경쟁력, 사업 다각화, 산업 집중도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국유기업의 3단계 개혁(2003~2012년)을 평가하고, 4단계인 2013년 이후를 전망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첫째, 중국 국유기업 개혁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개혁 방향을 전망해 보았습니다. 둘째, 중국 국유기업의 지배구조 변화와 기업 경쟁력의 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셋째, 중국 국유기업이 고유 업종에서

벗어나서 추진하는 사업 다각화 현상을 파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산업 집중도를 분석하고, 석유산업, 자동차, 철강, 조선, 소매업을 중심으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본원의 문익준 부연구위원과 이장규 선임연구위원, 최필수 부연구위원, 나수엽 전문연구원, 박민숙 전문연구원, 이효진 연구원 등 원내 연구진이 완성하였습니다. 연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연구과정에서 유익한 논평을 통해서 보고서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신 산업통상자원부 윤진영 사무관, 건국대학교 조현준 교수, SK 경영경제연구소의 최낙섭 박사와, 본원의 정철 선임연구위원과 김부용 부연구위원에게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정리 및 편집과정에서 수고해주신 중국팀 박미선 연구조원을 비롯하여, 직·간접적으로 연구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본 연구가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길 바라며, 향후 중국 기업과의 경쟁 심화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대응책 마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또한 본 연구를 시점으로 하여 다양하고 훌륭한 후속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 12월
원장 이 일 형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국 시진핑 지도부하에서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구조조정이 가속됨에 따라, 기업 경쟁력, 사업 다각화, 산업 집중도 분석을 통해 중국 국유기업 개혁 방향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국유기업의 3단계 개혁(2003~2012년)을 평가하고, 4단계인 2013년 이후를 전망했다는 점에 있다.

본 연구는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서 2장에서는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 추진 현황을 정리하였다. 먼저 국유기업의 유형과 현황을 정리하고, 개혁개방 이후의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였다. 현재 국유기업 수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전체 공업기업의 영업수입 및 이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영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유기업의 경영 효율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진핑 체제의 신정부는 제18기 3중전회와 2014년 양회를 통해 국유기업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다. 혼합소유제의 적극적인 추진이 핵심이며, 이와 관련하여 신중하고 점진적인 방식에 의해서 향후 여러 가지 시범 방안과 지방정부 차원의 개혁이 시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 성과 간의 관계를 생산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국 A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571개의 기업 데이터를 사용하여 차별화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영기업의 인적자본이 국유기업보다 생산성에 더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반면에 국유기업의 물적자본은 민영기업보다 생산성에 더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A주에 상장된 중국기업은 주주의 지분율이 높고 국유자산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지 않을 수록, 수익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국유기업이 고유 업종에서 벗어나 사업 다각화를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지와 다각화된 업종에서 제대로 이윤이 창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 보면, 첫째, 다각화 자체와 관련 다각화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으나 비관련 다각화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특히 민영기업의 비관련 부문 축소는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둘째, 매출액은 있으나 이윤은 없는 非이윤 부문의 개수는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모두 관련 부문이 더 많다. 셋째, 매출액 대비 이윤을 집계하면 국유기업은 비관련 부문이 더 큰 반면 민영기업은 관련 부문이 더 크다. 요약하자면, 국유기업은 이윤이 발생하는 부문의 숫자와 이윤의 크기가 비례하지만, 민영기업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정책의 관련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산업 집약도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산업별로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인수합병 등에 의한 산업구조 개편이 중국의 국유기업 육성정책의 핵심과도 맞물려 있음을 확인하였다. 석유화학, 자동차, 소매업, 철강 및 조선산업의 5개 업종을 선정하여 산업별 기본 현황, 산업집중도 등에 의한 경쟁 현황과 미래의 개편 방향, 산업 내 민영기업의 향방,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국유기업의 개혁은 혼합소유제가 핵심이며, 제대로 실현된다면 중국의 소유제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유 부문에 민간자본 진출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국유기업의 경영 리스크가 분산되고, 경영 및 투자전략의 최적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와 산업 집중 현상이 모두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를 살펴보면, 국유기업의 다각화는 관련 분야보다 비관련 분야에서 다각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국유기업의 한계점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혼합소유제 개혁 방향은 경제 부문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일부 산업에만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국유기업 개혁이 국유기업 위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제한된 민간자본들이 국유기업의 절대적인 지분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가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국유기업이 내실 있는 민영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식으로 혼합소유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은 경쟁 치열과 협력의 기회가 동시에 존재할 것이라는 점이다. 첫째, 먼저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은 더욱 치열한 경쟁속에 뛰어들 것이다. 중국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기업과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기업과의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된 규제와 법집행이 보다 강화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중국 기업의 글로벌화는 한국 기업에게 협력의 기회와 그로 인한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수도 있다. 산업내에서 중국 기업의 성장으로 과거보다 산업내 협력이 확대되고 한국경제 전체에 있어서도 양국간 교역,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서 긍정적 영향이 될 수도 있다.

차 례

Ⅰ 서언	3
Ⅱ 국문요약	5
Ⅲ 제1장 서론	1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2. 선행 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0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25
Ⅳ 제2장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추진 현황	29
1. 중국 국유기업의 유형 및 현황	30
가. 중국 국유기업의 정의 및 유형	30
나. 중국 국유기업 현황	34
다. 국유기업 관리체계	37
2. 중국 국유기업 개혁과정	42
가. 중국 국유기업 개혁 배경	42
나. 개혁·개방 이전 국유기업 개혁	44
다. 개혁·개방 이후 국유기업 개혁	45
3. 향후 국유기업 개혁 방향	50
가. 18기 3중전회 이후의 국유기업 개혁 방향	50
나. 국자위 개혁 청사진	52
다. 국유기업 개혁 시범 방안	54
4. 소결	58

Ⅰ 제3장 중국 국유기업의 기업경쟁력 분석 61

- 1. 선행 문헌62
 - 가. 지배구조 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62
 - 나. 지배구조 변화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67
 - 다. 생산성과 수익성의 기준70
- 2. 경쟁력 분석 방법71
 - 가. 기초 통계71
 - 나. 총요소생산성 분석 방법73
 - 다. 수익성 분석 방법76
- 3. 경쟁력 분석 결과78
 - 가. 총요소생산성 분석 결과78
 - 나. 수익성 분석 결과79
- 4. 소결 및 시사점82
 - 가. 주요 분석 결과82
 - 나. 시사점82

Ⅰ 제4장 중국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 분석 85

- 1. 중국 국유기업 사업 다각화의 배경86
 - 가. 국유기업 사업 다각화 일반론86
 - 나. 중국 국유기업 다각화 현상87
- 2. 사업 다각화 현황91
 - 가. 데이터 소스와 성격91
 - 나. 사업 다각화 현황93
- 3. 사업 다각화 성과 분석97
 - 가. 非이윤 부문의 갯수97
 - 나. 영업이익율을 비교100

4. 소결103

Ⅰ 제5장 중국 국유기업의 산업 집중도 분석 107

1. 국유기업과 산업정책108
가. 중국의 산업정책108
나. 국유기업 대형화 정책111
2. 산업별 국유기업의 점유율113
가. 산업집중도 목표의 해석113
나. 중국의 산업집중도 선행 연구115
다. 산업별 국유기업 점유율116
3. 향후 산업 재편 전망122
가. 석유화학산업124
나. 자동차 산업133
다. 소매업140
라. 철강 산업146
마. 조선산업152
4. 소결158

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63

1. 요약164
2. 평가 및 시사점168
가. 중국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평가168
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173

Ⅰ 참고 문헌 179

Ⅰ Executive Summary 188

표 차례

표 2-1. 정부 지분 비중에 따른 국유기업 분류	31
표 2-2. 경영 목적에 따른 국유기업 분류	32
표 2-3. 관리·관독 기관에 따른 국유기업 분류	33
표 2-4. 활동 업종에 따른 국유기업 분류	33
표 2-5. 중국 공업기업 유형별 주요 지표 추이	35
표 2-6. 중국 국유기업 및 사영기업의 산업 생산 추이	36
표 2-7. 국유기업 및 사영기업의 도시 지역 고용 추이	36
표 2-8. 중국 국유기업 및 국유자산 관리감독 기구 발전과정	38
표 2-9. 중국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조직	40
표 2-10. 중국의 단계별 국유기업 개혁 과정	49
표 2-11. 최근 국유기업 개혁 주요 내용	51
표 2-12. 국유자본운영공사, 국유자본투자공사 개요	54
표 2-13. 개혁 방안과 시범기업	55
표 2-14. 중국 지방정부의 주요 국유기업 개혁 사례	60
표 3-1. 국유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	72
표 3-2. 민영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	72
표 3-3. A주 상장 국유기업의 기초 통계량	75
표 3-4. A주 상장 민영기업의 기초 통계량	75
표 3-5. 분석 자료의 통계적 특성	76
표 3-6. 통계의 출처와 정리	77
표 3-7. Panel 모형 분석 결과	78
표 3-8. OLS 모형 분석 결과(2013년 기준)	80
표 3-9. Panel 모형 분석 결과(2013년 기준)	81

표 4-1. 분석 대상 기업 데이터의 소스	91
표 4-2. 데이터 샘플: 상하이자동차의 부문별 매출액 비중	92
표 4-3. 소유 유형별 DF 추이	94
표 4-4. 기업 유형별 관련/비관련 다각화 분야 개수	95
표 4-5. 기업유형별 관련/비관련 다각화 매출액 비중(%)	95
표 4-6. 데이터 샘플: 거저우바(葛洲坝)의 부문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운	97
표 4-7. 비이윤 부문 개수의 비중	99
표 4-8. 기업유형별 관련/비관련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운	100
표 4-9. 관련 부문과 비관련 부문 간의 차	102
표 5-1. 중점산업별 인수합병·재편의 주 요목표	112
표 5-2. 산업별 국유기업의 점유율(공업 부문)	119
표 5-3. 산업 특성별 국유기업의 점유율 비교	121
표 5-4. 산업별 국유기업 특성과 외자기업 M&A	123
표 5-5. 중국 3대 석유공사 현황	125
표 5-6. 중국 3대 석유기업 점유율	126
표 5-7. 중국 매출액 및 순이익 기준 10대 기업	127
표 5-8. 민영기업의 해외 M&A 사례	129
표 5-9. 중국석유화학공주식회사(Sinopec) 개혁 방향	133
표 5-10.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 및 생산량 추이	135
표 5-11. 상위 27개 자동차 업체 생산량 점유율 및 산업집중도	137
표 5-12. 세계 10대 철강기업 현황	147
표 5-13. 중국정부의 철강산업 구조조정 계획 주요 내용	150
표 5-14. 조선산업의 한중일 비교(2013년)	153
표 5-15. 중국 조선소 순위(수주 잔량 기준, 2012년)	154
표 5-16. 선박 종류에 따른 수주 잔량(2012년)	155
표 6-1. 중국 산업별 국유기업 전망과 시사점	167

그림 차례

그림 1-1. 본 보고서의 구성	26
그림 2-1. 중국 국유기업 관리감독 체계	41
그림 4-1. 관련(左) 및 비관련(右) 다각화 비중 추이	96
그림 4-2. 관련(左) 및 비관련(右)의 非이윤 부문 개수 비중 추이	99
그림 4-3. 관련(左) 및 비관련(右) 부문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추이	101
그림 5-1. 광공업 부문 국유기업의 점유율 추이	118
그림 5-2. 주요국 자동차 생산량(左) 및 판매량(右)	134
그림 5-3. 소매업 산업집중도 비교(중국, 미국 및 일본)	143
그림 5-4. 중국의 철강 생산량 추이	146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국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201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우리경제의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도 2013년 26.1%로 기록할 정도로 높아져 가고 있다.¹⁾ 이와 더불어 중국기업의 경쟁력도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과거에는 잘 알지 못했던 샤오미, 알리바바, 레노버, 바이두 등 많은 중국기업들이 점차 한국의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기업들은 모두 중국의 민영기업들이며, 중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민영기업들이 아니라 바로 국유기업들이다.

중국 국유기업들의 성장은 놀랍다. 미국 경제지 포춘(Fortune)지가 발표한 2014년 글로벌 500대 기업²⁾중 중국기업이 91개를 차지하였다. 중국기업들 중에서는 중국석유(Sinopec), 페트로 차이나, 중국건축 등 국유기업들이 1, 2, 3위를 차지하였다.³⁾ 이 중에서 8개만이 민영기업들이며 나머지는 국유기업들로 알려져 있다.⁴⁾ 그러나 중국 국유기업들은 석유화학, 철강, 화학공업 등 대부분이 중공업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영업수익의 비효율성, 인사제도의 폐쇄성, 경쟁력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국유기업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 개

1) 최필수·김영선(2014), p 3.

2) Fortune. <http://fortune.com/global500/>.(accessed Oct 2, 2014)

3) 조용성(2014.7.8.), 「세계 500대 기업 중 중국 100개, 한국은 17개」. 『아주경제』. 또한, 홍콩과 대만 기업이 9개로서, 화교권 기업은 모두 100개임.

4) 김근정(2014.7.28.), 「중국 상위 1% 자산 독점?... 중국 기업도 다르지 않아」, 『아주경제』

혁 초기부터 국유기업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개혁은 불완전했으며 제한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2000년대에 들어 중국정부의 주요 정책 아젠다는 민진국퇴⁵⁾(民進國退)였으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구조조정이 둔화되면서 국유 부문의 비중이 다시 증가하는 국진민퇴(國進民退) 현상이 발생하였다. 한동안 주춤했던 국유기업 개혁이 다시 뜨거운 화두가 된 것은 2013년 11월에 열린 18기 3중전회에서였다. 여기에서는 다시 국유기업 개혁이란 표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공유제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다.

‘공유제(公有制)는 제반 소유제 공동 발전의 기본적인 경제제도이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제도의 중요한 버팀목이자 사회주의 시장경제제도의 근본이다. 공유제 경제와 비공유제 경제는 모두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중국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기초이다.’

『개혁의 전면적 심화에 관한 중대 문제 결정』(中共中央關於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問題的決定)⁶⁾에서(2013년 18기 3중전회)

이번 18기 3중전회는 새로 선출된 시진핑 지도부가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회의였다. 회의에서는 개혁의 목표가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재설정하여 자원 배분 시 시장의 결정적(decisive) 역할을 강조하고

5) 비효율적인 국유 부문을 축소하고 민간 경제를 활성화

6) 中华人民共和国人民政府, http://www.gov.cn/jrzq/2013-11/15/content_2528179.htm (accessed Oct 2, 2014)

있다. 경제체제 개혁을 전면적 개혁 심화의 중점으로 선정하고 경제체제 개혁의 핵심을 ‘시장과 정부의 관계’의 재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영 기업 개혁은 경제체제 개혁중에서도 중요한 이슈들 중 하나였다. 7)

중국 국유기업 개혁은 시작 단계이며 현재 진행중이다. 18기 3중전회 이후 2014년에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보완 조치들이 발표되었다. 새로운 형태인 국유자본운영회사와 국유자본투자회사를 설립할 것을 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은 투명하지 않다. 또한 과거에 이야기 하던 민영화 대신 다양한 소유제 기업들 사이의 상호 지분 참여를 통한 혼합소유제 시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어떠한 형태로 개혁이 진행될지 가능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확대된 국유자본 수익의 30%를 2020년까지 공공재정으로 흡수하여 사회보장과 민생 개선에 사용함으로써 국유자본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원칙만이 발표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기업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경쟁력은 높아지고 있다. 국유기업 개혁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중국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 국유기업들의 성장이 한국 경제, 특히 한국 기업에 미치는 파장은 작지 않을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이 발표되고 있지 않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중국 국유기업 개혁을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전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시진핑 지도부하에서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구조조정이 가속됨에 따라, 기업 경쟁력, 사업 다각화, 산업 집중도 분석을 통해 중국 국유기업 개혁 방향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최근 중국 국유기업들이 특정한 산업에서 벗어나 다른 산

7) 최필수, 문익준, 이한나(2013). p. 4

업으로 진출하면서 사업 다각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산업 내에서도 국유기업들의 비중이 더욱 커지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 국유기업들이 사업 다각화, 산업 집중도의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성장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분석을 하려고 한다. 중국기업 개혁이 당면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고, 향후 우리에게 주는 영향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국유기업 개혁이 우리에게 경쟁인지 아니면 협력의 기회인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배경은 정치적·사회적 배경과 경제적 배경으로 나누어서 살펴 볼 수 있다. 정치·사회적 배경은 다양한 이익집단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본 보고서에서는 경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 보려고 한다. 국유기업 개혁의 경제적 배경은 불균형 구조의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경제 전체의 효율성 제고가 가장 큰 목표이며 이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효율성 제고는 전체 경제, 산업, 기업 등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을 바라보는 관점을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시적인 관점으로 좁혀 나가면, 1) 혼합소유제 2) 산업 3) 기업 경영 방법 4) 기업 내부 등의 주제를 구분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주로 혼합소유제를 기본으로 하는 거시적인 경제와 산업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 경영 방법이나 기업 내부의 개혁 등의 미시적인 관점은 논하지 않겠다.

중국 국유기업 개혁은 중국 경제 개혁의 핵심이며, 향후 중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 중요성만큼이나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쩌면 실현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기업의 성장과 글로벌화가 이제 시작단계라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중국경제의 잠재력과 리스크에 대해서 선제적,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국유기업 개혁과 더불어 산업 구조조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산업들을 집중 분석하여 한국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은 한국과 중국의 주요 경쟁 산업으로, 중국의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산업 재편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선행 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중국에서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연구들은 많이 진행되었다. 주로 국유기업의 지배구조나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林毅夫(1997)은 현대적 기업제도와 국유기업 개혁 방향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중국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대적 기업제도를 도입하였다. 현대적 기업제도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강조하고 국유기업 개혁의 목적이 재산권제도 확립이 아니라 완전한 경쟁시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서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향후 기업 내부 관리제도 등의 제도 혁신을 통한 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결론내었다.

吳敬連(2003)은 기본적으로 방권양리(放權讓利)⁸⁾가 국유기업 개혁의

8) 권한, 권력을 넘겨주고 이익을 양보한다.

이상적인 사상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기업이의 통제권과 이익 배상권을 정부(주인)와 국유기업 내부인(대리인)이 공유함으로써, 국유기업 내부의 자극에 의해서 국유기업의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방권양리 방식의 국유기업 개혁은 그 과정속에서 국유기업 자체의 폐단을 드러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노출시킬 것으로 전망하였다. 예를 들면, 기업 채무의 증가, 은행 리스크, 국유자산 손실,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 왜곡,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들을 제시하면서 국유기업 개혁 자체의 어려움을 강조하였다.⁹⁾

白重恩외(2008)는 중국 공업 부문의 요소 배분 결정 요인 문제를 분석하였다. 신고전학파의 Dixit-Stiglitz 독점경쟁모형에 근거하여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독점력이 높아질수록 수익성이 높아진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국유 부문의 수익성이 비국유 부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 형태별로 자본수입액이 높은 순서로 나열하면, 외자기업, 홍콩·마카오·대만 기업, 법인투자기업, 집체기업, 민영기업, 국유기업 순이었다. 공업부문의 요소 분배액의 변화 원인은 상품시장의 독점력 증가와 국유 부문 제도 변화로 인한 노동시장환경 변화라고 결론지었다.

劉泉紅(2011)은 국유기업 개혁의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 방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필자의 관점이다. 국유기업 개혁이 하나의 장대하면서도 복잡한 구조적 과정이며 다방면에 걸쳐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인식하였다. 향후 국유기업 개혁 방향은 경쟁력 있는 산업에서 민영경제의 관리방식을 도입하고, 민영경제의 발전이 성숙하면 국유경제가 경쟁력있는 분야에서 퇴출되는 것이라고

9) 罗仲伟(2009), p. 10에서 재인용, 吴敬连(2003), p. 125-132에서 재정리.

하였다. 그러나, 국유기업 개혁이 단순히 국유부문의 민영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많은 경쟁력 있는 산업에서 국유기업이 지분 다원화와 같은 현대적인 체제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국내에서는 강동수·이준엽(2006), 지만수·이영(2003) 등이 있다. 강동수·이준엽(2006)는 중국 국유기업의 소유지배구조별 경영성과와 개혁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중국의 상장기업은 국유주, 법인주, 외자주, 개인주 등 주식소유자의 유형에 따른 다양한 주식이 존재하며, 대부분의 국유 상장기업들은 모회사와의 밀접한 관계와 높은 내부거래 비중을 특징으로 한다. 국유기업을 소유주에 따라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영리기업, 비영리기업으로 먼저 분류하고 소유형태별로는 직접소유, 순수지주 회사에 의한 간접소유, 혼합지주회사에 의한 간접소유, 기타 등으로 분류하여 기업지배구조별 경영성과의 차이를 실증분석하였다. 즉, 국유기업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구별하여 특성화하는 데에 차별성과 의의를 두고 있으며, 소유지배구조 측면에서 중국기업의 경영성과의 차이 및 국유기업 개혁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 소유기업에서 상장자회사에 대한 수익성 지원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혼합지주회사에 비해 순수지주회사의 수익성이 높다. 셋째, 회계의견이 있을 경우에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수익성을 표준화하는 지표에 따라서 수익성 분석결과가 예민하게 나타났다.

지만수·이영(2003)은 1980년부터 1999년동안의 CASS 국유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국 은행 부실의 근본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국유기업의 수익성과 생산성을 비교하였다. 결론을 말하면 국유기업의 수익성과

생산성이 비국유기업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지배구조 개선, 연구개발, 신상품 개발 등의 지표들이 수익성과 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국유기업의 상대적으로 우월한 경영 성과는 진정한 생산성 향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우호적인 정책의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중국 국유기업의 수익성보다 생산성을 분석하는 것이 궁극적이고 장기적인 기업의 건전성을 대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무섭, 표민찬(2009)은 국영기업만을 따로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상장기업들을 중심으로 총요소생산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서 기계, 전기 및 전자, 통신, 자동차 산업의 생산성이 빠르게 향상된 것과 매출 규모 상위 50% 기업과 하위 50% 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된 것을 밝혔다.

jinyang et al. (2006)은 중국 국유기업의 지배구조를 유형화하고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중국 특유의 국유기업 지배구조 형태는 장기간에 걸쳐 서구 기업의 특징을 흡수하였기에, 지배구조의 형태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eirne, Liu, Sun(2013)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1997~2003년 1,100개 기업의 survey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결론적으로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이 결합된 형태가 가장 좋은 생산성을 보였음을 나타냈다. 따라서 반드시 민영화가 더 좋은 생산성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면서, 민영자본을 국유기업에게 투자하는 소유구조 변화 형태가 국유기업 개혁에 가장 적절한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국무원과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작성한 <China 2030>에서도 2030년

중국의 6대 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World Bank and DRC, 2013) 그 중에서도 중국의 첫 번째 개혁 주제로 국유 부문 개혁을 지적할 정도로, 중국의 경제발전방식 전환 중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풀기 어려운 주제로 남아 있다. 이 보고서는 향후 2030년까지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비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민간 부문 발전을 저해하는 국영기업 독점구조에 경쟁 요소와 현대적 경영방식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시 방안으로는 ① 국유와 민영 부문 사이의 국유 부문 재조정과 경쟁을 도입 ② 국유 부문과 민영 부문,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③ 시장 친화적이며, 현대적인 산업정책들을 도입하여 비즈니스 환경을 향상 등을 제안하고 있다.

비교해 볼 때 선행 연구들과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유기업 개혁의 3단계(2003~12년)를 평가하고, 4단계인 2013년 이후를 전망하려고 한다. 많은 선행 연구들이 주로 2003년 이전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국유기업 개혁을 분석하였으며, 3단계인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료들을 분석한 문헌들은 많지 않다. 국유기업 개혁 3단계는 국유자산감독위원회가 출범한 이후로 중국의 WTO 가입 이후의 폭발적인 성장,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4조 위안의 경기부양책 등이 발생했던 시기이다. 본 연구는 이 기간 상장 국유기업들의 자료들을 이용하여 국유기업의 경쟁력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2013년 11월의 18기 3중 전회 이후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추진 현황을 정리하여 과거와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향후 국유기업개혁 방향을 전망해 볼 것이다.

둘째, 중국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를 다루고 있다. 기업의 사업 다각화에 관한 선행이론들은 많이 존재하나, 중국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에

관한 선행이론은 많지 않았다. 본 연구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시스템을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국유기업의 유형들을 분류하고, 이 구분에 의해서 광범위한 사업 다각화를 이루고 있는 현상들을 분석할 것이다. 18기 3중 전회에서 발표된 혼합소유제 허용, 국유자본운영공사, 국유자본투자공사 등으로 인해서 중국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중국 A주에 상장되어 있는 국유기업들을 중심으로 사업 다각화 현상을 분석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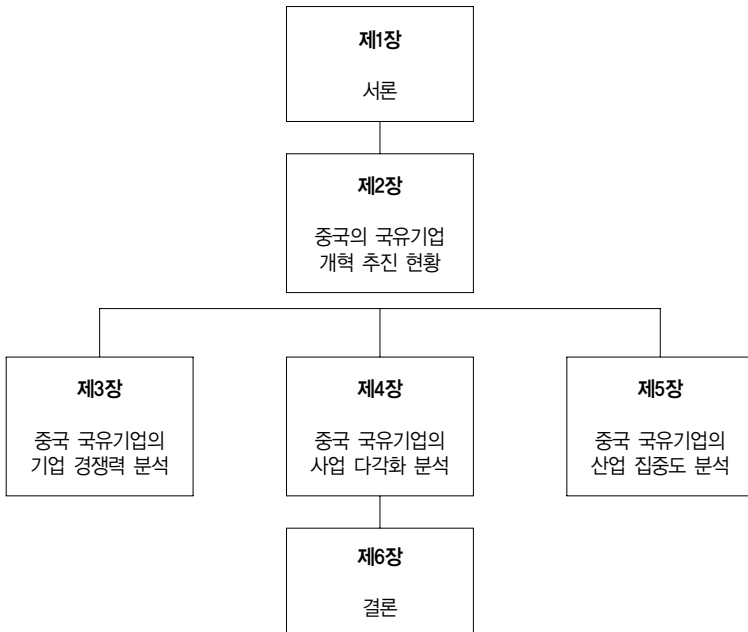
셋째, 국유기업 개혁을 산업정책과 연결시켰다. 본문은 국유기업 개혁이 결국 국유기업의 대형화와 글로벌화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이러한 중국의 산업 재편이 한국 기업에 주는 시사점이 클 것이다. 중국의 산업정책하에서 산업별로 국유기업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석유화학산업, 자동차 산업, 철강산업, 조선업, 소매업을 선택하여 정성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본 연구는 다양한 문헌 검토와 인터뷰, 실증 분석, 통계 분석 등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중국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다양한 문헌들을 검토하여 향후 국유기업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다. 개혁개방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국유기업 개혁을 주요 유형과 현황에 따라 분석해 보고,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중국 신지도부의 국유기업 개혁 방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중국 국유기업의 기업 경쟁력과 사업 다각화분석을 위해서 중국 A주의 국유 상장기업 통계들을 바탕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한 기본 데이터로는 WIND에서 제공하고 있는 중국 상장기업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상하이증권거래소 50대 중앙국유기업, 선전 증권거래소 비국유기업 인덱스를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국유기업(SOE) 334개, 민영기업(POE) 208개의 총 542개 샘플을 확보하였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국 국유기업의 경쟁력과 사업 다각화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서 석유, 자동차, 철강, 조선, 소매업을 선정하여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 산업 집중도 현상을 분석하였다.

그림 1-1. 본 보고서의 구성



출처: 본문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본 연구의 구성은 그림 1-1에서 설명하고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추진 현황을 살펴본다. 중국 국유기업의 정의와 현황, 국유기업 개혁의 역사적 배경, 국유기업 개혁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개혁 방향을 전망해 본다. 이를 토대로 각각 3장, 4장, 5장에서 중국 국유기업의 기업 경쟁력, 사업 다각화, 산업 집중도를 분석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중국 국유기업의 지배구조 변화와 기업 경쟁력과의 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기업 성과를 생산성과 수익성이라는 기준으로 파악하고 주로 국유자산감독위원회(SASAC)가 출범한 2003년 이후를 중심으로 기업경쟁력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국유기업이 고유업종에서 벗어나 사업 다각화를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국유기업들이 얼마나 본 업종을 벗어난 이윤 추구 행위를 하고 있는지, 다각화된 업종에서 제대로 이윤이 창출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아울러 그것의 배경이 되는 소유구조별 요인과 시간에 걸친 추이를 파악한다. 제5장에서는 중국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산업 집중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국유기업의 산업별 집중도를 분석하고 향후 산업 개편에 대해서 전망해 보고자 한다. 주로 한국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석유산업, 자동차, 철강, 조선, 소매업에 집중해서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문의 분석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시사점이나 대응 방안 등을 제시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제2장에서는 정책 분석, 제3장에서는 국유기업 개혁의 필요성과 배경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제4장과 제5장은 국유기업의 사업 현상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다. 향후 국유기업이 자기 전문분야를 넘어서 다른 산업으로 진출하는 사업 다각화를 진행할지 또는 한 산업에 집중하면서 산업 집중도를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하려고 한다.

제2장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추진 현황

1. 중국 국유기업의 유형 및 현황
2. 중국 국유기업 개혁 과정
3. 향후 국유기업 개혁 방향
4. 소결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은 개혁개방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현재도 진행 중인 주요 개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유기업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다양하게 분류된다. 이에 본 장에서는 먼저 중국 국유기업의 주요 유형과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본 뒤 개혁개방 이후를 중심으로 중국 국유기업 개혁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한다. 특히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중국 신정부의 국유기업 개혁 방향을 중점 검토한다.

1. 중국 국유기업의 유형 및 현황

가. 중국 국유기업의 정의 및 유형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이래 국유기업은 중국 경제 성장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해왔다. 현재 중국의 ‘국유경제’와 ‘국유기업’ 용어는 1993년 3월 제 8기 제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시킨 헌법 개정안에 따라 ‘국영경제’에서 ‘국유경제’로, ‘국영기업’에서 ‘국유기업’으로 수정, 통용되고 있다. 또한 동 법 제 8조는 “국유기업은 법률이 규정한 범위에서 자주경영권을 가진다.”고 명시하여¹⁰⁾ 중국 국유기업의 역할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국유기업은 정부 지분 비중, 경영 목적, 관리·감독기관, 활동업종에 따라 그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 국유자산법』 제 5조는 국유기업을 ‘국가출자기업’으로 명기하고 있으며 정부 지분

10) 中國人大網, http://www.npc.gov.cn/wxzl/gongbao/1993-03/29/content_1481290.htm (accessed April 13, 2014)

비율에 따라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 국유자본지주회사, 국유자본주식회사로 분류하고 있다.¹¹⁾ 동 법 제 19조에 따르면 국유독자회사, 국유자본지주회사, 국유자본주식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회를 설립해야 한다.¹²⁾ 반면, 국유독자기업은 특수기업법인으로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파견한 감사회가 법률·행정법규 및 기업 규정에 의거하여 경영진 직 무수행, 기업 재무 등에 대한 감독 조사를 실시한다.¹³⁾

표 2-1. 정부 지분 비중에 따른 국유기업 분류

기업 유형	기준	해당 업종	비고
국유독자기업	- 정부 전액 출자 및 설립 - 특별법 적용 - 공공재 생산	-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산업	- 공공 부문의 재정 지원으로 유지
국유독자회사	- 정부 전액 출자 및 설립 - 회사법 적용 - 거시경제정책 조정 -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공공 이익 추구	- 철도, 수도, 전력, 천연가스	- 대다수가 자연독점기업과 자원기업
국유자본지주회사	- 전체 지분 중 국가 소유 비중이 높음 - 실질적으로 국가가 지배 - 회사법 적용 - 경제적 이익 중심	- 전자, 통신, 자동차, 의약, 담배, 공항, 항공, 은행	- 대다수가 준자연독점기업과 국가경제의 기간산업에 종사
국유자본주식회사	- 국가가 일반 주주 자격으로 참여 - 회사법 적용 - 공공이익 추구	- 모든 업종	- 정부의 지분 참여로 국유경제의 영향력을 확대

자료: 한국조세연구원(2010), p. 7 ; 國務院國有資產監督管理委員會, <http://www.sasac.gov.cn/n1180/n1271/n20515/n2697175/12403737.html> (accessed August 4, 2014)를 참고하여 저자재정리.

11) 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 <http://www.sasac.gov.cn/n1180/n1566/n11183/n11244/5751091.html> (accessed April 13 2014)

12) *Ibid.*

13) *Ibid.*

표 2-2. 경영 목적에 따른 국유기업 분류

	공익성 국유기업	경영성 국유기업
해당 법률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	국유자본지주회사 국유자본주식회사
경영 목적	공공 이익 추구	경제적 이윤 추구
경영 범위	사회 공공서비스 제공	경쟁성 영역
재정 예산	재정부 관리, 공공 재정 및 국가 공공예산 지원	국자위 관리, 국유자본 경영예산 이내

자료: 董敬怡(2014): 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 <http://www.sasac.gov.cn/n1180/n1271/n20515/n2697175/12403737.html> (accessed August 4, 2014)를 참고하여 저자재정리.

또한 경영 목적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성 국유기업과 이윤 창출의 목적을 지닌 경영성 국유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익성 국유기업은 특수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공익성 제품의 생산과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 재정부가 관리하는 공익성 국유기업은 공공재정의 지원을 받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이하 ‘국자위’)에서 국유자본경영예산으로 관리하는 경영성 국유기업에는 국유자본지주회사와 국유자본주식회사가 포함되며 이들 기업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한다.

국유기업은 [표 2-3]과 같이 관리·감독 부처인 국자위, 재정부, 기타 국무원 소속 부처, 지방 국자위에 따라 중앙국유기업, 중앙부처 관리기업, 지방국유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앙국유기업은 공공재, 자연독점 제품, 경쟁성 제품 관련 사업을 독점하고 있으며 중앙 부처 관리기업은 금융, 전매품, 문화상품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다. 지방 국자위 산하의 지방 국유기업은 모든 업종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활동 업종에 따라 국유기업을 분류하면 비금융계와 금융계 국유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비금융계 국유기업은 중앙 및 지방 국자위가 관

표 2-3. 관리·감독 기관에 따른 국유기업 분류

기업 유형	주요 관리·감독 부처	사업 영역	해당 업종
중앙국유기업	국무원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공공재	방위산업, 통신, 전력, 수도
		자연독점제품	석유, 천연가스, 광산
		경쟁성제품	일반제조업, 건축업, 무역업
중앙 부처 관리기업	재정부	금융	은행업, 보험업
	국무원 기타 부처 또는 정부산하단체	전매품, 문화상품	담배, 금, 철도운송, 항만, 방송, 문화, 출판
지방국유기업	지방 국유자산 관리감독위원회	-	모든 업종

자료: 건홍리서치(2010), 재인용; 한국조세연구원(2010), p. 8.

표 2-4. 활동 업종에 따른 국유기업 분류

기업 유형	주요 관리감독 부처	해당 업종
비금융계 국유기업	국무원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지방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제조업, 무역업, 건설업, 농업, 이중관리기업
금융계 국유기업	재정부	은행, 신탁투자회사, 보험회사, 자산관리회사, 기타 금융기관

자료: 건홍리서치(2010), 재인용; 한국조세연구원(2010), p. 8.

리·감독하고 금융계 국유기업은 재정부와 지방 재정처가 관리·감독한다.

한편 중국통계연감은 기업 등록 형태에 따라 크게 내자기업, 홍콩·마카오·대만 투자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의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내자기업은 다시 국유기업(state-owned Enterprises), 집체기업(collective-owned Enterprises), 주식제합자기업(cooperative enterprises), 연영기업(joint ownership enterprises), 유한책임공사(limited liability enterprises), 주식제회사(share holding enterprises), 사영기업(private enterprises)로 구분된다.¹⁴⁾ 여기서 과거 전민소유제 기업과 국영기업으로 구성된 국유기업,

14) 중국통계연감의 분류에 따르면 연영기업은 국유연영기업, 집체연영기업, 국유-집체연영기업, 기타 연영기업으로 구분되며, 유한책임공사는 국유독자공사와 기타 유한책임공사

국유 지분이 지배적 비중을 차지하는 국유연영기업, 국유-집체연영기업, 국유독자기업을 국유기업의 범위(광의의 국유기업)로 볼 수 있다. 한편, 중국통계연감은 이와 같은 등록 형태별 분류 이외에도 국유기업 및 국유 지분 우위기업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국유기업은 과거 전민소유제와 국영기업으로 구성되며(협의적 의미의 국유기업), 국유 지분 우위기업은 국유지분이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형태의 기업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국유기업 및 국유 지분 우위기업을 광의의 국유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중국 국유기업 현황

여기서는 중국통계연감의 정의에 의거, 광의의 국유기업(국유기업 및 국유지분 우위기업) 통계를 통해 국유기업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통계연감(2013)에 따르면 2013년 현재 국유기업 수는 18,197개로 2000년 53,489개에서 약 66%가 줄어들었으며, 전체 기업(352,546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2%에 불과하다. 반면에 2013년 기준 사영기업 수는 194,945개로 2000년(22,128개)에 비해 8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 결과 현재 전체 기업 수에서 사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동 기간 13.6%에서 55%로까지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국유기업과 사영기업 사이에 기업 수의 상반된 증가 추이에도 불구하고 국유기업의 자산 규모는 사영기업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국유기업의 총자산은 2000년 8.4조 위안에서 2013년 34.3조 위안으로 4배 가량 증가하였는데, 이 기간 중 사영기업의 총자산

를 포함한다.

표 2-5. 중국 공업기업 유형별 주요 지표 추이

연도	기업 유형	기업 수 (개)	자산 (억 위안)	영업수입 (억 위안)	이윤 (억 위안)
2000	공업 전체	162,885	126,211	84,152	4,393
	국유기업	53,489	84,015	42,203	2,408
	사영기업	22,128	3,874	4,792	190
2005	공업 전체	271,835	244,784	248,544	14,803
	국유기업	27,477	117,630	85,574	6,520
	사영기업	123,820	30,325	45,801	2,121
2010	공업 전체	452,872	592,882	697,744	53,050
	국유기업	20,253	247,760	194,340	14,738
	사영기업	273,259	116,868	207,838	15,103
2012	공업 전체	343,769	768,421	929,292	61,910
	국유기업	17,851	312,094	245,076	15,176
	사영기업	189,289	152,548	285,621	20,192
2013	공업 전체	352,546	850,626	1,029,150	62,831
	국유기업	18,197	342,689	258,243	15,194
	사영기업	194,945	174,771	329,694	20,876

자료: 中國統計年鑑(2013); 中國統計摘要(2014).

도 3,874억 위안에서 17.4조 위안으로 무려 44.6배로 급속하게 늘어났다.

영업수입과 이윤에서는 사영기업이 국영기업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사영기업의 영업수입과 이윤은 각각 33조 위안, 2조 위안으로 국유기업(영업수입 25.8조 위안, 이윤 2조 위안)보다 높았다.

한편 중국통계연감(2012)에 따르면 중국의 규모 이상 기업의 전체 산업생산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국유기업 및 국유 지분 우위기업의 산업 생산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1998년 국유기업 및 국유 지분 우위기업의 산업 생산은 3조 6,000억 위안에서 2011년에는 1998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22조 위안에 달했다. 그러나 규모 이상 기업의 산업 생산에서 국유기업 및 국유 지분 우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9.6%에서

표 2-6. 중국 국유기업 및 사영기업의 산업 생산 추이

(단위: 억 위안)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1
전체 기업	67737,1	85673,7	11,076,5	201,722,2	316,589,0	507,284,9	698,590,5	844,268,8
국유기업	33,621,0	40,554,4	45,179,0	70,229,0	98,910,5	143,950,0	188,861,0	221,036,3
사영기업	2082,9	5,220,4	12,950,9	35,141,3	67,239,8	136,340,3	213,338,6	252,325,7

주) 국유기업에는 국유지분 우위기업 포함
 자료: 中國統計年鑑(2012).

26%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국유기업 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감소는 비국유 부문의 약진을 의미하는바, 실제로 사영기업이 전체 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3%에서 2011년 30%로 무려 10 배로 증가하였다.¹⁵⁾

2013년 기준 국유기업의 도시 지역 고용은 6,355만 명으로 2008년에 비해 1.4% 줄어든 반면, 사영기업의 고용은 8,242만 명으로 61%나 늘어났다. 이러한 사영기업의 고용 증가로 전체 도시 지역 고용에서 국유기업의 비중은 같은 기간 20%에서 16.5%로 감소하였으나, 사영기업의 고용 비중은 16%에서 21.6%로 늘어났다.

표 2-7. 국유기업 및 사영기업의 도시 지역 고용 추이

(단위: 만 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기업	32103	33322	34687	35914	37102	38240
국유기업	6447	6420	6516	6704	6839	6355
사영기업	5124	5544	6071	6912	7557	8242

자료: 中國統計年鑑(2013); 中國統計摘要(2014).

15) 2013년 중국통계연감은 국유 및 국유 지분 우위기업의 산업 생산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지 않았음. 이에 산업 생산에 대한 통계는 2012년 중국통계연감을 기준으로 작성함.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유기업 수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전체 기업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2%에 불과하다. 이러한 기업 수 감소와 달리 국유기업의 총자산은 크게 늘어났으나, 영업수입과 이윤 및 고용은 사영기업의 급속한 성장세에 밀려 각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졌다.

다. 국유기업 관리체계

1)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SASAC)의 출범

중국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목표에 따라서 국유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국유자산 및 국유기업 관리·감독을 위해 2003년 3월 제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자위를 출범시켰다. 국자위는 지난 35년간 국유기업 발전 및 국유자본 관리·감독 방식 변화에 따라 변모해왔다.

국자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유자산관리국은 1978년 제 11기 3중전회의 국유기업 및 국유자산 관리·감독 방침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1988년에 설립되었다. 재정부 소속의 국유자산관리국은 최초의 전문적인 국유자산 관리 기관으로 10년간 국유자산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국유자산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다. 동 기관은 1998년 정부기구 개혁에서 폐지된 9개 중앙 부처 산하의 국유기업을 관리하기 위해 중앙기업 위원회로 변모하였다. 폐지된 9개 중앙 부처의 산하 국유기업에 대한 경영진 인사권 및 각종 권한을 이양 받아 약 1년간 중앙기업공작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운영되었다.¹⁶⁾ 중앙기업공작위원회는 현재의 국자위와 가장 흡사한 모델로 이러한 발전과정은 국자위가 출범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16) 國務院國有資產監督管理委員會, <http://www.sasac.gov.cn/n1180/n1271/n20515/n2697175/12403737.html>(accessed August 4, 2014).

표 2-8. 중국 국유기업 및 국유자산 관리·감독 기구 발전과정

명칭	설립 시기	설립 목적	주요 기능
국유자산관리국	1988년	- 행정 기능과 자산관리 기능 분리를 위한 국유자산관리체제 모색 - 국유자산관리 강화를 통한 국유자산 증대 및 손실 방지	- 국유자산 관리·감독권, 국유자산투자수익권 및 자산권 등
중앙기업위원회	1998년	- 1998년 정부기구 개혁에서 폐지된 9개 중앙 부처 산하의 국유자산 임시 관리	- 국유기업 경영진 관리 - 9개 중앙 부처 산하 국유기업 관리
중앙기업공작위원회	1999년	- 중앙 국유기업 경영, 경영진 등 관리·감독	- 중점 대형 국유기업 자산 관리 - 소유권과 기업 경영권 분리
국유자산 관리·감독위원회	2003년	- 국유기업의 관리·감독 및 개혁	- 경영진 임면, 국유자산 관리 등

자료: 國務院國有資產監督管理委員會, <http://www.sasac.gov.cn/n1180/n1271/n20515/n2697175/12403737.html>(accessed August 4, 2014)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2) 국자위의 기능 및 역할

국무원 직속기관인 국자위는 국무원의 위임을 받아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계 기업을 제외한¹⁷⁾ 국유기업 및 국유기업 자산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국자위의 주요 기능은 산하 국유기업에 종사하는 경영자의 임면권, 국유 기업 자산의 합병 또는 매각, 국유기업 관련 법안 초안 설정 등이다. 국자위는 산하 기업의 주요 경영자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한편 이들 기업에 대한 자산 가치 보존 및 증대에 책임을 지는¹⁸⁾ 역할을 수행한다. 국자위는 경영진 임면권을 통해 국유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활동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자위는 국유자산 재산권에 대한 대표자 겸 관리자로 국유기업의 경영활동에는

17) 금융계 국유기업은 재정부와 지방 재정청에서 관리함.

18) 國務院國有資產監督管理委員會, <http://www.sasac.gov.cn/n2963340/n2963393/2965120.html>(accessed August 6, 2014).

직접 관여하지 않으나 경영계획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수립된 국유기업의 개혁 및 구조조정 추진, 성과시스템 운용 등에 따라 국유기업 자산의 합병 또는 매각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한다.¹⁹⁾ 이와 더불어 국유기업 관련 법안 초안을 작성하고, 산하 기업의 안정성 유지에 관한 기본 원칙, 정책, 관련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 국유자산 관리 업무에 대해 지도 및 감독을 한다.²⁰⁾

국자위는 국유 지분 우위기업 또는 대리인에 국유자산을 위탁 관리하는 방식을 통해 대리인의 경영활동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경영진 임면, 경영 규정 제정, 지분 변경, 이윤 분배 방안 등의 심사 기준, 회계감사, 수익 분배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즉, 대리인의 경영 방침에는 관여하지 않으나 그 외에 분야는 모두 국자위가 총괄하고 있어 국유기업 운용 및 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3) 국자위 조직 구성

국자위는 정책법규국, 기획발전국, 재산권관리국, 재무관리감독 및 평가국, 기업개혁국 등 국유기업 개혁 및 국유자산 관리·감독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를 비롯한 23개 국 및 직속 기관인 연구센터, 정보센터, 교육센터로 구성되어 있다.²¹⁾ 현재 국무원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위원장 장이(張毅)의 7명의 부위원장 및 중점 대형 국유기업관리감독위원회

19) *Ibid.*

20) *Ibid.*

21) 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 <http://www.sasac.gov.cn/n1180/n1566/index.html> (accessed August 6, 2014).

표 2-9. 중국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조직

부서	주요 기능
판공실	- 행정 문서 보안 관리
정책법규실	- 국유자산 관리 감독 관련 법률 및 법규 입안
규획발전국	- 대기업 국제 경쟁력 발전 정책 연구 - 산하 기업의 구조조정, 발전 전략 수립, 규획 심사 및 확정, 중요 투자 정책 이행
재무감독 및 심사평가국	- 산하 기업의 예산 수립 및 종합 심사·평가
재산권관리국	- 국유자산 재산권 및 산하 기업 재산권 정립 및 관리
기업개혁국	- 국유기업 개혁 정책 건의 및 국유기업 현대화제도 수립 - 산하 기업의 합병, 상장 등 국유자산 경영 방안 수립
기업개편국	- 산하 기업의 업무 개편 및 잉여노동력 재배치
기업분배국	- 국유기업 수익 분배 제도 개선 방안 건의
종합국	- 국유경제 및 산하 기업의 운용 방안 종합연구
수익관리국	- 산하 기관의 국유자산 수익 관리 - 국유자본 경영예산 관련 제도 입안
감사위원회업무국	- 국유기업 감사 업무 수행
기업경영진관리 1국 및 기업경영진관리 2국	- 산하 기업의 경영진 관리
중국 공산당 건설 업무국	- 산하 기업 내 당 조직 수립 및 당원 교육·관리
홍보업무국	- 사상 교육 및 기업 문화 가이드라인 제공 - 대외 홍보 업무 담당
대민업무국	- 산하 기업의 노동조합 관리
연구국	- 국유자산 관리제도 개혁 연구
외사국	- 국자위 및 산하 기업의 국제 교류·협력 업무
인사국	- 국자위 및 산하 기업의 인사 관리
기관서비스관리국	- 퇴직 및 휴직 간부 관리 기구 담당 - 서비스센터 관리
기관 당위원회	- 국자위 및 북경 소재 직속 단위의 당과 대민 업무 담당
국자위 기율검사위원회 및 감찰국	- 산하 기업의 기율 조사
국자위 순시반	- 규획, 정책 연구, 제도 수립, 종합적 조정 등 기타 업무 총괄

주: 산하 기업은 국자위가 관리·감독하는 기업을 지칭.

자료: 國務院國有資產監督管理委員會, <http://www.sasac.gov.cn/n1180/n1566/index.html>, (accessed August 6, 2014)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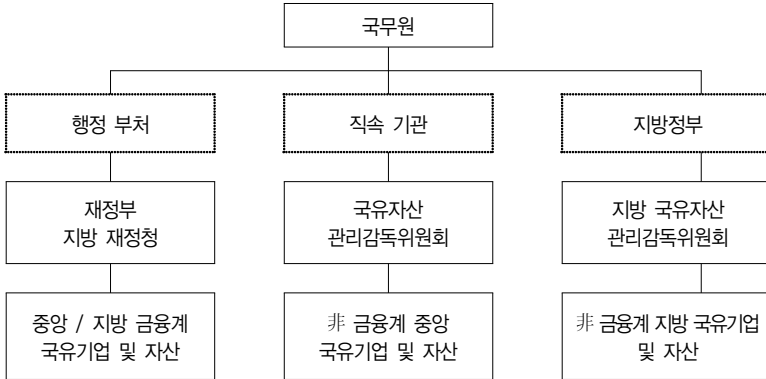
주석 28명 등이 국유기업 개혁 및 국유자산을 관리·감독하는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²²⁾ 국자위의 관리·감독을 위해서 국자위는 독립 감사기관의

특별 감사 파견 또는 사외 감사 위탁을 통해 국유기업 경영진의 경영 성과 허위 신고를 방지하고 국유자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국유기업 관리를 위한 운용체제를 추진하고 있다.

4) 국유기업 관리체계

국자위의 국유기업 관리체계는 중국의 일반적인 행정체제와 유사하게 중앙, 성, 시(현 포함) 등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2003년 중앙 국자위 출범이후 각 성·시급 국자위가 모두 설립되어 있다. 중앙 국자위는 국무원의 직속 기관으로 중앙 국유기업과 중앙 국유자산을 관리·감독하고 지방 정부 산하의 지방 국자위는 해당 지방의 국유기업과 그 소속 국유자산을 관리·감독한다.

그림 2-1. 중국 국유기업 관리감독 체계



자료: Deng, Morck and Wu(2011), 재인용: Szamosszegi and Kyle(2011) 및 중국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홈페이지 (www.sasac.gov.cn(accessed August 6, 2014))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22) 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 <http://www.sasac.gov.cn/n1180/n20240/n13563062/index.html>(accessed August 6, 2014).

2. 중국 국유기업 개혁과정

가. 중국 국유기업 개혁 배경

1978년 개혁·개방 이전 중국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하에 국유기업을 직접 통제하였다. 국유기업의 생산 목표치는 물론 투자, 판매 및 가격 결정, 인사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영에 대한 결정권이 없었으며, 모든 이윤은 국가로 귀속되었다. 이와 같은 경영 자율권의 부재와 아울러 철밥그릇 행태와 연성예산제약의 폐단으로 인해 국유기업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경제 및 사회 불안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978년 개혁개방을 계기로 중국정부는 국민경제 회복, 사회 안정을 위해 국유기업 개혁을 중요한 선결 과제의 하나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국유기업에 대한 중앙집권적 단일관리체제와 지령성 계획은 국유기업의 성장동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최대 걸림돌로 지적됨에 따라 국유기업 개혁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개혁개방 직후부터 1980년대 국유기업 개혁의 첫 단추는 국유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완화하고 일정 부분 자율권을 부여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였다. 이러한 개혁에 의해 국유기업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 개선되기도 하였으나 1990년 초반까지도 국유기업의 수익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개혁개방 이후 사영기업과 외자기업의 성장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과잉 투자에 따른 공급 초과 등 경영환경의 악화로 국유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되었다. 특히 1997년에는 중대형 22,000개의 국유기업 가운데 6,599개가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다.²³⁾ 이에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은 경제 여러 부문에 걸쳐 이루어지는 시장경제 개혁 방향에 부합

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국유기업 개혁의 중점을 두었다.

한편 시진핑 체제의 중국 신정부는 출범 이후 급속한 경제 발전 이면에 배태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제 발전 방식의 전환을 통한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면적인 경제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표출하였다. 국유기업 역시 이러한 배경으로 추진된 주요 경제 개혁 과제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는 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라진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역사적으로도 중국은 경제성장이 둔화된 시기나 전환기에 농촌 및 토지 개혁(1970~80년대), 등소평 남순강화(1992년), 부동산 개혁(1998년)과 같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한 예가 있다.²⁴⁾

이상과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중국 국유기업 개혁과정은 개혁의 중점 방향, 개혁 관련 주요 조치의 성격 및 시기별 경제사회 여건에 따라 크게 개혁개방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국의 다른 여타 부문의 경제 개혁과 마찬가지로 국유기업의 본격적인 개혁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에 추진되었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국유기업의 개혁과정은 연구자별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바, 대체로 시기별로 3, 4단계로 구분하여 고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략 개혁개방 초기부터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 초반 및 2010년 이후 시진핑의 신지도부 출범 등 4단계로 나누어 국유기업 개혁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3) OECD(2009), p. 3.

24) CITIC Securities Research(2014), p. 3.

나. 개혁·개방 이전 국유기업 개혁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이후부터 개혁개방 이전까지 중국은 중앙 집권적 계획경제체제하에서 국유기업을 육성·관리하였다. 1950년대 사회주의 경제체제 확립을 위한 과정에서 모든 민간기업의 국영화 및 자산의 국유화가 진행되었으며, 중화학 중심의 산업화 과정에서 국유기업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시기에 중국은 사회주의 공유제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철저한 계획경제 체제하에 자원 배분 및 생산에서부터 가격 결정에 이르기까지 국유기업의 경영, 관리는 중앙 및 지방정부, 국가기관의 통제하에 있었다. 따라서 당시 중국에는 시장경제체제의 민간 기업은 엄밀한 의미에서 존재하지 않았다.²⁵⁾

중국은 이 시기에 주로 중앙정부 통제에 있는 국유기업을 통해 대규모 투자를 함으로써 산업화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전력, 석탄, 철강 등의 공업 분야는 물론 철도, 우편과 같은 교통 및 통신 사업의 대부분이 국영경제체제로 개편되었다.²⁶⁾ 특히 1978년에 이르러 중국 전체 공업생산의 약 3/4을 국유기업이 담당하게 되었다.²⁷⁾ 이와 같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부터 개혁개방 이전까지 중국의 국유기업은 철저한 계획경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중앙 및 지방정부에 의해 관리·운영되었다. 그 결과 국유기업의 자율성은 보장되지 않았으며 모든 기업의 이윤은 정부에 귀속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중국 국유기업 자체에 대한 개혁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국유기업의 관리 및 지배권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

25) 문진영, 김병철(2012), p. 78.

26) 송영관, 안덕근(2012), p. 11.

27) KPMG(2013), p. 1.

부의 권한 배분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는 데 그쳤다. 중국이 행정 분권을 모색하기 시작한 1958년 중국은 중앙집권적 계획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분권화된 계획체제를 수립하고, 기업 관할권 등 각종 경제적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게 된다.²⁸⁾

다. 개혁·개방 이후 국유기업 개혁

1) 1단계(1978~92년)

1978년 개혁개방을 계기로 중국 국유기업 개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개혁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시기에 들어 국유기업 개혁은 이전에 비해 급진적인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개혁은 1979년 9월 국무원의 ‘국영공업기업 경영관리 자율권 확대에 관한 규정’을 통해 국유기업의 경영 자율권을 확대하였다는 점이다.²⁹⁾ 이는 국유기업이 과거 중앙집권적 경제체제의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 이윤을 추구하고 시장 경쟁에 참여를 유도하는 토대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국무원의 국유기업 자율권 확대 방침과 함께 ‘방권양리(放權讓利)’ 조치가 시행됨으로써 국유기업의 이윤유보가 일정 부분 허용되었다.³⁰⁾ 또한 1983~84년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 이개세(利改稅)제도는 국유기업의 이윤 유보와 함께 국유기업의 경영 책임 및 자주권의 확대를 가져왔다.³¹⁾ 이러한 조치 및 제도는 중앙집권적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28) 이에 따라 중앙정부 소속이던 국유기업 및 사업 단위 중 88%가 각 지방정부에 이양되었다. 정형곤 외(2010), p. 12.

29) 문진영, 김병철(2012), p. 81.

30) 방권양리란 국유기업에 일정 범위의 자율권을 보장해 주고 이윤의 일부도 기업 내에 유보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느슨하게 하여 국가와 기업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유기업에 대해 일단 계획된 생산량을 충족한 뒤 잉여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판매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경제행위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청부경영책임제(承包經營責任制)를 도입함으로써 국유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국유기업 스스로 경영상 책임을 지게 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유기업을 독립적인 경제 주체(기업체)로 전환함은 물론 독립적인 법적 주체로서 기업 경영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부담도록 유도하였다.³²⁾

2) 2단계(1993~2002년)

이 시기에는 현대적 기업제도를 수립하고 국유경제의 구조조정을 위한 개혁 조치가 추진되었다. 1993년 11월 중국 공산당 제14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4기 3중전회)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위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결정’을 통해 국유기업의 현대적 기업제도로의 전환을 주요 국유기업 개혁 방향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시장경제의 요구에 부합하는 재산권 및 권리의 명확화, 정부·기업 분리, 과학적인 관리가 현대 기업제도의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1994년 11월

31) 이개세 제도는 국유기업이 생산활동의 결과 획득한 이윤을 정부가 전액 가져가던 과거의 관행을 바꾸어 법규에 규정된 세목과 세율에 따라 이윤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세후 이윤은 기업에게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기업 간 이윤 분배 관계를 안정시키는 한편, 국유기업의 경영 책임과 자율권 확대를 꾀하였다.

32) 이는 국유기업이 소유자인 정부와 일정 기간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 주체로서 이 계약에 의거하여 해당기업을 자주적으로 관리·경영함으로써 경영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Xiao Geng, Xiuke Yang and Anna Janus(2009), p. 157.

부터 국무원은 전국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대적 기업제도 수립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였다.³³⁾

또한 1995년 제14기 5중 전회에서는 국유기업 개혁 방향으로 큰 것은 쥐고 작은 것은 놓는다는 조대방소(抓大放小; grasping the large and letting go the small) 방침을 채택하였다. 이는 국가의 역량을 대형 국유기업에 집중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중소형 국유기업은 합병, 매각, 임대 경영, 파산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개혁하여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1999년 제15기 4중전회에서는 정부의 주식보유제도를 인정하고 전략산업을 제외한 대·중형 국유기업을 주식회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³⁴⁾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의 개혁개방은 한층 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국유기업 개혁도 더욱 심화된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3) 3단계(2003~12년)

3단계 국유기업 개혁 시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국유자산 관리체계에 관한 개혁이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는 대형 국유기업의 경영관리 측면에서 중앙과 지방, 정부 부처 간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였다. 또한 정부 부처가 대형 국유기업에 대한 공공관리와 국가 소유권 기능을 담당하면서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은 폐단이 있었다.³⁵⁾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3년 3월 중국은 국무원 직속 기구로 ‘국자위’를 설립하였다. 국자위는 국가가 직접 소유하였던 국유기업의 자산을 통합하

33) 정형곤 외(2010), p. 98.

34) 송영관, 안덕근(2012), p. 13-14.

35) 문진영, 김병철(2012), p. 84.

며, 국유기업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를 위한 국자위의 주요 임무 및 기능은 투자자 관련 직무를 책임지며, 국유기업의 자산을 관리·감독하는 한편, 국유자산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자위는 국유기업에 대한 이윤 창출과 생산성 향상 보장 요구, 이에 대한 평가지표 체제 마련, 국유자산 관리체계 개혁 등 국유기업 개편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여러 조치를 시행하였다. 국자위 설립으로 국자위에서 설립한 기관이 투자 관련 직무를 수행하며 공공관리 부서와 분리됨으로써 정·경 분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대표적인 국유자산 투자자인 국자위를 통해 소유자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국유자산 가치 보증과 상승을 실현하였다.³⁶⁾ 중국정부는 이와 같이 국유기업의 현대화와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자위를 설립하였으나, 여전히 국자위를 통해 국유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³⁷⁾

4) 4단계(2013년~)

2013년 3월 양회에서 공식 출범한 시진핑 신지도부는 향후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의 하나로 경제 개혁을 심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하였다. 중국 신지도부는 2013년 11월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개혁의 전면적 심화에 관한 일련의 중대 문제 결정(이하 결정)’을 발표하고 이전과 달리 전면적 경제 개혁을 강조하였다. 결정에서는 경제 개혁의 6대 중점으로 기본 경제제도의 완비, 현대적인 시장체제 정비의 가속화, 정부기능의 전환, 재정과 세제 개혁의 심화,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 발전, 새

36) 삼성경제연구소(2008), p. 8.

37) Daniel Ho, Angus Young(2013), p. 87.

로운 개방형 경제체제의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기본 경제체제의 완비는 국유기업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유기업의 개혁 방향은 공유제를 주체로 하는 다양한 소유제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혼합소유경제의 적극 발전, 국유기업의 현대적인 기업제도 완비, 비공유제의 건전한 발전 추구를 주요 개혁 과제로 설정하였다. 중국 신지도부는 이와 같은 국유기업 개혁 추진 방향을 2014년 양회에서 재확인하고 이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였다. 18기 3중전회 이후 중국 신지도부의 국유기업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다음 3절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룬다.

표 2-10. 중국의 단계별 국유기업 개혁 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기	1978~92년	1993~2002년	2003~12년	2013년~
핵심 방향	경영 자율권 및 이윤 추구(유보)	현대적 기업제도 수립	국유자산 및 기업 관리·감독	국유자산 관리제도 완비, 혼합소유제 발전
주요 내용	- 중앙집권 계획경제의 사회복지 제공 기능 → 분권을 통한 경영 자주권 확대, 이윤유보 허용, 시장 경쟁에 참여하도록 유도	- 국유기업의 흑자 경영 달성을 위한 구조조정 및 효율성 제고 인식: 구조조정, 통폐합, 주식제 등 - 국유기업의 재산권 구조 다양화	- 중앙과 지방 간 국유자산 및 국유기업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한 데서 오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관리체제 개혁 중점	- 국유경제의 전략적인 조정과 국유자본의 합리적인 관리 강화
관련 조치 및 정책	- ‘국영공기업 경영 관리 자율권 확대에 관한 규정’(1979.7.) - 방권양리 - 이개세 - 청부경영책임제	-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위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결정’(1993.11. 14기 3중전회) - 100개 시범 기업 대상으로 현대기업제도 수립 추진(1994) - 15기 4중전회(1999.9)	-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정비 문제에 대한 결정’(2003년 16기 3중전회): 국유자산 관리·감독 체제 건설 -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설립(통일적 관리·감독, 중앙과 지방의 비금융계 국유기업 관리)	- 18기 3중전회 - 2014년 양회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향후 국유기업 개혁 방향

가. 18기 3중전회 이후의 국유기업 개혁 방향

중국은 2012년 11월 제 18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유경제의 활력, 통제력, 영향력 강화’라는 새로운 시각의 국유경제 개혁 개념을 제시하여 국유경제 개혁 의지를 표명하였다.³⁸⁾ 국유경제 개혁은 국유기업 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 18기 3중 전회에 앞서 발표된 ‘383방안’에서도 ‘삼위일체’ 개혁이 논의되는 등 중국은 국유기업 개혁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였다.³⁹⁾

2013년 11월 개최된 제 18기 3중전회에서 적극적인 혼합소유제 추진, 국유자본 투자 부문의 민간자본 개방, 국유자산경영제도 개혁이 제시되면서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표 2-11 참조). 국유기업 개혁의 핵심인 혼합소유제는 1997년 제 15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처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국유 지분을 국유자본, 집체자본, 비공유자본이 교차 지배, 즉 사회 및 민간자본에 매각하는 방안으로 다원화된 경영방식을 추구하는 한편 시장의 기능 또한 강화하는 방안이다. 중국은 민간자본의 시장 경쟁 참여, 법률적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 등 지원 조치를 통해 혼합소유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적으로 국유자산을 관리하는 기구를 설립하여 효과적인 자본 중심의 관리를 하고자 한다. 이러한 국유자본 관리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의 공공서비스

38) 新华网(2012), http://www.xj.xinhuanet.com/2012-11/19/c_113722546_4.htm(accessed April 15, 2014).

39) 정부, 시장, 기업의 관계를 개혁하여 국유경제가 주도하는 시장경제체제.

투자를 확대하여 사회복지 수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은 ‘공유제가 주도하는 국민경제’를 재강조하면서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뜻하지 않음을 시사하였다.

2014년 시진핑 신정부의 경제발전 방향을 발표한 양회에서도 혼합소유제 발전 가속화, 독점산업 개방, 국유자산 관리제도 개선, 국유자본운영공사 시범 추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 석유, 전력, 철도, 전신, 자원 개발, 공공사업 부문 등 제한적인 분야만을 민간자본에 개방할 계획

표 2-11. 최근 국유기업 개혁 주요 내용

제 18기 3중전회	2014년 양회
<p>적극적인 혼합소유제 경제 발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자본, 집체자본, 비공유자본의 교차 자본 소유를 통한 혼합소유제를 통해 국유자본의 기능 확대 및 경쟁력 제고 - 국유자본투자 항목에 대한 비공유자본의 참여 허가 - 국유자산관리제도 최적화 및 국유자산 관리·감독 강화 - 국유자산 경영제도 개혁(국유자산운용공사 설립 및 일부 국유기업 ‘국유자본투자공사’로 전환) - 국유자본 경영 예산 제도 개선으로 국유자본 수익에서 공공재정 투자 비중 확대 	<p>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기업 기능 범위를 정하고 독점 산업 개혁 - 비공유제 기업의 참여와 국유기업 개혁 장려 - 적극적으로 혼합경제제도 발전 - 국유자산 관리제도 개선 <p>정부 업무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경제구조 최적화 및 혼합소유제 발전 가속화 - 현대 기업제도 및 회사법인 관리 구조 설립 - 국유자산 관리제도 개선 - 국유기업의 기능 및 범위 제정 - 국유자본운영공사 시범 추진 - 국유자본 경영예산을 개선하고 중앙국유기업 수익에서 공공재정 할당 비중 확대 - 비공유자본 참여 및 중앙국유기업 투자 항목과 방법을 제정 - 금융, 석유, 전력, 철도, 전신, 자원 개발, 공공사업 등 부문에 대한 비공유자본의 투자 허가 - 비공유제 기업의 경영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정 - 재산권보호 제도 개선으로 공유경제제 및 비공유제의 재산권 보호

자료: 新华网(2013) http://www.sn.xinhuanet.com/2013-11/16/c_118166672.htm(accessed April 22, 2014); 中华人民共和国人民政府(2014) <http://www.gov.cn/zhuanti/2014gzbg.htm>(accessed April 22, 2014); 人民网(2014) <http://politics.people.com.cn/n/2014/0316/c1001-24645112.html>(accessed April 22, 2014)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이다. 또한, 동 발표에서는 민간자본의 중앙국유기업 투자 항목과 방법, 법 혹은 규정을 제정하여 민간자본의 투자 비중을 조절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국유기업 개혁 제한을 통해 국유경제를 통제하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행정 개혁으로 간소화된 절차를 도입하고 서비스형 정부로 거듭나 경제 통제력을 확보하여 비공유제 경제와 공유제 경제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중국 정부는 2014년 양회의 주요 목표에 따라 비공유제의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 제한 및 경영 조건 완화, 효율적인 토지 분배 등의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전히 국유기업 독점 분야가 존재하고 있으며 국유기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 범위는 제한적이어서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나. 국자위 개혁 청사진

국유기업을 개혁하고 국유자산 전문 관리기구의 설립을 위해서는 현재 국유기업에 전반적인 경영, 관리, 감독을 통제하고 있는 국자위 개혁은 필연적인 것이다. 따라서 국자위 개혁은 국유자본투자 전문기구 설립을 통한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 국유기업 자산의 자본화를 중점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⁴⁰⁾ 현재까지 국자위는 실물 형태의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진 임면권을 가지고 경영에 관여하는 동시에 매출 및 수익을 관리·감독하여 소유권과 경영권을 모두 행사하였다. 국자위가 모든 통제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국유기업 경영진의 능동적인 기업 경영을 통한 자산

40) 國有資產監督獎勵委員會(2014), 財經·國資改革〇〇, <http://www.sasac.gov.cn/n1180/n1280/n20515/n2697206/15709888.html>(accessed on April 13, 2014).

가치 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국유 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국은 인사권 관리 위주의 국자위 체제를 자본운영 관리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개혁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국자위는 소유권과 경영권 분리, 유동적인 자본 확보를 위해 국유 자산위탁 대리인 체제를 정립하여 국유자본투자 전문기구의 국유기업 경영 또는 주주제 형식으로 개혁해 나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유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분리되어 국유기업은 능동적으로 경영 방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손익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⁴¹⁾ 이를 위해 ‘국유자본운영공사(state-owned capital operating company)’와 ‘국유자본투자공사(state-owned investment company)’의 설립을 모색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 두 기관의 설립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정부의 심의과정을 거쳐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지금까지 중국 내에서 논의된 제한적인 정보에 따르면, ‘국유자본운영공사’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출자로 설립되며, 싱가포르 테마섹과 유사한 지주회사 형태로 국자위를 대신하여 국유자본 운영의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적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국유기업은 국유자본투자공사의 형태로 전환하여 국가 주도가 아닌 국유기업이 직접 자금을 조달(자산 매각 및 기업 구조조정)하고 자율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41) *Ibid.*

표 2-12. 국유자본운영공사, 국유자본투자공사 개요

	자본 출처	적용 기업 특징	운영 방식
국유자본운영공사	중앙 및 지방정부 출자	금융투자 위주	자본시장을 통한 금융투자
국유자본투자공사	국유기업 자체	기업 재무 투자	실물경제 투자

자료: CITIC Securities Research(2014), p. 7.

‘국유자본운영공사’의 역할 및 운영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에 싱가포르 테마섹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제시하였다.

테마섹(Temasek Holdings)

테마섹은 1974년 설립된 싱가포르 투자회사(국부펀드)로 정부연계기업(GLCs)들의 투자 관리를 비롯 국유자산의 운영(관리, 투자)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재무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지주회사로서 1974년 설립 당시 35개 기업이 테마섹 관리 영역으로 이전되었다. 테마섹은 가장 성공적인 국부펀드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바, 2004년 이후 기업신용등급도 매우 우수하다("Aaa"(Moody's), "AAA"(Standard & Poor's), 또한 2014년 3월 말 현재 순포트폴리오 가치는 2,230억 싱가포르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설립 이후 연평균 총주주수익률은 16%에 이른다.

테마섹은 싱가포르 정부가 소유하고 있으나, 민간회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요구 사항을 준수(민간기업과 동일하게 기업법의 적용을 받음)하고 있다. 또한 국유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경영권의 엄격한 분리 독립을 바탕으로 공기업 지배주주의 역할과 공격적 투자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테마섹의 임원 임면 동의권 및 예산 승인권, 국가잉여금 사용 승인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테마섹 이사회 구성원들은 대부분 전문경영인 출신이며, 이사회 과반이 비상임이사로 구성된다. 그러나 정부는 테마섹 계열 회사의 경영권에 간섭하지 않으며, 테마섹 역시 정부연계회사(GLCs)의 경영 자율권을 존중, 전문경영인을 자유롭게 임명하도록 한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회사 이사회 임원 임명에도 직접 간여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테마섹은 공기업 관리자로서 자회사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경영 성과에 대한 모니터 등 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자회사 지분 보유를 통해 축적된 자산으로 전략적 투자를 실행하기도 한다. 즉, 테마섹의 일반적인 운영 및 경영은 정부 통제로부터 독립적이며 이는 적극적인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료: 테마섹 홈페이지(<http://www.temasek.com.sg/>)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accessed July 30, 2014).

다. 국유기업 개혁 시범 방안

국자위는 2014년 7월 15일 국유자본투자공사 설립, 혼합소유제, 이사 회제도 도입, 기율검사조직의 파견 등 점진적인 국유기업 개혁을 위한 네 가지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⁴²⁾ 이번 시범 시행을

통해서 국유기업 개혁 과정 중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전면적인 개혁을 위한 전략 수립에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자위는 투자, 의약, 식품, 건설, 제련,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서 최근 개혁 성과 및 운영 효율이 높은 6개 기업을 시범 방안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원만한 시범 시행을 위해 네가지 개혁 방안별 목표를 고려하여 기업을 선정한 것으로 보이나 핵심 중앙기업은 선정되지 않아 방안의 실효성 측정 시에 한계점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표 2-13. 개혁 방안과 시범기업

개혁 방안	시범기업
국유자본투자공사	중량그룹(中粮集团, COFCO) 국가개발투자공사(国家开发投资公司, SDIC)
혼합소유제 시범사업	중국의약집단총공사(中国医药集团总公司, Sinopharm) 중국건축재료집단(中国建筑材料集团, CNBM)
중앙국유기업 이사회가 직접 임원직 선임과 실적 감사 진행	중국의약집단총공사(中国医药集团总公司, Sinopharm) 중국에너지절약환경보호집단(中国节能环保集团, CECEP) 중국건축재료집단(中国建筑材料集团, CNBM) 신흥제화집단(新兴际华集团, XXCIG)
중앙국유기업 기술검사팀 파견	향후 2~3개 지정할 예정

자료: 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2014), <http://www.sasac.gov.cn/n1180/n1566/n259730/n264168/15962412.html>(accessed August 6, 2014)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각 방안에 해당하는 시범기업들은 다양한 제도를 시도하여 국유기업 개혁에 적합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중량그룹과 국가개발투자공사는 국유자산관리·감독에 있어 ‘자본’위주의 관리 방식을 도입하며 자본의 투자 및 운용을 최적화할 방침이다.⁴³⁾ 국가개발투자공사는 1995년 설립

42) 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2014), <http://www.sasac.gov.cn/n1180/n1566/n259730/n264168/15962412.html>(accessed August 6, 2014).

된 다각화기업으로 2012년 기준 총 24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5개 회사는 상장 회사이다. 동 기업은 다양한 관리방식을 시도하여 자산경영과 자본경영이 결합된 구조를 채택하였다. 즉, 자본을 투자하여 주주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취득하게 되며 주주권 환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왔다. 중량기업은 1949년 설립 이후 식품 분야(농산품, 식료품 등)에 주력하였으나, 현재는 무역, 금융, 부동산, 제약 분야에까지 진출해 있다.

중국의약집단총공사와 중국건축재료집단 역시 다각화기업으로 혼합소유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경영자 제도를 비롯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⁴⁴⁾ 1998년 설립된 중국의약집단총공사는 국자위가 관리하는 의약산업 관련 기업 중 가장 큰 제약 연구개발 기업으로 전국적인 운송센터 30곳을 통해 약품을 조달하고 있다.⁴⁵⁾ 동 기업의 자회사는 총 11개로 그중 5개 기업이 상장되어 있다. 중국건축재료집단(1984년 설립)은 20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6개 회사가 상장되었으며, 건축 설비, 기술, 무역 분야가 주력 업종이다.⁴⁶⁾

중국의약집단총공사, 중국에너지절약환경보호집단, 중국건축재료집단, 신흥제약집단 등 4개 중앙 국유기업은 국자위와 이사회의 기능을 분리하는 시범 시행을 추진하게 된다. 기업별 이사회는 국자위의 가이드라인에

43) *Ibid.*

44) *Ibid.*, 중국석유화학공주식회사(Sinopec) 및 중국석유천연가스주식회사(PetroChina)는 이미 혼합소유제 개혁을 추진 중인바, 중국석유화학공주식회사는 2013년 2월 영업 부분을 개편하면서 민간자본을 전체의 30%까지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힘.

45) 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2014), <http://www.sasac.gov.cn/n1180/n12534878/n13979253/14010876.html>(accessed August 6, 2014).

46) 中国建筑材料集团有限公司, <http://www.cnbm.com.cn>(accessed August 7, 2014).

따라 경영진 임명권, 실적 감사 및 임금관리 권한을 가지게 된다.⁴⁷⁾ 초기 단계에서 시범 기업은 부사장, 회계 총책임자, 이사회 비서 임명권을 가지게 되며 사장 임명 시 이사회 및 전문위원회의 영향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사회는 독립적으로 해당 기업에 적합한 실적 감사 체계, 기업 발전 전략 지표를 수립하여 이에 근거한 경영진 실적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경영 상황 및 국내외 시장 상황에 따른 임금 지불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⁴⁸⁾ 중국에너지절약환경보호집단은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2010년 설립된 기업이다. 아직까지 자회사는 2개에 불과하나, 자회사에 설비 공정, 건설 운용을 위탁하여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등 경영 실적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952년 설립된 신홍제화집단은 각종 철강 제품, 차량 장비, 방직품, 가죽 제품, 고무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4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국자위는 향후 추가적으로 독립적인 기술검사팀을 파견할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므로 이에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면밀한 관리·감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중국 국유기업의 부정부패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의약집단총공사와 중국건축재료집단의 경우 혼합소유제와 이사회 제도를 동시에 도입하는 시범기업으로 선정되어 있어 이들 기업의 시범 시행 결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시범 시행 결과에 따라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을 위한 국자위의 기능 변화 및 역할 이양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47) *Ibid.*

48) *Ibid.*

4.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국유기업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개혁개방 이후 본격적인 국유기업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국유기업 개혁과정은 크게 1단계(1978~92년), 2단계(1993~2002년), 3단계(2003~12년), 4단계(2013년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단계별 국유기업 개혁 방향의 중점을 경영 자율권 및 이윤 추구, 현대적 기업제도 수립, 국유자산 및 기업 관리·감독, 혼합소유제 발전 적극 추진에 두었다. 이러한 개혁과정을 거쳐 현재 국유기업 수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전체 공업기업의 영업수입 및 이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영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유기업의 경영 효율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3년 양회를 통해 공식 출범한 중국 신지도부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경제 발전 방식의 전환 및 경제 구조조정 가속화에 두고 있으며, 금융 개혁, 재정·조세 개혁, 토지 개혁, 대외 개방과 함께 국유기업 개혁을 주요 개혁 과제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 개혁을 적극 추진하려는 배경에는 달라진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외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저성장 기조의 ‘뉴노멀(new normal)’에 진입하였으며 중국경제도 2012년 이후 7%대 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⁴⁹⁾ 또한 노동력, 토지 등 생산 요소의 양적 투입에 의존한 불균형적 성장방식에 의해 대내적으로 에너지 부족과 환경오염, 지역 및 계층 간 발전 격차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와 같은

49) 조현준(2013), p. 238.

환경 변화 속에 중국 경제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10%대의 성장률을 지속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 이 같은 인식을 기반으로 두고 중국 신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및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국유기업 개혁을 포함한 경제구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신정부는 제18기 3중전회와 2014년 양회에서 국유기업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중국 국유기업 개혁 추진의 중점 방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혼합소유제의 적극적인 추진이라고 할 수 있다. 국유자본, 집체자본, (민간) 비공유자본의 교차 지분 보유를 통한 혼합소유제를 발전시켜 국가자본과 민간자본의 상호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신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혼합소유제는 국유기업의 전면적인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독자적인 국유자본은 아니나 일정 제한된 범위에서만 민간자본 투자를 허용하는 형태로 국유기업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본력이 우수한 국유기업 중심의 공유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중국 신지도부가 제18기 3중전회에서 ‘공유제가 제반 소유제 공동 발전의 기본이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제도의 근본’임을 천명한 데서 분명히 드러난다.⁵⁰⁾ 따라서 향후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은 오히려 대대적인 민영화를 적절히 제한하면서 국유 부문의 효율성 및 국제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아직까지 혼합소유제 중심의 중국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방침이나 실행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실제 혼합소유제 추진의 시행 여부 및

50) 최필수, 문익준, 이한나(2013), p. 5.

정도는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이는 중국 신지도부가 신중하고 점진적인 방식에 의해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은 전면적인 국유기업 개혁 조치 단행에 우선하여 여러 가지 시범 방안과 지방정부 차원의 개혁을 시도해 보는 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2014년 들어 상술한 국유기업 개혁 시범 방안 이외에 지방 소재 국유기업들의 개혁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광둥성을 비롯한 20개 지방정부도 국유기업의 지분 매각 및 국유자산 증권화, 민간 투자 유치를 주요 골자로 한 국유기업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표 2-14. 중국 지방정부의 주요 국유기업 개혁 사례

일시	지방정부	주요 내용
2014.2.20.	광둥성 주하이	- 중국 최대 에어컨 생산업체인 거리전자(格力電子) 국유 지분의 49%를 공개 입찰, 전략적 투자자 유입
2014.3.18.	구이저우성	- 3년 내 구이저우성 산하 28개 국유기업 지분 매각 계획 - 마오타이(茅台) 그룹은 산하 사업 부문을 6~7개의 독립법인으로 분할 경영할 방침
2014.4.14.	안후이성	- 안후이성 국유기업들은 장치(江汽)그룹과 같이 상장 및 민간 자본을 전략적 투자자로 유치할 계획
2014.8.18.	광둥성을 비롯 20개 지방정부	- 광둥성은 '국유기업 개혁의 전면 심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 혼합소유제 기업 비중 제고, 자본구조 개선, 자산감독관리체제 개선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2015년까지 국유기업 개혁을 완료, 2017년까지 혼합소유제 기업 수의 비중을 70% 이상으로 제고, 2020년까지 성내 국유기업 자산 증권화 비율을 20%에서 60%로 확대할 계획) - 이밖에 상하이시, 충칭시, 쓰촨성, 헤이룽장성, 텐진시, 산둥성, 장시성, 허난성, 베이징시, 장쑤성, 후베이성, 후난성 등 20개의 지방정부가 혼합소유제 중심의 국유기업 개혁 방안을 발표

자료: KDB대우증권(2014, p. 10); 新华网(2014), http://jjckb.xinhuanet.com/2014-08/20/content_517600.htm (accessed October 10, 2014)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제3장 중국 국유기업의 기업경쟁력 분석

1. 선행 문헌
2. 경쟁력 분석 방법
3. 경쟁력 분석 결과
4. 소결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중국 국유기업의 지배구조 변화와 기업 경쟁력과의 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기업 성과를 생산성과 수익성이라는 기준으로 파악하고 주로 국유자산감독위원회(SASAC)가 출범한 2003년 이후를 중점으로 기업 경쟁력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A주에 상장된 기업들을 국유기업과 민영기업들의 생산성에 미치는 요인들과 지배구조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고 한다.

1. 선행 문헌

가. 지배구조 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1) 1단계(1978~1992년)

중국은 1980년대 중반에서 1993년까지 국유기업 경영도급제도⁵¹⁾, 청부경영책임제⁵²⁾를 추진하여 기업 관리자의 경영 자주권을 확대하였다. 1986년 12월 국무원은 ‘기업의 개혁,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공포하고 경영도급제도를 제안하였고, 이에 1987년 말 80% 이상의 국유기업에서 경영도급제도를 실행하였다. 그러나 왜곡된 가격체제와 세수체제의 영향으로 책임경영이 확립되기보다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즉, 이익은 기업에

51)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하여 대주주의 지나친 경영 참여를 견제하고 전문경영자에 의한 기업의 자주경영, 독립채산제 등을 통해서 수익 배분 및 경영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현대경영제도

52) 국유기업이 국가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관리,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정해진 이윤을 귀속하고 초과 이윤이 발생하면 이를 기업이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실험적인 제도

게 돌아가지만 손해는 국가나 은행이 책임이 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대체로 1단계 기간(1978~1992년)에 연구된 대부분의 논문들은 국유기업 개혁이 생산성의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즉 국유기업의 수익성과 생산성이 낮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Chen, Jefferson, Rawski, Wang and Yuxin(1988)은 장기인 1953년부터 1985년까지의 중국 산업의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노동(Labor)과 자본(Capital)을 재추정해서 콥-더글라스 함수에 대입해서 분석하는 Multifactor productivity Change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주의 계획경제시절에는 생산성이 정체되었지만 1978년 개혁개방이 실시된 이후인 1978~1983년 동안은 생산성이 증가했다고 결론지었다. 즉, 1957~1978년동안 총요소생산성이 평균 0.9% 증가한 반면에, 1979~1985년 동안에는 5.5%가 증가했음을 밝혔다.

Groves, Hong, McMillan and Naughton(1994)은 1980년부터 1989년까지의 4개성(쓰촨, 짱수, 지린, 산시)에 위치한 국유기업들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유기업 개혁으로 인해서 도입된 보너스가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결론지었다. 즉, 산업 개혁(the industrial reforms)으로 인해서 생긴 보너스들을 더 많이 안정된 계약인 고정계약에 투입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이렇게 향상된 생산성이 노동임금에 반영되고 이는 다시 기업 투자로 이어졌다고 추정하였다. 1980년부터 1989년까지 매년 평균적으로 4.5%의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직물, 화학, 건축자재, 기계, 전자 등의 5개 산업에서 1630개 정도의 표본 수를 가지고 분석하였는데, 전자 산업이 7.9%, 기계산업이 6.1%를 기록하면서 나머지

직물(2.5%), 화학(2.7%), 건축자재(3.4%) 산업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Li(1997)도 Groves et al.(1994)가 사용하였던 자료인 CASS(중국사회과학원)의 서베이 통계를 이용하여, 1980년부터 1989년까지의 769개 국유기업들을 분석하였다. 쟁수, 지린, 산시, 스촨 4개 성(省)의 채광업(mining), 벌목업(logging), 전력업(utilities), 제조업(manufacturing)을 대상으로 총요소생산성(TFP)을 분석하였다. 1980~89년 동안 총요소생산성(TFP)은 4.68% 성장했으며, 산출량(output) 증가의 73%를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27%는 요소 input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았다. 즉, Groves et al.(1994)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국유기업 개혁 기간에 상당한 생산성 증가가 있었다고 보았다.

Jefferson, Rawski and Zheng(1992)도 1980년부터 1988년까지의 국영기업과 향진기업들의 TFP를 분석한 결과, 향진기업의 생산성 증가율 더 높았다고 분석하였다. 즉, 국유기업의 수익성과 생산성이 향진기업보다 낮다는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다.

Jefferson, Rawski, Wang and Zheng(2000)은 1980년부터 1996년까지의 중국 산업의 생산성을 분석하였다. 기업을 전체적으로 국유기업, 향진기업을 포함한 집단기업, 나머지 기업들을 그동안 소홀히 다루었던 국내 민영기업(other domestic enterprises), 외자기업(foreign-invested enterprises), 주식보유기업(shareholding)의 총 다섯 가지 유형의 기업들로 분류하였다. 전체적인 산업과 각각의 소유제 형태에서도 생산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소유제 형태에서는 집단기업(COE)이 가장 큰 생산성 증가를 보여주었고, 국유기업(SOE)은 장기적으로 생산성 증가

를 보여주었지만 특히 1992년부터 1996년까지는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2) 2단계(1993~2002년)

국유기업의 2단계는 1993년 14기 3중전회에서 재산권을 분명히 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며, 정부와 기업의 기능을 분리하고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현대기업제도를 국유기업의 개혁 목표로 채택하면서 시작되었다. 1999년 15기 4중전회에서는 ‘국유기업은 규범화된 기업제도 개혁을 통해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재산권의 유동화와 국유자산의 재구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업 개혁을 진행하여 왔다. 국유기업을 주식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변모시키고 출자자의 소유권과 기업 법인의 재산권 관계를 효과적으로 분리시키려고 하였다.

지만수·이영(2003)은 1994년부터 1999년까지의 CASS 국유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유기업의 생산성을 비교하였다. 국유기업이 집체기업, 주식합작제, 기타 기업에 비하여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지배구조 개선, 연구개발, 신상품 개발 등의 지표들이 수익성과 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국유기업의 상대적으로 우월한 경영 성과는 진정한 생산성 향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우호적인 정책의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생산성이 높이거나 높은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향후 근본적인 국유기업의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Beirne, Liu, Sun(2013)는 1997-2003년 1,100개 기업의 survey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결론적으로 국유기업과 민영기

업의 결합된 형태가 가장 좋은 생산성을 보였음을 나타냈다. 따라서 소유구조의 변화(국영기업에서 민영기업으로의 개혁)가 생산성 향상을 가지고 올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반드시 민영화가 더 좋은 생산성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며, 민영자본을 국영기업에게 투자하는 소유구조 변화 형태가 국영기업 개혁에 가장 적절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3) 3단계(2003~10년)

2003년 국자위가 설립되면서 중앙과 지방, 정부 부처 간의 국유자산 소유자가 명확해졌다.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정상궤도에 진입했으나 경영자 권한이 불명확하고 주주권 다원화가 미진한 단계였다. 2003년 이후 지배구조 개혁의 초점은 주주권 다원화 추진, 이사회 제도와 경영자 스톡옵션 제도 개선으로 모아졌다.

Elliott and Zhou(2013)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78,000개의 샘플을 사용하여 중국 국영기업들의 생산성 증가를 증명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Conditional stochastic dominance approach 방법(non-parametric test of conditional SD)을 사용하였으며, 국제 기준에 노출된 수출기업들이 내수시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보다 생산성 증가가 뚜렷해졌다고 분석하였다. 즉, 중국정부가 연구개발, 수입 규제, 안정적인 대출 등을 통해서 국영기업 혜택을 줘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고 해석하였다. 특히,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높은 생산성의 증가 원인을 분식회계와 가공무역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외국기업들은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분식회계(creative accounting)를 사용하였고 많은 중간재를 해외로

부터 수입하면서 이익이 감소하였다. 둘째, 대부분의 민영기업들이 가공 무역에 집중하면서 낮은 총요소생산성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 지배구조 변화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1) 1단계(1978~92년)

국유기업의 수익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Woo et al.(1994)는 중국 국유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었던 이유가 과잉임금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1944~1988년 사이의 국유기업의 노동보수율이 17% 증가하여 부가가치의 48.8%를 직·간접 노동보수로 지급하였던 반면에 향진기업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노동보수율이 34%에 그치고 있다고 하였다.

2) 2단계(1993~02년)

Xu and Wang(1999)는 중국 상장기업의 1995년 자료를 분석하여 10대 주주의 지분에 의한 소유권 집중도 허핀달지수와 기업의 수익성 간에 양수(+)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또한, 법인주와 기업의 수익성 간에는 양수(+)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나, 국영주와 개인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동의 생산성은 국영주의 지분이 높을수록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냄으로써, 국영기업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白重恩·劉俏·陸洲·宋敏·張俊喜(2005)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상장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최대주주의 지분율과 Tobin's Q의 상관관계가 U형을 나타내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즉, 대주주의 지분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침탈의 유인이 감소

하기 때문에 소유기업의 이익이 대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olz(2002)은 국유기업이 비국유기업에 비해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고 도출하였다. 즉, 1993년~2000년 국유기업의 자산수익률이 2.7~4.8% 사이에서 변동하고 있는 반면, 비국유기업은 5.2~6.6% 사이에서 변동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판매수익 대비 수익의 비중도 국유기업이 2% 내외로 비국유기업의 3% 내외보다 낮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높은 법인세를 납부해 왔기 때문이며 계획경제 시기에 축적된 자본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높은 자본 집약도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국유기업 수익성의 하락 추세가 1998년을 정점으로 반전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유기업의 사유화가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으나, 국유기업 개혁의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만수·이영(2003)은 1994년부터 1999년까지의 CASS 국유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유기업의 수익성을 비교하였다. 국유기업이나 국유 지분이 포함된 기업이 집체기업이나 주식회사 소유기업에 비하여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출물시장 경쟁 정도, 이사회와 감사 존재 여부 등의 기업지배구조 지표, 신상품 개발, 연구개발부서 존재 여부 등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Kang and Kim(2012)은 1993~2002년 기업 자료를 사용하여 지배구조가 기업 실적을 향상시킨다고 분석하였다. 기업실적은 ① 토빈의 Q⁵³⁾ ② 총자산순이익률(ROA) ③ 초과가치(Excess value)라는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석하였다. 계량모형은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53) 기업의 시장가치를 기업 실물자본의 대체 비용으로 나눈 것. 설비 투자 동향이나 가치 평가에 이용

GMM 방법을 이용하여 회귀분석하였다. 주식 유형을 ① 중앙정부, 지방 정부, 국유 독자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거래가 불가능한 국가주 ② 정부가 지분 참여하고 있는 국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국유법인 주식으로 시장에서 거래 불가능한 법민주 ③ 내국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되고 있는 유통주(A주)으로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지배주주의 유형은 국가가 이윤보다는 고용 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가가 직접 소유한 형태보다 정부가 지분 참여하고 있는 법민주가 더 좋은 기업 실적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정부가 지분으로 참여하는 기관에 의해서 부분적인 이윤 극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점진적인 국유기업 개혁을 시사하고 있다.

강동수·이준엽(2006)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의 상장기업의 소유주 변화를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자와 직접적으로 상장기업을 소유하는 자의 특성을 구분하여 상장기업을 분류하였다. 이에 국유기업을 ① 중앙정부 소속 기업 ② 지방정부 소유기업 ③ 영리기업 ④ 비영리기업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앙정부 소속기업들에 비하여 지방정부 소유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상장 자회사에 대한 수익성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혼합지주회사에 비하여 순수지주회사의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혼합지주회사가 지회사를 침탈하기보다는 지원하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3) 3단계(2003~10년)

Yu(2013)는 2003~2010년 중국 기업 10,639개 자료를 분석하여 소유 구조와 기업 실적 간의 상관 관계가 U자형을 형성하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2005년과 2006년에 실시했던 지분분할개혁(The Split Share Structure Reform)에서 소유구조와 기업 실적 간 양수(+)의 상관 관계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2006년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국유 비중이 감소했지만, 일부 석유, 천연가스, 광물, 출판, 방송 등의 산업에서는 여전히 국유기업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유기업들이 금융, 자원 등의 정책 지원을 받는 데에 유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 생산성과 수익성의 기준

위에서 언급한 생산성과 수익성이라는 기준 중에서 중국 국유기업의 성과를 잘 보여주는 기준으로는 대체로 생산성이 수익성보다 선호되는 경향이다. Jefferson *et al.*(2000)는 시장 경쟁의 중요성과 제도적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경제전환과정에서는 장기적으로 수익성보다는 생산성이 기업의 성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지만수·이영(2003)도 중국기업의 수익성보다 생산성을 분석하는 것이 궁극적이고 장기적인 기업의 건전성을 대표할 수 있다고 보고, 생산함수 추정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추정을 실시하였다.

Bai *et al.* (1997)은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TFP 증가를 가져왔다고 분석했지만, 생산성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다.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시도하지 않았을 때에 높은 생산성이 자원 분배를 왜곡시켜서 낮은 수익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였

다. 즉, 높은 생산성과 낮은 수익성이라는 모순을 중국 국유기업들이 규모의 비경제(Declining returns to scales)과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낮은 수익성이 일어난 이유들로 국유기업 개혁 기간에 민영기업의 진입으로 인해서 상품, 노동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임금이 매출보다 높게 증가한 현상에 따른 자연스런 회계현상이라고 설명하였다.

2. 경쟁력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3단계(2003~10년)를 중심으로 2003년에 국자위가 설립된 이후의 국유기업의 기업 실적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가. 기초 통계

[표 3-1]은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에 관한 통계이다.⁵⁴⁾ 기초 통계치에서 파악한 국유기업의 수익성은 민영기업에 비해서 떨어지는 편이다. 2012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유기업의 전체 기업 수는 17,851개이며, 이익/자산 비율은 0.0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민영기업의 전체 기업 수는 189,289개이며 이익/자산 비율은 0.13으로, 국영기업에 비해서 높은 수익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익/매출액 구조를 살펴 보면 국유기업은 6.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54) 생산성은 2003년과 2005년에만 발표하였으며 나머지 연도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음. 또한 생산성 계산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찾을 수가 없었음.

민영기업은 7.1%를 기록하면서, 민영기업이 국유기업에 비해서 높은 이익/매출액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국유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

연도	기업수	매출액	생산성	총 자산	총 이익	이익/비용	이익/매출액	이익/자산
2003	34,280	5,280,412	87,095	9,451,979	383,620	7.3	7.3%	0.04
2004	35,597	6,942,699		10,970,825	545,310	8.4	7.9%	0.05
2005	27,477	8,312,185	144,954	11,762,961	651,975	8.4	7.8%	0.06
2006	24,961	9,794,669		13,515,335	848,546	9.4	8.7%	0.06
2007	20,680	11,849,950		15,818,787	1,079,519	9.9	9.1%	0.07
2008	21,313	14,095,959		18,881,137	906,359	6.7	6.4%	0.05
2009	20,510	14,454,431		21,574,201	928,703	6.7	6.4%	0.04
2010	20,253	18,359,117		24,775,986	1,473,765	8.4	8.0%	0.06
2011	17,052	21,786,452		28,167,387	1,645,757	7.7	7.6%	0.06
2012	17,851	22,872,967		31,209,437	1,517,599	6.5	6.6%	0.05

자료: 국가통계국(2004~13년 각 연호)에서 저자 정리.

표 3-2. 민영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

연도	기업 수	매출액	생산성	총 자산	총 이익	이익/비용	이익/매출액	이익/자산
2003	67,607	2,037,291	52,342	1,452,529	85,964	4.6	4.2%	0.06
2004	119,357	3,412,806		2,372,480	142,974		4.2%	0.06
2005	123,820	4,648,425	75,976	3,032,512	212,065	4.9	4.6%	0.07
2006	149,736	6,554,938		4,051,483	319,105	5.3	4.9%	0.08
2007	177,080	9,165,192		5,330,495	505,374	6.1	5.5%	0.09
2008	245,850	13,257,115		7,587,959	830,206	6.9	6.3%	0.11
2009	256,031	15,775,579		9,117,560	967,769	6.7	6.1%	0.11
2010	273,259	20,822,382		11,686,783	1,510,250	7.9	7.3%	0.13
2011	180,612	24,660,974		12,774,986	1,815,552	8.0	7.4%	0.14
2012	189,289	28,533,177		15,254,813	2,019,190	7.7	7.1%	0.13

자료: 국가통계국(2004~13년 각 연호)에서 저자 정리.

나. 총요소생산성 분석 방법

1) 분석 모형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자본과 노동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 생산함수를 가정해 본다. [식 3-1]에서와 같이 K는 물적자본, L은 인적자본을 의미한다.

$$Y = f(K, L) \quad \text{[식 3-1]}$$

구체적으로 [식 3-2]와 같이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CRS)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콥-더글라스(Cobb-Douglas) 생산함수를 설정하였다.

$$Y_{i,t} = K_{i,t}^{\alpha_K} L_{i,t}^{\alpha_L} \quad \text{[식 3-2]}$$

단 i 는 기업, t 는 연도를 의미하며, 상장기업들을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으로 분리하여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을 추정하였다. [식 3-3]의 양측에 모두 \ln 을 대입하면 [식 3-3]이 도출된다. 최종적으로 식 [3-3]을 이용하여 물적자본(K)과 인적자본(L)이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ln Y_{i,t} = \alpha_K \ln K_{i,t} + \alpha_L \ln L_{i,t} + \epsilon \quad \text{[식 3-3]}$$

2) 분석 자료

본 연구는 중국 금융 및 거시경제 지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Wind에서 중국 A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기업들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Wind에서 제공하고 있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업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지속적으로 상장된 기업만을 분석하였으며 새롭게 상장된 기업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분석에 이용한 상장기업은 총 571개이며, 이 중에서 중국 국유기업이 300개, 지방 국유기업이 57개, 민영기업이 213개를 차지하고 있다.⁵⁵⁾ 571개 상장기업의 10년 자료이기 때문에, 총 관측치는 5,710개가 된다. 그러나, 기업마다 상장된 연도가 다르고 일부 통계자료의 부정확성 때문에 실제 분석된 자료는 조금 차이가 난다.

[표 3-3]와 [표 3-4]은 A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생산성과 수익성에 관한 기초 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매출액, 순이익, 영업이익의 단위는 10,000위안이다. A주에 상장되어 있는 국유기업들의 규모는 민영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큰 편이다. 2013년을 기준으로 국유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이나 순이익이 민영기업들보다 약 5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순이익/매출액도 2013년을 기준으로 0.10으로 동일했으며, 국유기업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에 민영기업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영업이익/매출액도 국유기업이 0.13로 민영기업의 0.12보다 조금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앞에서 서술한 국가통계국에서 보여준 전체 통계와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아마도 A주에 상장되어 있는 국유기업들이 우량기업들을 중심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유기업들은 순이익/매출

55) 기업 선택에 관한 설명은 제4장을 참고하기 바람.

액이나 영업이익/매출액이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에 민영기업들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에는 거의 국유기업과 민영기업들이 동일해졌다.

표 3-3. A주 상장 국유기업의 기초 통계량

연도	매출액	순이익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매출액
2004	998,691	118,635	168,567	0.12	0.17
2005	1,273,858	142,449	201,236	0.11	0.16
2006	1,629,041	170,705	234,055	0.10	0.14
2007	2,029,668	250,278	339,647	0.12	0.17
2008	2,407,767	221,253	241,594	0.09	0.10
2009	2,508,798	269,604	334,932	0.11	0.13
2010	3,425,821	375,294	465,176	0.11	0.14
2011	4,193,607	425,847	529,937	0.10	0.13
2012	4,582,212	444,474	547,250	0.10	0.12
2013	4,969,434	509,075	622,379	0.10	0.13

자료: Wind A의 자료를 이용해서 저자 정리.

표 3-4. A주 상장 민영기업의 기초 통계량

연도	매출액	순이익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매출액
2004	161,950	9,470	12,726	0.06	0.08
2005	181,122	8,890	12,059	0.05	0.07
2006	217,470	16,087	20,299	0.07	0.09
2007	277,536	28,661	35,004	0.10	0.13
2008	339,805	30,266	35,669	0.09	0.10
2009	394,995	43,088	50,496	0.11	0.13
2010	554,486	60,404	70,418	0.11	0.13
2011	706,441	72,970	85,497	0.10	0.12
2012	779,023	76,288	90,537	0.10	0.12
2013	894,532	90,103	107,602	0.10	0.12

자료: Wind A의 자료를 이용해서 저자 정리.

표 3-5. 분석 자료의 통계적 특성

변수명	설명	관측치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Ln Y	총매출액	5,448	12.48	1.78	3.33	19.47
Ln K	총고정자산	5,211	7.99	1.57	2.19	13.22
Ln L	종업원 수	5,436	11.21	1.99	3.04	18.01

자료: Wind A의 자료를 이용해서 저자 정리. ⁵⁶⁾

[식 3-3]을 추정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국 A주 상장 기업들의 패널자료들을 구축하였고, 변수의 통계적 특성을 요약하였다. 총매출액과 총고정자산의 단위는 10,000위안이며, 종업원 수의 단위는 명이다.

다. 수익성 분석 방법

1) 분석 모형

수익성 모형은 Kang and Kim(2012)의 모형과 Yu(2013)의 모형을 응용하였다. [식 3-4]에서 수익성 지표인 P는 우선 총자산영업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ROE), 총자산이익률(ROA)를 사용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지배구조와 관련된 변수들로는 최대 주주의 지분율, 10대 주주의 지분율, 중앙과 지방 국유자산감독위원회(SASAC)의 통제변수를 포함시켰다. State는 중앙과 지방 국유자산감독위원회(SASAC)의 Dummy 변수를 사용하였고, Control은 최대 주주와 10대 주주의 지분율을 사용하였다.

$$P_{i,t} = \alpha_0 + \tau_1 State_{i,t} + \gamma_2 Control_{i,t} + \epsilon_{i,t} \quad [\text{식 3-4}]$$

56) 관측치수가 변수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일부 연도의 자료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2) 분석 자료

[식 3-4]을 추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를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순이익(Net Profit), 영업이익(Operating Income), 희석된 자기자본이익률(Dilluted ROE), 총자산 이익률(ROA)을 사용하였다. 설명변수로는 최대주주 지분율, 10대주주 지분율, 국유자산감독위원회(SASAC) 통제 여부를 사용하였다.

최대 주주의 지분율을 분석해 보자. 2013년 기준으로 국유기업은 평균 41.76%이며 민영기업은 33.87%를 보이면서 국유기업이 민영기업보다 높은 지분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 A주 상장기업들의 평균 최대 주주의 지분율은 38.81%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반면에 10대 주주의 지분율은 2013년에 국유기업이 61.01%, 민영기업이 63.32%를 기록하면서 평균 61.88%를 보이고 있다.

표 3-6. 통계의 출처와 정리

변수명	설명	관측치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종속변수						
Ln P	순이익(Net Profit)	5,012	9.93	1.93	1.99	17.08
Ln I	영업이익(Operating Income)	4,817	10.15	1.93	0.72	17.33
Dilluted ROE	희석된 자기자본이익률	5,164	4.97	149.08	-8,257.4	585.83
ROA	총자산 이익률	5,418	5.90	9.46	-156.13	197.08
설명변수						
Share_1	최대 주주 지분율					
Share_10	10대 주주 지분율	4,525	0.60	0.16	0.05	1.00
중앙 SASAC	중앙 SASAC 통제 여부	569	0.43	0.49	0	1
지방 SASAC	지방 SASAC 통제 여부	569	0.06	0.24	0	1

자료: 저자 정리.

3. 경쟁력 분석 결과

가. 총요소생산성 분석 결과

[표 3-7]은 기업의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이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 대상을 전체 상장기업, 중앙 국유기업, 지방 국유기업, 민영기업으로 분리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를 살펴 보면, 전체 상장기업의 생산성에 인적자본과 물적자본 모두 양(+)의 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유기업이나 민영기업을 분리해서 분석하였을 때에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단지 차이가 나는 점은 바로 인적자본은 민영기업이 국유기업보다 더 큰 값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물적자본은 국유기업이 민영기업보다 더 큰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민영기업의 인적자본이 국유기업보다 생산성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반면에 국유기업의 물적자본이 민영기업보다 생산성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7. Panel 모형 분석 결과

	전체 상장기업	국유기업		국유기업	민영기업
		중앙 국유	지방 국유		
lnL	0.440*** (7.85)	0.397*** (7.07)	0.328** (2.75)	0.382*** (7.51)	0.499*** (4.73)
lnK	0.452*** (10.76)	0.518*** (11.57)	0.748*** (7.31)	0.552*** (13.21)	0.359*** (5.11)
상수항	3.892*** (12.64)	3.465*** (8.19)	1.406 (1.29)	3.201*** (7.96)	4.425*** (10.06)
R2	0.5145	0.5647	0.5925	0.5662	0.4707
관측 수	5204	2805	515	3320	1890

주: 1. 괄호 안의 숫자는 t값을 의미함.

2. (***),(**),(*)은 각기 0.1%, 1%,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저자 작성.

나. 수익성 분석 결과

[표 3-8]은 주주의 지분율과 국유자산감독위원회(SASAC) 통제 여부가 수익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2013년 자료만 가지고 OLS로 분석해 보았다. 모형 (1)은 종속변수로 순이익(Profit)을 사용하였고, 모형 (2)은 종속변수로 영업이익(Operating Income)을 사용하였다.⁵⁷⁾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최대주주 지분율이 양(+)의 계수를 가지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대 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기업들은 1대 주주의 지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주주의 지분율은 모두 합한 변수의 경우에도 양(+)의 계수가 나타났으나 절대값이 작고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중앙 국유자산감독위원회(SASAC)의 통제 변수는 음(-)의 계수가 나타나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 국유자산감독위원회(SASAC)의 통제와 기업의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은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향후 중앙 국유기업들이 국유자산감독위원회(SASAC)의 통제를 벗어나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 국유자산감독위원회(SASAC)는 양(+)의 계수를 가지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분석된 중국 기업들 중에서 지방 국유자산감독위원회(SASAC)의 통제를 받는 기업들이 37개로 비교적 표본 수가 적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57) 희석된 자기자본이익률(Dilluted ROE), 총자산이익률(ROA)도 분석을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제외시켰음.

표 3-8. OLS 모형 분석 결과(2013년 기준)

구 분	전체 상장기업	
	(1) 순이익 (Profit)	(2) 영업이익 (Operating Income)
최대주주 지분율	2,721*** (5,23)	2,897*** (5,45)
10대 주주 지분율	0,0740 (0,77)	0,0601 (0,63)
중앙 SASAC 통제 여부	-0,747*** (-4,26)	-0,561** (-3,10)
지방 SASAC 통제 여부	0,321 (0,94)	0,395 (1,15)
상수항	9,684*** (44,73)	9,807*** (44,37)
R2	0,0805	0,0771
관측 수	526	488

주: 1. 괄호 안의 숫자는 t값을 의미함.

2. (***),(**),(*)은 각각 0.1%, 1%,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저자 작성.

[표 3-9]은 주주의 지분율과 국유자산감독위원회(SASAC) 통제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2004년~2013년 Panel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보았다. 종속변수로는 순이익(Net Profit), 영업이익(Operating Income), 희석된 자기자본이익률(Dilluted ROE), 총자산이익률(ROA)을 사용하였다. 국유자산감독위원회 Dummy가 연도별로 큰 변화가 없어서 Fixed effect 모형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다중공선성(Collinearity)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자기상관과 이분산성의 해소를 위해서 Feasible GLS 방식을 사용하였다. 네가지 다른 종속변수를 사용한 (1)~(4)식의 결과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식의 순이익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최대주주와 10대 주주의 지분율이 양(+)의 계수를 가지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앙 국유자산감독위원회(SASAC)의 통제 변수는 음(-)의 계수가 나

타나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방 국유자산감독위원회(SASAC)의 통제변수는 (1), (2)식에서는 양(+)의 계수가, (3),(4)식에서는 음(-)의 계수가 나타나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 3-9]와 마찬가지로 주주의 지분율이 높고 국유자산감독위원회의 통제가 약할수록, 수익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9. Panel 모형 분석 결과(2013년 기준)

구 분	전체 상장기업			
	(1) 순이익 (Profit)	(2) 영업이익 (Operating Income)	(3) 자기자본이익 률(ROE)	(4) 총자산 이익률(ROA)
최대주주 지분율	0.927*** (7.78)	1.083*** (9.04)	4.838*** (8.10)	2.213*** (5.88)
10대 주주 지분율	2.882*** (26.42)	2.736*** (24.91)	8.102*** (14.46)	5.576*** (17.70)
중앙 SASAC 통제 여부	-0.517*** (-15.41)	-0.472*** (-14.16)	-4.229*** (-25.53)	-3.100*** (-34.38)
지방 SASAC 통제 여부	0.512*** (10.66)	0.524*** (10.33)	-2.143*** (-7.08)	-1.273*** (-7.33)
상수항	8.034*** (130.64)	8.244*** (135.39)	6.250*** (21.86)	3.258*** (20.00)
Wald	1678.33	1051.38	1895.04	2135.99
관측 수	4132	3930	4112	4132

주: 1. 괄호 안의 숫자는 t값을 의미함.

2. (***),(**),(*)은 각기 0.1%, 1%,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저자 작성.

4. 소결 및 시사점

가. 주요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중국 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 성과 간의 관계를 생산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생산성은 매출액을 변수로, 수익성은 순이익, 영업이익, 자기자본이익률, 총자산이익률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주요한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성 측면에서는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 모두 양(+)의 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민영기업의 인적자본이 국유기업보다 생산성에 더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반면에 국유기업의 물적자본은 민영기업보다 생산성에 더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익성 측면에서는 최대주주와 10대 주주의 지분율이 양(+)의 계수를 가지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앙 국유자산감독위원회(SASAC)는 음(-)의 계수로 나타나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A주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주주의 지분율이 높고 국유자산 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지 않을수록, 수익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시사점

첫째, 생산성과 관련된 실증 분석은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차이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민영기업의 인적자본이 국유기업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향후에는 자본에 투자하여 자본이 생산성에 더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 것이다. 반면에 국유기업의 물적자본은 민영기업보다 생

산성에 더 크게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적자본의 효율성에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중국기업의 개혁이 독립적인 이사회 도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인적자본 쇄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위의 실증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국자위의 통제를 벗어나서 지분 통제로 가려는, 현재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 방향은 옳다고 할 수 있다. 즉 제3장의 실증 분석 결과는 현재 중국 기업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단,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결과에 의지한다면 향후 최대 주주의 지분율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국자위 통제체제가 자본통제 위주로 전환된다면 그 비중은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대형화와 글로벌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사업 다각화에 대해서 엄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향후 중국 국유기업의 대형화와 최대 주주 지분율이 상승될 가능성 속에서 다양한 사업 다각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 중국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 분석

1. 중국 국유기업 사업 다각화의 배경
2. 사업 다각화 현황
3. 사업 다각화 성과 분석
4. 소결



본 장에서는 중국의 국유기업이 고유 업종에서 벗어나 사업 다각화를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또한 국유기업들이 얼마나 본 업종을 벗어난 이윤 추구 행위를 하고 있는지, 다각화된 업종에서 제대로 이윤이 창출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국유기업의 현황을 비교하기 위한 참고 집단으로서 민영기업도 아울러 분석된다.

이 장의 연구는 중국 국유기업이 이윤 추구의 단위로 진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진화의 과정이 사업 다각화가 될 것인지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테면, 철강 회사인 BaoSteel(上海寶鋼)이 국유기업에 대한 업종 제약이 완화된 후에도 현재와 같은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인 셈이다.

이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중국 국유기업 사업 다각화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일반론과 현황을 살펴본다. 이어 사업 다각화의 현황을 매출액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이 다각화가 성공적인 이윤 창출로 이어지고 있는지 영업이윤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상을 정리하면서 중국의 국유기업 다각화 관련 전망을 제시한다.

1. 중국 국유기업 사업 다각화의 배경

가. 국유기업 사업 다각화 일반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국유기업은 비관련 영역으로 사업 다각화를 해서는 안 된다. 국유기업의 원칙적인 존재 목적은 이윤 창출이 아니라 자연 독점 혹은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충실히 공급하는 것이

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전은 전력 공급이라는 사업에 충실해야지 백화점 설립을 추진하면 곤란하다. 또한 수자원공사라면 물을 관리하고 공급하는 사업에 충실해야지 놀이공원 설립을 하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국유기업은 종종 비관련 부문으로 다각화를 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귀결되는데, 첫째는 국유기업이 이윤 창출을 추구하기 때문이며, 둘째는 ‘국유’의 성격이 희박해지기 때문이다. 첫 번째 예는 일본의 JR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JR은 철도 운송을 위해 설립된 국유기업이었으나 재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역 인근의 부동산을 개발하고 도소매 매장을 설립했다. 둘째의 예는 포스코를 들 수 있는데, 본래 국유기업이었던 포항제철은 민영화 개혁을 거치면서 철강 업종 외에 건설·자원 개발·종합상사 등의 부문으로 업종을 확대했다.

논의를 국유기업에 국한시키지 않는다면 기업의 사업 다각화에 대해 방대한 선행이론이 존재하나, 본 연구는 그것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어 다루지 않는다.

나. 중국 국유기업 다각화 현상

중국 국유기업도 마찬가지로의 이유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한다. 다만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은 다양한 유형의 국유기업을 가지고 있으므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한다. 유형 분류를 위해 2013년 11월 삼중전회(三中全會)의 내용을 참고해보자. 삼중전회는 국유 부문의 개혁을 언급하면서 국유자본의 투자 영역을 ‘국가전략’·‘안전’·‘국민경제 핵심산업’으로 구분했다.⁵⁸⁾ 이 중 ‘국가 전략’과 ‘안전’을 ‘자연독점⁵⁹⁾’ 분야로, ‘국민경제 핵심산업’을 ‘비독점⁶⁰⁾’ 분야로 나누어 보자.

‘자연독점’에 속하는 기업은 공공재를 공급하는 순수한 국유기업이다. 전력 인프라, 통신, 철도 등의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 속하는 기업들의 다각화 현황은 매우 다양하다. State Grid(國家電網)과 같이 전력망 구축이라는 본래 업종에 충실한 기업이 있는 반면, Sinopec(中國石化)처럼 석유 개발이라는 본래 업종에서 주유소와 편의점으로 관련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 최근 국유 에너지·전력(電力) 기업인 ‘베이징푸티엔신에너지(北京普天新能源)’나 ‘중국시덴그룹(中國西電集團)’은 민영기업이 장악해온 태양광 업계에 진출하기 위해 기존 업체의 인수 합병을 시도하고 있다. 즉, 자연독점 기업이라고 해서 사업 다각화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자연독점 국유기업의 비관련 분야로의 다각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국유/비국유를 막론하고 부동산 개발 회사 설립 붐이 일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는 이에 대한 견제 조치를 취한 바 있다⁵⁸⁾. 이러한 조치가 별 효과가 없었으나, 자연독점 분야 기업들이 다른 기업에 비해 다각화 관련 제약을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비독점’ 분야의 국유기업들은 더 광범위한 다각화 현상을 보인다. 곡물수매 부문을 기반으로 한 쑹량(中糧)그룹(COFCO)은 농식품, 백화점,

58) 최필수 외(2013), 「중국 제18기 삼중전회의 주요 내용과 향후 경제 개혁의 방향」, 『오늘의 세계경제』; 제13-23호, pp. 4~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9) 강한 외부성(externality)로 인해 자연적인 독점(natural monopoly)이 발생하는 업종.

60) 경제학에서 이렇게 명명하지는 않지만, 중국 국유기업에 있어 범주 구분의 편의를 위해 이와 같이 개념화한다. 즉 ‘자연독점’ 분야와 달리 국유 부문의 독점이 보장될 필요가 없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

61) 최필수(2010. 4. 22), 「중국 국유기업 문제 없나」. 『파이낸셜 뉴스』.

부동산 개발 등으로 업종을 넓히며 전형적인 다각화 재벌 그룹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쑹량그룹은 중국 정부가 다각화된 재벌 그룹의 형식을 체제 내에서 갖추도록 의도적으로 만든 실험체에 가까우며, 총 8개의 상장 회사를 거느린 초대형 기업집단이다. 따라서 2014년 7월에 발표된 국유기업 개혁 시범 조치에서도 쑹량은 국가개발투자공사(SDIC)와 함께 국유자본투자공사 시범기업으로 선정됐다⁶²⁾. 이밖에도 국유 철강 기업인 Baosteel(上海寶鋼)은 비철금속 분야는 물론 물류, 금융, 보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해운 국유기업인 하이항(海航)그룹은 전자상거래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물론 ‘자연독점’과 ‘비독점’이라는 구분은 유동적이다. 가령 Sinopec이 종사하는 석유화학 분야는 국가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 ‘자연독점’일 수도 있지만, 석유화학 상품 유통과 주유소 체인이라는 점에서는 ‘비독점’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석유 부문의 업·다운 스트림 부문에 민영 자본투자를 유도하여 국유 독점 구도를 깨뜨리려는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⁶³⁾. 즉, 원유 수입권을 민간에게 확대하고, 주유소 설립도 더 자유화한다는 것이다. 핵심 정유 및 화학 제품 생산은 초거대 설비를 갖춰야만 가능하므로 민영화가 쉽게 나타날 수 없겠지만, 할 수 있는 부분부터 경쟁 요소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석유화학과 철강을 국유기업 중심으로 육성했다가 모두 민영화한 바 있다. 중국도 ‘국민경제 핵심산업’에 속하는 더 많은 기업들이 점차 시장경쟁체제로 편입될 것이

62) 문익준(2014), 「중국 국유기업 개혁을 위한 네가지 시범 방안, 아시아 태평양실·구미 유라시아실 공동 동향 세미나(2014.7.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63) 李毅, 施智染(2014).

다. 그렇다면 더 많은 다각화 현상이 벌어질 개연성이 매우 크다.

특히 2013년 3중전회에서 국유 부문 개혁과 관련하여 국유기업의 다각화를 내다보게 하는 방침이 대거 발표됐다. 첫째, ‘국유·집체·비공유 사이의 교차 지분 보유를 통한 혼합소유제 허용’이다. 이에 따라 국유기업은 알짜 민간기업의 지분을 더 적은 제약으로 취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M&A를 통한 다각화가 나타날 개연성을 높여준다. 둘째, ‘국유자본 운영공사 설립’. 국자위(SASAC)를 대신할 새로운 국유기업 컨트론타워의 설립이다. 이 컨트론타워가 자본의 운영 실적을 강조하고 운영 부문에 대한 제약을 줄임에 따라 국유기업의 영역 확장이 예상된다. 즉, 할당된 업종에 대한 제약이 줄어들는 대신 이윤 창출에 대한 제약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 역시 다각화로 이어지는 요소이다. 셋째, ‘조건에 맞는 국유기업을 국유자본투자공사로 개조’한다는 것이다. 개별 국유기업이 자본투자공사의 형태로 자본을 제약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되면 역시 국유기업의 영역 확장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독점’과 ‘비독점’을 망라하여 나타날 것이다.

이상으로 중국 국유 부문의 다각화 현상을 간략히 개괄하고 그것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를 서술했다. 2절과 3절에서는 국유 부문의 다각화 현상을 좀 더 체계적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2. 사업 다각화 현황

가. 데이터 소스와 성격

중국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WIND의 중국 상장기업 데이터를 사용했다. 먼저 소유구조별 기업 명단 확보를 위해서 관련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 명단을 활용했다. WIND는 상장기업을 다양한 개념으로 유형화하거나, 그 개념별로 지수(Index)를 발표하고 있는데, 거기에 게재된 기업 명단을 이용한 것이다. 이를 정리한 것이 [표 4-1]이다.

표 4-1. 분석 대상 기업 데이터의 소스

Concepts by WIND	샘플 수	제외 대상	분석 대상
SSE Central SOEs 50	50	중복된 기업들, 은행 15개, 보험사 3개, 증권사 11개, 부적합 데이터(600490鹏 欣资源)	SOE 334
SSE Central State-owned Enterprises Dividend Index	30		
SSE Central State-owned Enterprises Dividend Total Return Index	30		
SZSE Central SOE	50		
Central Government-owned Enterprises	279		
SSE State-owned 100	100		
SSE State-owned Enterprises Dividend Index	30		
SSE State-owned Enterprises Dividend Total Return Index	30		
SSE Local State-owned 50	50		
SSE Private-owned 50	50		
SSE Private-owned Enterprises Dividend Index	30		
SSE Private-owned Enterprises Dividend Total Return Index	30		
SZSE Non-SOE Index	100		
CNI Non-SOE Index	180		

자료: WIND를 이용하여 저자 정리.

먼저 국유와 민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다양한 콘셉트를 망라했다. 여기엔 ‘상하이 증권거래소 50대 중앙국유 기업(SSE Central SOEs 50)’이라든가, ‘선전 증권거래소 비국유기업 인덱스(SZSE Non-SOE Index)’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국유 9개, 민영 5개의 콘셉트를 확보했다. 이어 각 콘셉트가 보유한 샘플 중 중복되는 기업들을 제외시켰다. 그리고 사업 다각화에 필요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은행·보험사·증권사 샘플 및 부적합한 데이터를 신고한 1개의 기업을 제외시켰다. 최종적으로 국유 기업(SOE) 334개, 민영기업(POE) 208개의 총 542개의 샘플을 확보했다.

샘플들의 사업 다각화 현황을 관찰하기 위해 역시 WIND에서 제공하는 최근 10년(2004~2013년) 부문별 매출액 현황을 반기별로 정리했다. 그러나 분석 결과, 2005년과 2006년까지 사이에 심각한 데이터의 격절이 나타나 최종적으로 2006년부터 2013년 8년간의 반기별 데이터 16개의 시계열을 사용했다. [표 4-2]에 대표적인 샘플인 상하이자동차그룹(上汽集團, 600104)이 나타나 있다.

표 4-2. 데이터 샘플: 상하이자동차의 부문별 매출액 비중

(단위: %)

업종 \ 일자	13 Dec	13 Jun	12 Dec	12 Jun	11 Dec	11 Jun	10 Dec	10 Jun	09 Dec	09 Jun	08 Dec	08 Jun	07 Dec	07 Jun
완성차	76.8	77.5	78.1	109.8	79.0	93.7	89.3	90.7	82.7	93.8	80.6	80.8	85.1	88.5
차량 부품	19.2	18.5	17.0	23.0	16.0	9.9	9.1	8.5	15.1	6.9	17.4	16.5	14.1	10.5
노무 및 기타	2.4	2.4	2.6		0.9	1.7		2.0		3.4		4.3		2.8
무역	1.6	1.6	2.3		2.5									
금융	0.4	0.5	0.5											
무역 및 기타				7.7										

자료: WIND를 이용하여 저자 정리.

나. 사업 다각화 현황

1) 집중도 지수(DF) 추이

한 기업의 다각화 현황을 수치로 표현하기 위해 산업 독점도를 측정하는 허핀달 지수를 응용하여 다음과 같은 집중도 지수 - Degree of Focus - DF를 만들었다.

$$DF = \sum_{i=1}^N \left(\left(\frac{Sales_i}{Total\ Sales} \right) \times 10000 \right)^2 / 1000000$$

허핀달 지수와 달리 100이 아니라 10000을 곱한 이유는 많은 기업의 부문별 매출액이 0.1% 미만인 경우가 많아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어떤 한 산업의 허핀달 지수는 시장 점유율 1% 미만의 기업을 자승 과정에서 과소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한 기업의 집중도를 측정하는 DF에서는 매출액의 지극히 작은 비중만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그 기업이 해당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그에 따른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어떤 부문이 시작 단계라면 작은 비중에서부터 출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단, 여기까지만 하면 숫자가 너무 커져서 표기와 인식이 불편하므로 1,000,000으로 나눠주었다.

위 정의에 따르면 어떤 기업이 오로지 한 업종만을 영위하고 있을 때 DF 값은 100을 가지게 된다. 만약 1/10의 비중을 가진 10개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면 DF 값은 10이 된다.

표 4-3. 소유 유형별 DF 추이

	06 Jun	06 Dec	07 Jun	07 Dec	08 Jun	08 Dec	09 Jun	09 Dec	10 Jun	10 Dec	11 Jun	11 Dec	12 Jun	12 Dec	13 Jun	13 Dec
SOE	69,8	69,5	66,6	65,2	65,0	64,7	62,4	63,3	61,3	61,7	61,1	60,9	60,3	60,6	60,7	60,9
POE	63,3	64,6	62,5	60,6	59,5	60,2	60,3	58,4	59,3	58,9	58,5	60,4	60,3	58,9	59,9	58,9

자료: WIND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표 4-3]에 중국 소유 유형별 *DF* 값의 추이가 나타나 있다. 이를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팩트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국유기업(SOE)과 민영기업(POE) 모두 *DF* 값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즉, 소유 유형을 막론하고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SOE의 값이 POE보다 일관되게 높다. 즉, 민영기업이 국유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다각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국유 부문이 정부의 통제 등으로 인해 사업 다각화의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SOE와 POE 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즉, 국유기업이 빠른 속도로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영기업과의 차별성이 갈수록 적어진다는 것이다.

2) 비관련 다각화 여부

다각화는 관련 부문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비관련 부문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같은 다각화라 할지라도 관련 부문과 비관련 부문은 매우 다르다. 가령 철강기업이 철광석 거래 자체를 영업화하거나(수직 다각화), 비철금속 분야로 업종을 확대하는 것(수평 다각화)은 모두 관련 다각화로서 기존 업종의 연장선 상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나 철강기업이 부동산이나 금융업에 손을 댄다면 이는 비관련 다각화로서 이른바 문어발식 확

장이다.

중국 기업들이 어떤 유형의 다각화를 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WIND 부문별 매출액에 나타난 업종을 관련(related)과 비관련(unrelated)으로 구분했다. 먼저 이에 따른 모든 항목을 일일이 확인하는 정성적인 방법으로 관련 및 비관련 부문의 개수를 헤아렸다. 가령, 상하이 자동차의 부문별 매출액을 나타낸 [표 4-2]에서 ‘완성차’·‘차량 부품’·‘노무 및 기타’는 ‘관련’으로, ‘무역’ 및 ‘금융’은 ‘비관련’으로 구분했다.

표 4-4. 기업 유형별 관련/비관련 다각화 분야 개수

기업 유형	샘플	관련 다각화 분야 개수 평균	비관련 다각화 분야 개수 평균
SOE	334	4.19	1.19
POE	208	4.01	1.75

자료: WIND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표 4-4]에 나타난 팩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유/민영 모두 관련 다각화 분야를 비관련 분야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다. 둘째, 국유기업은 관련 다각화 분야를 약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 민영기업은 비관련 다각화 분야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

표 4-5. 기업 유형별 관련/비관련 다각화 매출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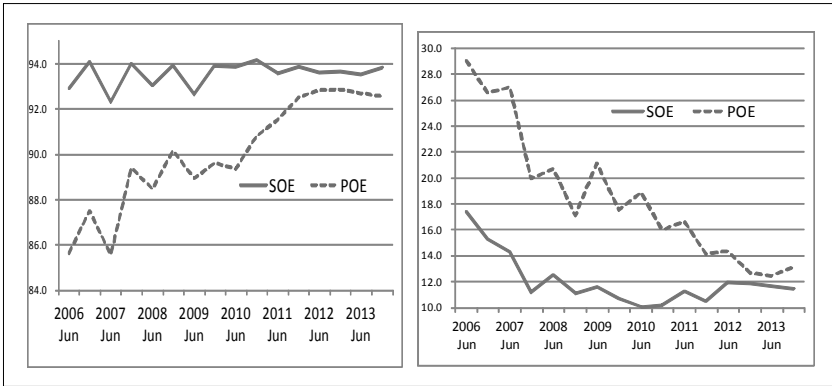
구분		06	06	07	07	08	08	09	09	10	10	11	11	12	12	13	13
		Jun	Dec	Jun	Dec	Jun	Dec	Jun	Dec	Jun	Dec	Jun	Dec	Jun	Dec	Jun	Dec
관련	SOE	92.9	94.1	92.3	94.0	93.0	93.9	92.7	93.9	93.9	94.2	93.6	93.9	93.6	93.7	93.5	93.8
	POE	85.6	87.5	85.5	89.4	88.4	90.1	88.9	89.6	89.3	90.8	91.5	92.5	92.8	92.9	92.7	92.6
비관련	SOE	17.4	15.2	14.3	11.2	12.5	11.1	11.6	10.6	10.1	10.2	11.2	10.5	12.0	11.9	11.7	11.4
	POE	29.0	26.5	27.0	19.9	20.7	17.1	21.1	17.5	18.9	16.0	16.6	14.1	14.3	12.7	12.5	13.0

주: 내부 상쇄 항목을 빼고 계산했으므로 합계가 100을 넘을 수 있음

자료: WIND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이러한 팩트는 부문별 매출액 비중을 시간 추이에 따라 계산한 [표 4-5]에서도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국유기업의 관련 다각화 비중은 거의 변함이 없는 반면 비관련 다각화의 비중은 11~12%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다. 민영기업은 관련 다각화의 비중이 높아지다가 최근 몇 년 간 92% 수준을 지키고 있으며, 비관련 다각화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그림 4-1 참조).

그림 4-1. 관련(左) 및 비관련(右) 다각화 비중 추이



자료: [표 4-5]를 근거로 작성.

비관련 다각화 여부와 관련하여 이상을 종합하자면, 먼저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모두 관련 다각화의 비중을 높이고 비관련 다각화의 비중을 줄여왔다는 큰 추세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특별한 비중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 현재 상태로 수렴·안정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한편 민영기업의 비관련 부문 비중이 월등히 높음은 [표 4-4] 및 [표 4-5]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3. 사업 다각화 성과 분석

한편 다각화가 이윤 창출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같은 기간에 나타난 부문별 영업이익(Operating Income)을 분석했다. 다음 [표 4-6]은 어떤 기업의 영업이익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비중을 나타내는 샘플이다. 이 기업은 ‘거저우바(葛洲壩, 600068)’라는 댐 건설 및 수력 발전 전문 국유기업인데 ‘고속도로’ 부문에서 2009년과 2010년에 적자가 난 것을 비롯하여 몇몇 부문의 적자가 기록돼있다. 2013년 현재 이 기업의 각 부문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9.6%에서 56.0%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6. 데이터 샘플: 거저우바(葛洲壩)의 부문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단위: %)

일자 업종	13 Dec	13 Jun	12 Dec	12 Jun	11 Dec	11 Jun	10 Dec	10 Jun	09 Dec	09 Jun	08 Dec	08 Jun	07 Dec	07 Jun
엔지니어링	9.6	7.8	9.6	9.3	9.6	9.4	4.5	5.0	5.7	6.0	4.9	13.4	12.3	23.7
시멘트	26.2	27.3	24.1	21.1	23.1	22.8	4.7	3.3	3.8	2.1	-0.6	17.8	20.9	21.7
폭약	34.7	37.2	36.5	36.0	36.4	41.9	24.6	27.7	24.6	21.1	14.3	29.4	33.8	34.0
부동산	33.1	37.7	30.9	29.3	28.2	20.9	9.9	3.2	17.5	10.5	7.6			
고속도로	56.0	54.3	53.8	56.4	58.2	56.5	-11.3	-8.9	-24.0	-24.1	0.5	71.8	71.2	78.2
수력발전	41.9	42.6	56.6	58.4	33.5		-2.4	3.9	0.7	5.6	-21.4	47.9	58.4	
기타	11.4	32.7	18.6	16.9	18.7	15.6	2.9	2.4	2.0	2.2	-4.9	19.5	24.3	36.2

자료: WIND를 이용하여 저자 정리.

가. 非이윤 부문의 갯수

영업이윤 분석에 있어, 먼저 매출이 발생함에도 영업이익이 없거나 마이너스를 기록한 부문의 개수를 헤아려 그 비중을 계산했다. 이를 ‘非이

윤 부문'이라고 부르도록 하자. [표 4-7]에 따르면,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을 막론하고 관련 부문이 비관련 부문보다 非이윤 부문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관련 부문에서의 이윤이 적으며, 비관련 부문의 이윤이 많다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이 실제로 몇 % 정도인지는 후술한다.

소유구조별로 분리해서 보면, 국유기업은 관련 부문에서 대체로 10%에 가까운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비중은 경기(景氣)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07년에 6%대로 낮아졌던 非이윤 부문의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08년 하반기~'09년 하반기)와 함께 11% 넘게 증가했다. 그 후 다시 7~8%대에서 안정되던 동 비중은 성장률이 7%대로 하락한 '12년과 '13년에 다시 9~10%대로 증가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국유기업의 관련 부문이 경기 혹은 이윤 창출 여부에 대해 상대적으로 둔하게 반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가령 국유 석유화학 기업은 석유화학 생산량의 조절을 경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하기 힘들다. 반면 민영 의류기업이라면 생산량 조절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유기업의 비관련 부문에서 非이윤 부문의 비중은 1~2% 정도로 관련 부문보다 현격히 낮다. 이는 관련 부문이 일종의 '주어진 제약'으로 작용하는 반면 비관련 부문이 비즈니스 기회 포착의 계기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국유기업의 운영권이 자유화될수록 국유기업은 더 많이 사업 다각화를 실시할 유인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민영기업은 관련 부문과 비관련 부문에서 2013년 말 현재 각각 2.8%와 1.6%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관련 부문의

영업 실적이 부문 갯수에 있어서 더 좋게 나타나는 국유기업의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다. 비록 ‘주어진 업종 부문’에서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민영기업도 여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할 유인이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표 4-7. **非要인 부문 개수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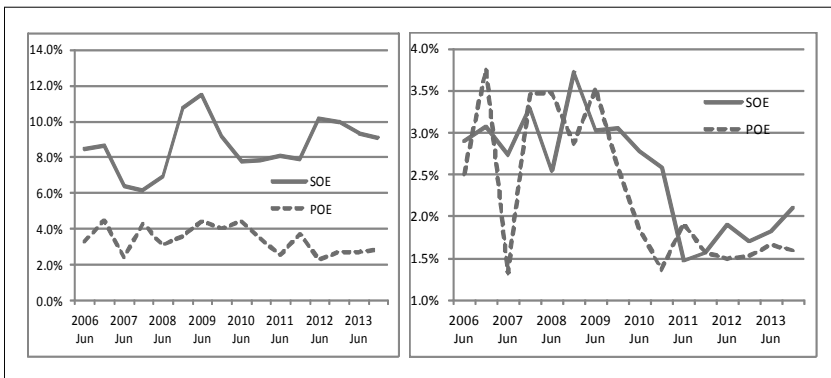
(단위: %)

구분		06	06	07	07	08	08	09	09	10	10	11	11	12	12	13	13
		Jun	Dec	Jun	Dec	Jun	Dec	Jun	Dec	Jun	Dec	Jun	Dec	Jun	Dec	Jun	Dec
관련	SOE	8.4	8.7	6.4	6.1	6.9	10.8	11.5	9.2	7.8	7.8	8.1	7.9	10.1	10.0	9.3	9.1
	POE	3.3	4.5	2.4	4.2	3.1	3.6	4.4	4.0	4.4	3.4	2.5	3.7	2.3	2.7	2.7	2.8
비관련	SOE	2.9	3.1	2.7	3.3	2.5	3.7	3.0	3.1	2.8	2.6	1.5	1.6	1.9	1.7	1.8	2.1
	POE	2.5	3.8	1.3	3.5	3.5	2.9	3.5	2.6	1.8	1.4	1.9	1.6	1.5	1.5	1.7	1.6

자료: WIND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4-2]는 이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를 보면, 비관련 부문에서의 비이윤 부문의 비중이 매우 불안정한 가운데, 국유기업과 민영

그림 4-2. **관련(左) 및 비관련(右)의非要인 부문 개수 비중 추이**



자료: [표 4-7]을 근거로 작성

기업 모두 2011년을 전후로 비이윤 부문 갯수의 비중이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윤 창출 능력이 더 좋아졌기 때문이라기보다 앞서 [표 4-5]에서 확인한대로, 비관련 부문으로의 다각화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해야 한다.

나. 영업이윤율 비교

다음으로 각기 다른 소유구조의 기업이 관련 부문과 비관련 부문에 걸쳐 어느 정도의 영업이윤율을 내고 있는지 분석했다. 이를 반영한 [표 4-8]과 [그림 4-3]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국유기업보다 민영기업의 영업이윤율이 더 높게 관찰된다. 2013년 말의 수치를 비교해보면 관련 부문에 있어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윤율은 각각 23.0%와 33.7%이다. 또한 같은 기간, 비관련 부문의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윤율은 27.3%와 31.9%이다. 덩치가 큰 국유기업에 비해 민영기업은 작지만 효율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간에 걸친 추이는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관련 부문과 비관련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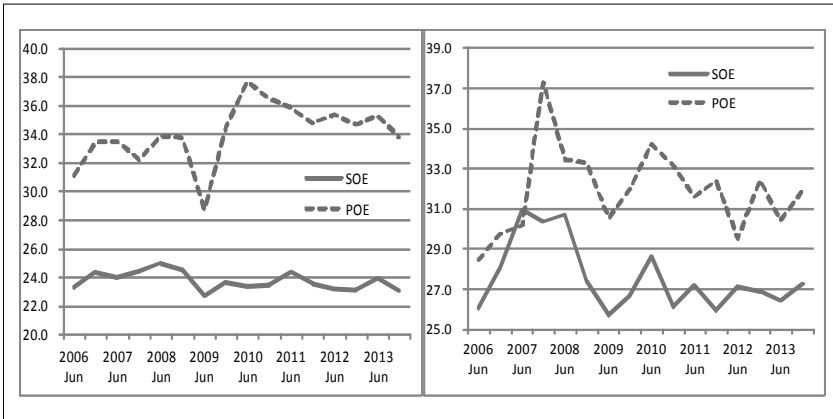
표 4-8. 기업유형별 관련/비관련 매출액 대비 영업이윤

(단위: %)

구분	06 Jun	06 Dec	07 Jun	07 Dec	08 Jun	08 Dec	09 Jun	09 Dec	10 Jun	10 Dec	11 Jun	11 Dec	12 Jun	12 Dec	13 Jun	13 Dec	
관련	SOE	23.3	24.3	24.0	24.5	25.0	24.5	22.7	23.7	23.4	23.5	24.4	23.6	23.2	23.2	23.9	23.0
	POE	31.1	33.4	33.5	32.2	33.9	33.8	28.7	34.5	37.6	36.5	35.8	34.7	35.3	34.6	35.3	33.7
비관련	SOE	26.0	28.0	30.9	30.3	30.7	27.4	25.7	26.6	28.6	26.1	27.2	25.9	27.1	26.9	26.4	27.3
	POE	28.5	29.8	30.2	37.3	33.4	33.2	30.5	32.0	34.2	33.1	31.6	32.4	29.5	32.4	30.4	31.9

자료: WIND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4-3. 관련(左) 및 비관련(右) 부문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추이



자료: [표 4-8]를 근거로 작성

모두에서 2009년이 하나의 저점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드러난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윤 창출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다. 대체로 국유와 민영을 막론하고 영업이익률이 경기의 영향으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상향이나 하향 등의 추세도 특별히 읽을 수 없다.

이를 [그림 4-1]에서 확인한바, 비관련 다각화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과 결부하여 해석하면, 관련 업종에서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추세라고 읽을 수 있다. 즉, 새로운 부문으로의 진출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것이 이윤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민영기업과 국유기업 사이의 이러한 이윤율의 격차가 관련 부문에서보다 비관련 부문에서 축소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관련 부문에서 둘 사이의 격차는 10% 이상으로 나타나지만 비관련 부문에서는 그 격차가 5%가량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국유기업의 ‘관련’ 부문이란 것이 주어진 비즈니스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즉,

이윤이 발생 여부에 관계 없이 영위하도록 사회적으로 혹은 행정적으로 할당받은 업종이라는 것이다. 반면 비관련 다각화를 한다면 그러한 제약 내지는 임무에서 자유로이 투자를 할 수 있으므로 민영기업과의 격차가 더 작게 벌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유기업의 비관련 부문 이윤이 관련 부문보다 높은 데 반해, 민영기업의 비관련 부문은 이윤은 관련 부문보다 낮다는 사실에서 극적으로 드러난다. 이를 분석한 [표 4-9]에 따르면, 국유기업에서 비관련 부문과 관련 부문의 이윤을 격차는 3~5%가량이다. 즉, 비관련 부문의 이윤이 더 높다. 그러나 민영기업은 그 부호가 반대이다. 몇몇 시점의 예외를 제외하고, 관련 부문의 이윤이 비관련 부문보다 최대 5.9%p까지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국유기업의 비관련 부문의 이윤이 더 높은 이유는 기업의 혹은 기업가의 이윤 추구 동기가 할당된 업종이 아닌 자체 개발한 업종에서 구현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국유기업의 비관련 다각화가 효율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편 민영기업의 비관련 부문의 이윤이 낮은 이유는 한 번 자발적으로 포착하여 활약하고 있는 일차적인 비즈니스 영역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

표 4-9. 관련 부문과 비관련 부문 간의 차

(단위: %)

구 분		06	06	07	07	08	08	09	09	10	10	11	11	12	12	13	13
		Jun	Dec	Jun	Dec	Jun	Dec	Jun	Dec	Jun	Dec	Jun	Dec	Jun	Dec	Jun	Dec
관련-	SOE	-2.7	-3.7	-6.9	-5.8	-5.8	-2.8	-3.0	-2.9	-5.2	-2.6	-2.8	-2.4	-3.9	-3.7	-2.5	-4.2
비관련	POE	2.6	3.7	3.4	-5.1	0.5	0.5	-1.8	2.5	3.4	3.3	4.2	2.3	5.9	2.2	4.9	1.8

자료: [표 4-8]을 근거로 작성

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집중화 전략(Focus Strategy)이라는 비교적 최근의 기업전략 이론이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국유기업의 비관련 다각화는 주어진 업종을 바탕으로 하는 이윤 추구 행위인 반면, 민영기업의 비관련 다각화는 경쟁이 치열한 기존 업종에 집중하지 못한(distracted),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영기업의 부문별 양극화 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국유기업의 경우 이윤이 발생하는 부문의 숫자와 그 크기가 일치했으나, 민영기업은 서로 반비례했다. 즉, 민영기업에 있어 이윤이 나는 관련 부문의 개수는 비관련 부문보다 적으나, 거기서 비관련 부문보다 더 큰 이윤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민영기업의 관련 부문이 이윤 창출 능력에 있어 양극화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영기업의 경우, 이윤 창출 능력이 큰 주력 부문을 영위하는 기업과 주력 부문에서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이(국유기업에 비해) 더 양극단에 분포한다는 것이다. 즉, 주력 부문이 약한 민영기업들은 비관련 다각화를 추진할 유인이 클 수 밖에 없으나 그 성공률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4. 소결

4장에서 확인한 중국기업의 다각화 관련 팩트(fact)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다각화 자체는 확대되고 있으나 그 안에서 관련 다각화의 비중은 커지는 반면, 비관련 다각화의 비중은 작아지고 있다. 특히 민영기업의 비관련 부문 축소는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둘째, 매

출액은 있으나 이윤은 없는 非이윤 부문의 개수는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모두 관련 부문이 더 많다. 즉, 비관련 부문으로 확장할 유인은 충분하다. 셋째, 그러나 매출액 대비 이윤을 집계하면 국유기업은 비관련 부문이 더 큰 반면 민영기업은 관련 부문이 더 크다. 둘째와 셋째를 종합하면, 국유기업은 이윤이 발생하는 부문의 숫자와 이윤의 크기가 비례하지만, 민영기업은 반비례한다.

이상의 팩트 및 최근 국유기업 개혁 조치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중국 국유기업의 다각화 관련 전망을 할 수 있다. 첫째, 앞으로 비관련 다각화가 진행될 유인이 크다. 비관련 부문에서 관련 부문보다 더 큰 이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4장의 서론에서 설명했던 中國石化(SINOPEC)의 소매업 진출, 上海寶鋼(Baosteel)의 금융업 진출 등이 점점 더 본격화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이 추세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에 대한 경영 자율권 보장이다. 이제까지 다각화를 할 줄 몰랐다가보다는 정부의 규제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경영 자율권이 확대된다면 우리나라의 포스코나 일본의 JR이 경험한 것 같은 다각화가 일어날 수 있다.

둘째, 최근 국유기업 관련 개혁은 이러한 다각화가 신규 투자가 아닌 민영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통해 이뤄질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먼저, 국유자본과 민간자본의 ‘혼합소유제 장려’라는 것은 언뜻 민영화를 촉진 하자는 이야기 같지만 실상은 그 반대이다. 제한된 민간자본의 역량으로 국유기업의 절대 지분을 인수하기는 어렵다. 주요 국유기업의 유통주 비중 자체에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도산하여 자산을 처분할 처지에 놓인 국유기업이 아닌 다음에야 민간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현실은 국유기업이 사업 영역 확장의 필요에 따라 민영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식으로 ‘혼합소유제’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최근 민간자본의 국유 프로젝트 참여 허용⁶⁴⁾이란 것도 ‘프로젝트’에 참여시킨다는 것이지 기업의 경영권을 섞어보겠다는 것이 아니다.

일부 국유기업을 ‘국유자본투자공사’로 전환한다든가, ‘국유자본운영공사’를 설립한다든가 하는 것도 국유기업 내지는 국유자본의 활동 영역을 넓혀주는 조치들이다. 앞서 쑹량그룹의 예에서 보았듯이, 국유자본투자공사란 다각화된 한국식 재벌구조의 국유기업이나 마찬가지다. 국유자본운영공사라는 것도 국유자본의 이윤창출 능력을 높이겠다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는 업종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직까지 시범적으로 채택된 이 조치가 ‘시범’ 딱지를 떼고 보편적으로 허용되는 순간 중국의 기업 및 산업계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지각변동에서 국유기업의 영향력은 더 많은 업종에 걸쳐 확대될 것이다.

셋째,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민영기업은 집중화 전략 혹은 수직적 다각화를 추구하면서, 축적된 자본을 신산업에 투입할 것이다. 민영기업의 비관련 다각화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또한 국유자본의 고삐는 서서히 풀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영기업은 자신의 고유 업종에서의 우위를 지켜가기 위해 집중하거나, 관련 부문으로의 수직적 다각화를 구사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최근 다각화 추세에 이미 반영돼 있다. 한편 주목해야 할 것은 결집된 민간자본의 역량이다. 이미 復星(FOSUN)그룹과 같은 기업집단은 국유자본의 배

64) 박민숙(2014), 「중국 80개 인프라 프로젝트에 민간투자 허용」, 아시아태평양실·구미유라시아실 공동 동향 세미나(2014. 5. 3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이 전혀 없이 제약·건설·철강·미디어에 걸친 다각화된 투자 그룹을 건설했다. 또한 中國民生投資有限公司(中民投)는 중국 유일의⁶⁵⁾ 민영 은행인 民生銀行에 뿌리를 두고 500억 위안의 자본금으로 설립되어 신 에너지·항공·물류·해외투자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⁶⁶⁾. 특히 국유 자본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느린 태양광·풍력 등 신에너지 사업으로의 민간자본 진출이 기대된다. 또한 항공업과 같이 전통적인 국유 독점 사업의 개방 조짐이 보임에 따라 이런 부문에서 민간 역량을 발휘할 여지도 클 것이다.

65) 2014년 4월, 민영은행 확대 정책이 실행되기 전 民生銀行이 유일한 민영은행이었음(최필수 2014).

66) 財經(2014), 「解碼中民投」, (8. 25)

제5장 중국 국유기업의 산업 집중도 분석

1. 국유기업과 산업정책
2. 산업별 국유기업의 점유율
3. 향후 산업 재편 전망
4. 소결



중국에서 국유기업은 역사적으로 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국유기업의 개혁, 발전은 중국경제의 산업 지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본 장에서는 주로 중국의 산업 부문에서 국유기업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방대한 범위의 중국산업과 산업정책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본격적인 분석을 하는 것은 아니며, 산업정책에서 국유기업의 육성정책과 연계된 부분, 그리고 공개되어 있는 통계를 활용하여 국유기업을 위주로 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분석하도록 한다.

본 장에서는 우선 국유기업과 산업정책의 관계를 기존 정책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중국의 산업정책이 국유기업 정책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둘째로 인수합병을 통하여 국유기업의 대형화를 추구하는 산업정책을 중국정부가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별로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산업 재편과 국유기업 개혁이 미치는 영향 등을 전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석유산업, 자동차 산업, 소매업, 철강산업, 조선업을 선정하여, 간략하게 정성적인 분석을 할 계획이다.

1. 국유기업과 산업정책

가. 중국의 산업정책

중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일관되게 국유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다만 국가경제 전체가 아니라, 국가경제의 핵심 산업을 국유기업이 주

도할 수 있도록 국유기업을 육성하고, 개혁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목표의 하나였다. 따라서 중국에서 국유기업 정책과 산업정책은 태생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중국은 각종 5개년계획(규획) 등을 통해서 산업 육성과 관련된 산업정책의 개략적인 방향이 발표되고 있으며, 이후 각종 정부 부문 및 지방정부는 산업별 혹은 지역별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지도 의견, 목록 등의 형태로 내놓고 있다.⁶⁷⁾

일찍이 중국은 제9차 5개년계획(1996~2000년)에서 수력, 에너지, 교통, 통신 등 인프라와 기초공업 건설을 강화하여야 하며, 기계, 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및 건축업을 경제성장과 경제구조의 선진화를 이끄는 지주산업으로 규정한다고 발표한 바있다.⁶⁸⁾

이어서 2006년 12월 국자위(國資委)는 ‘국유자본 조정과 국유기업 개편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하였는데,⁶⁹⁾ 여기에서는 국유기업이 주로 담당하여야 하는 산업에 대해서 약간의 추가 조정을 하였다. 여기에서 국유자산의 관리, 국유기업의 감독·관리가 주요 업무인 국자위가 중국의 산업정책의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하면, 중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산업정책에서 국유기업이 핵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대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7) Wanton, Julie (2010), [http://www.chinabusinessreview.com/coming-to-terms-with-industrial-policy/\(assessed 2014. 9. 23\)](http://www.chinabusinessreview.com/coming-to-terms-with-industrial-policy/(assessed%202014.%209.%2023))

68)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5), 『중국의 제9차 5개년계획 및 2010년까지의 장기발전계획』, 정책자료 95-01, p. 20.

69) 中华人民共和国人民政府(2006),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7/content_503385.htm\(accessed September 22, 2014\)](http://www.gov.cn/gongbao/content/2007/content_503385.htm(accessed%20September%2022,%202014)).

지도의견에 따르면, 국유기업이 지속적으로 지배적이어야 하는 산업부문을 크게 두 분야로 나누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⁷⁰⁾ 우선 국유기업이 절대적인 장악력을 가져야 하는 분야는 국가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군사공업, 전력·송배전망, 석유화학, 전기통신, 석탄, 항공, 해운산업 등 7개 분야이다. 이 분야의 핵심기업은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며, 군사공업, 전력·송배전망, 석유화학, 전기통신 등 인프라 분야의 중앙국유기업은 독자(獨資)기업이거나 혹은 국유자본이 절대적인 지분을 보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 분야의 국유기업의 중요 자회사 혹은 항공, 해운업의 중앙국유기업은 국유자본이 절대적인 지분을 보유하여야 한다. 또한 석유화학의 하류 부문 및 전기통신 분야에서는 비국유자본 및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분야는 지주산업으로서 설비 제조, 자동차, 전자, 건설업, 철강, 비철금속, 화학, 자원조사설계, 과학기술 등 9개 산업 부문이다. 중앙국유기업은 해당 산업 분야의 핵심기업이어야 하며, 국유자본이 절대적인 지분을 갖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세계 일류기업으로 발전하여야 한다는 것이 지도의견의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Fan and Hope(2013)은 상기 지도의견은 산업 부문을 지나치게 광의의 의미로 규정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중국정부가 지도의견에서 언급된 전략산업 및 지주산업의 많은 하위 부문에서 외국자본의 투자 유치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⁷¹⁾

70) 中华人民共和国人民政府(2006), http://www.gov.cn/jrzq/2006-12/18/content_472256.htm (accessed September 22, 2014).

71) Fan, Gang and Hope, Nicholas(2013), "The Role of State-Owned Enterprises in the Chinese Economy" p. 13, <http://www.chinausfocus.com/wp-content/uploads/2013/05/>

나. 국유기업 대형화 정책

과거 중국의 대기업은 주로 국가 주도에 의하여 시작되었으며, 특히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들이 과거 정부 부처의 역할을 대신하는 정책적 목적도 있었다.

최근에는 난립해 있는 중소기업을 정리하고,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산업 내부에서 통제력을 강화하고, 또한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며 세계경제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수합병에 의한 국유기업 대형화가 시도되고 있다.⁷²⁾ 즉 중앙국유기업을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대기업 혹은 대기업집단으로 육성하는 것이 최근 중국의 산업정책에서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국무원은 2010년 8월, ‘기업 인수합병·재편 촉진에 대한 의견’(國發[2010]27號)을 발표하였다.⁷³⁾ 여기에서는 일부 산업의 중복 투자가 심각하고 산업집중도가 낮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수합병에 의한 산업 재편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구조의 최적화, 고도화를 촉진하고 발전 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정책 목표하에서 자동차, 철강, 시멘트, 기계 제조, 전해알루미늄, 희토류의 6개 산업 부문을 선정하여 지역을 초월하는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공업·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를 비롯하여 국무원 산하 각 부문과 지방정부가 추진해야 할 업무를 지정하고

Chapter-16.pdf(accessed 2014.9.22).

72) 물론 현행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정책은 인수합병 등에 의하여 국유기업을 대형화하는 정책으로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어서,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2014) 참조

73) 中华人民共和国人民政府网(2010), http://www.gov.cn/zwggk/2010-09/06/content_1696450.htm(assessed 2014.9.23).

있다.

또한 상기 27호 문건 및 기타 다른 정부 문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공업·정보화부는 다른 부서와 합동으로 ‘중점산업의 기업 합병과 구조조정에 관한 지도 의견’(工信部聯產業[2013]16號)을 2013년 1월에 발표하였다.⁷⁴⁾ 산업집중도,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제구조 조정, 성장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자동차, 철강, 시멘트, 조선, 전해알루미늄, 희토류, 전자통신, 의약, 농업 등 9개 중점산업을 지정하여 각각의 정책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표 5-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5-1. 중점산업별 인수합병·재편의 주요 목표

중점산업	2015년까지의 목표
자동차	- 상위 10개 완성차업체의 산업집중도 목표는 90% - 핵심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집단 3~5개 형성
철강	- 상위 10개 업체의 산업집중도 목표는 약 60% - 핵심경쟁력,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기업집단 3~5개 및 지역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기업집단 6~7개 형성
시멘트	- 상위 10개 업체의 산업집중도 목표는 35% - 시멘트 클링커 생산능력 1억 톤 이상, 내부 생산체인을 완비하여 핵심경쟁력을 가진 기업집단 3~4개 형성
조선	- 상위 10개사의 산업집중도 목표는 70% 이상 - 세계 조선업 상위 10위에 들어가는 기업 5개 이상
전해알루미늄	- 상위 10개사의 제련량 산업집중도 목표는 90% - 국제경쟁력을 가진 기업집단 3~5개 육성
희토류	- 채굴·제련이 분리되어 있는 기업을 줄이고, 대기업이 주도하는 산업구조 형성
전자통신	- 판매수입 1천억 위안 이상의 대형 핵심기업 5~8개 형성 - 판매수입 5천억 위안 이상의 대기업 육성
의약	- 상위 100개사 판매액의 산업집중도 목표는 90% - 필수약품: 상위 20개사의 판매수입 산업집중도 80%
농업	- 자주혁신 능력, 가공 능력 제고, 주도적인 대기업 육성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2013), <http://www.miit.gov.cn/n11293472/n11293832/n15216906/n15217002/15218043.html> (accessed September 23, 2014)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74) 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2013) <http://www.miit.gov.cn/n11293472/n11293832/n15216906/n15217002/15218043.html>(accessed September 23, 2014).

또한 상기 16호 지도 의견에 의하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제 우대, 재정보조금 지급, 금융 지원, 인력정리 지원 등 각종 정책도구를 동원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한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에서 지방정부 간부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역총생산액(GRDP)과 세수 확보 방면에서 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만약 해당 지역에 위치한 국유기업을 정리한다면 실적 쌓기가 어려워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지도의견은 구체적인 방안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지역에 위치한 기업을 용이하게 인수합병할 수 있도록 기업 재편으로 발생한 이익을 지역간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탐색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실효성은 아직은 불확실하다.

2. 산업별 국유기업의 점유율

가. 산업집중도 목표의 해석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도의견(工信部聯產業 [2013] 16號)은 9개 중점산업에서 2015년까지의 달성해야 하는 산업집중도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산업집중도의 개념이 정부 문건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산업집중도의 개념이 과연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계산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우선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산업(시장)집중도는 시장의 경쟁상태를 측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이처럼 시장구조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a) 상위 k기업집중률(CR_k)과 (b) 허쉬만-허핀달지수(Herfindal Hirschman Index, HHI)가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⁷⁵⁾ 이 중에서 지도 의견에서 언급한 산업 집중도는 상위 k기업집중률(CR_k)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재형 외(20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CR_k와 HHI을 계산할 때, 통상적으로 개별기업의 출하액을 사용하여 개별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산출하고 있다. 생산량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출하액과 생산량은 동일하지는 않다. 특히 중국의 철강산업과 같이 일부 산업에서는 과잉 생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출하액 대신에 생산량을 사용하는 것은 그다지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상기 지도의견에서는 산업 별로 출하액과 생산량이 혼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산업집중도를 산출할 때, 다품목 생산기업과 다사업체 기업이 있다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재형 외(2013)에 의하면 주생산 품목, 주사업 분야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대략 세가지 방법이 있으며, 각

75) 참고로 상위 k기업집중률(CR_k)과 허쉬만-허핀달지수(Herfindal Hirschman Index, HHI)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위 k기업집중률(CR_k)은 한 시장에서 상위 k번째 기업까지의 시장점유율(S_i)을 합하여 산출한다. 이 지수는 측정이 간단하고 소수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직접적으로 표시해 주기 때문에 시장집중도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CR_k = \sum_{i=1}^k s_i$$

허쉬만-허핀달지수(HHI)는 특정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치를 합하여 산출한다. 각 기업의 시장점유율 그 자체가 가중치가 되어 상위기업의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HHI 수치도 증가한다. 다만 해당시장에 속해 있는 모든 개별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알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HHI = \sum_{i=1}^N s_i^2$$

자료: 이재형 외(2013), 『시장구조조사』, pp. 25~28, 한국개발연구원.

각의 장·단점이 있다.⁷⁶⁾ 지도의견에서 언급하고 있는 산업집중도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서 산출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마지막으로 산업집중도는 시장의 경쟁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상위 k기업이 국유기업이든지 민영기업이든지 소유 형태의 문제와는 상관 없이 시장의 경쟁 상태를 보여 주는 지표이다. 따라서 상위 k기업이 모두 동일하게 국유기업이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수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지도의견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대형기업의 육성이 소유 형태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비국유기업 혹은 비국유자본이 포함된 대기업(집단)의 육성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중국의 산업정책이 전략산업(기초산업) 및 지주산업에서 국유자본이 절대적 혹은 상당한 수준의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9개 중점산업에서 인수합병 촉진정책과 일관성을 갖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중국의 산업집중도 선행 연구

중국정부가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통계만을 사용하여 산업집중률을 계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중국의 산업집중률에 관한 선행 연구는 많지 않다. 최근 세계은행과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의 공동 프로젝트인 *China 2030*은 중국의 산업집중률에 관한 선행 연구를 간략히 소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중국의 산업집중률은 대부분의 산업 부문에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⁷⁷⁾ *China 2030*에 소개되어 있는 Sutherland

76) 이재형 외(2013), pp. 20~21.

77) World Bank and DRC(2013), p. 106.

and Ning(2008)을 재인용하면, 2006년 중국산업의 산업집중도(CR₄) 평균값은 23%인 반면, 일본의 산업집중도(CR₃) 평균은 1937년에 57.6%, 1950년에 53.5% 그리고 1962년에 44.1%로 나타났다. 한국은 1980년대에 산업집중도(CR₃) 평균값은 62.9%로 나타났기 때문에, 엄밀한 분석은 아닐지라도 중국의 산업집중도는 한국과 일본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Sutherland and Ning(2008)의 결과를 재인용하여, 중국의 산업별 집중도를 보면, 2006년 기준으로 겨우 3개 산업(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 석유, 코크스, 핵연료 가공 및 전력 생산 및 분배)만이 산업집중도가 4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3개 산업의 매출액은 전체 37개 산업의 14.4%에 불과했다. 상위 8개 기업을 대상으로 산출한 산업집중도(CR₈)의 경우, 37개 산업 중 오직 5개의 산업만이 산업집중도가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hina 2030*은 중국에서 대부분의 산업 부문에서는 산업집중도가 높지 않지만, 인프라 등 일부 전략산업에서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 사이의 경쟁 관계는 상당히 억제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⁷⁸⁾

다. 산업별 국유기업 점유율

별도의 통계 조사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정부가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통계 자료만을 사용한다면, 산업집중도가 아니라 개별산업 중에서 국유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즉 점유율은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

78) *Ibid.*, p.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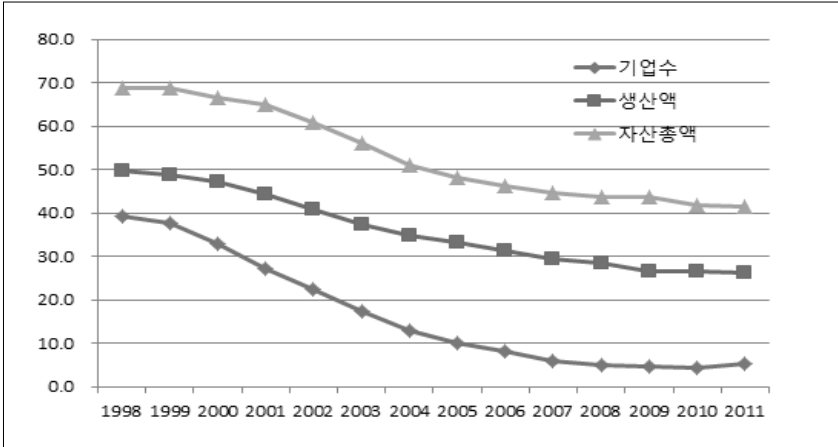
는 중국국가통계국 발표 자료를 활용하여, 국유기업이 중국경제(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자 한다. 하지만 이는 비국유기업의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산업별 경쟁 상태, 즉 산업집중도와는 상관없는 통계 자료임을 미리 밝혀 둔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 이미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본 장의 필요에 의해서 재차 소개하고자 한다. 공업 분야에 한정하여 볼 때 [그림 5-1]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국유기업이 전체 공업 분야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기업 수를 기준으로 보면 1998년에 국유기업 및 국유자본지주회사(이하 간략히 국유기업으로 지칭)는 기업 수 기준으로 전체의 39.2%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1년에는 5.6%만이 국유기업으로 축소되었다. 생산액을 기준으로 보면, 1998년의 49.6%에서 2011년 26.2%로 축소되어 기업 수가 상당히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국유기업 1개당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추산은 평균적인 의미이며, 산업집중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도 1998년에는 국유기업은 68.8%를 차지하였으나 2011년에는 41.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5-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국유기업의 점유율은 2001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비교적 빠르게 감소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11년 기간에 동안 감소 추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추세는 앞으로 중국에서 국유기업 개혁이 어떤 속도로 진행될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1. 광공업 부문 국유기업의 점유율 추이

(단위: %)



자료: 중국국가통계연감(1998~2011).

한편 [표 5-2]는 공업 부문 중에서 해당산업 전체에서 국유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산업별로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2006년 이전에도 산업별로 국유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 통계를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고 있지만, 제조업의 분류 방식이 2006년과 달라서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2006년, 2011년 통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표를 작성하였다. [표 5-2]는 2011년에 생산액을 기준으로 국유기업이 개별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 순서대로 정렬한 것이다. 따라서 2011년에 국유기업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담배 제조업으로 생산액 기준으로 국유기업은 해당산업의 전체 생산액의 99.3%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5-2. 산업별 국유기업의 점유율(공업 부문)

(단위: %)

구 분	2006년		2011년	
	기업 수 기준	생산액 기준	기업 수 기준	생산액 기준
담배 제조	79.9	99.3	79.1	99.3
전력, 고온 수증기 생산 및 공급	67.3	90.0	66.4	93.0
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	49.7	98.9	40.2	92.1
물 생산과 공급	80.7	69.5	61.4	69.4
석유, 코크스, 핵연료 가공	10.2	75.6	10.9	68.6
석탄 채굴 및 세척	13.0	66.0	11.5	53.6
가스 생산과 공급	43.2	54.7	29.9	44.4
교통운수설비제조업	12.7	50.2	7.6	44.0
철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	5.2	43.1	4.6	36.9
비철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	7.4	33.4	6.9	28.8
비철금속광물 채광	16.5	38.8	12.7	28.7
전용 설비 제조	10.1	26.3	5.2	20.5
화학 원료 및 화학 제품 제조	7.5	29.1	5.0	18.7
철금속광물 채광	4.5	18.4	4.1	16.7
음료 제조	11.7	22.9	5.6	16.5
통용(通用)설비 제조	6.1	21.5	3.2	12.5
비금속광물 채광	10.6	19.9	5.5	12.3
고무 제조	4.3	14.2	3.1	12.1
의약품 제조	11.0	19.9	7.1	11.8
인쇄 및 기록매개 복제	19.9	17.5	8.0	11.5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	7.4	11.5	4.5	10.6
계측계기 및 교육, 사무실용 기계 제조	10.8	9.3	6.4	10.3
전기기기 및 기재 제조	4.9	10.8	2.8	8.9
공예품 및 기타 제조	2.9	5.7	2.0	8.9
통신설비, 컴퓨터 및 기타 설비 제조	7.8	7.7	5.2	8.3
화학섬유 제조	5.4	20.5	2.7	8.2
제지 및 제지 제품	3.6	10.1	1.8	6.9
식품 제조	8.5	12.4	4.1	5.8
금속제품업	3.6	7.1	2.3	5.8
농부식품 제조	7.0	8.2	2.9	5.4

표 5-2. 계속

구 분	2006년		2011년	
	기업 수 기준	생산액 기준	기업 수 기준	생산액 기준
폐기 자원 및 폐기 재료 회수 가공	3.2	2.9	3.2	3.8
플라스틱 제품	2.8	4.6	1.5	2.7
방직업	2.9	5.9	1.2	2.4
목재 가공	3.5	7.6	1.4	2.3
가구 제조	2.2	3.7	0.5	1.7
방직복장, 신발, 모자 제조	1.6	1.8	1.1	1.4
문교체육용품 제조	1.9	2.0	1.0	1.2
피혁, 모피, 우모 및 제품	0.8	0.7	0.2	0.3
기타 광업	12.5	2.7	n.a.	n.a.
총 계	8.3	31.2	5.2	26.2

자료: 중국국가통계연감(2006, 2011)

앞에서 중국의 산업정책을 언급하면서 2006년 중국 국자위에서 발표한 지도의견을 언급한 바 있다. 지도의견에서는 7개의 인프라 및 기초산업과 9개의 지주산업에서 국유기업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표 5-2>의 43개 공업 부문을 지도의견에서 개진된 산업 부문과 맞추어 대략적으로 분류하여, 작성하면 다음의 [표 5-3]과 같다. 물론 43개로 분류되어 있는 공업부문을 지도의견에 따라서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략적인 방향성은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표 5-3]에 의하면, 인프라 및 기초산업에서는 기업 수와 생산액을 기준으로 볼 때 2011년에도 2006년과 비교하여 동시에 소폭 감소한 것을 알 수 있고, 지주산업에서 기업 수 기준과 생산액 기준 모두 감소하였음을 보여 준다.

표 5-3. 산업 특성별 국유기업의 점유율 비교

(단위: %)

		2006년		2011년	
		기업 수 기준	생산액 기준	기업 수 기준	생산액 기준
전략산업	인프라 및 기초산업	44.0	75.8	36.7	70.2
	지주산업	8.7	29.0	5.9	23.0
비전략산업		6.2	10.0	3.2	7.2

자료: 저자 정리. 해당산업의 점유율의 단순평균치를 의미

한편 비전략산업에서는 국유기업의 비중이 기업 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 모두 감소하였음을 보여 주는데, 국유기업의 점유율이 모두 10% 이하를 기록함에 따라 국유기업이 기여하는 역할은 거의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인프라 및 기초산업을 제외하면, 지주산업이거나 비전략산업의 경우 국유기업의 비중은 비교적 높지 않다고 보인다.

[표 5-2] 및 [표 5-3]은 국유기업이 해당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점유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산업집중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하지만 제한적인 가정하에서는 국유기업들로만 추산한 산업집중도의 최대치를 보여 준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국유기업을 제외한 비국유기업(집체기업, 사영기업 및 외상투자기업) 부문에서 기업 규모가 국유기업에 비하여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제한적인 가정을 한다면, 국유기업들의 산업집중도(CR_k)는 정의(定義)에 의해서 [표 5-2] 혹은 [표 5-3]에서 보여주고 있는 국유기업 전체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점유율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⁷⁹⁾

본 절을 마무리 하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방금 위에서 언급한 가정이 현실적인지의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지주산업 그리고 특히 비전략산

79) $\sum_{i=1}^k s_i \leq \sum_{i=1}^n s_i$ if $k \leq n$. (n: 전체 국유기업 수, s_i : 국유기업 i 의 시장점유율).

업에서 중국의 국유기업들만 볼 때, 산업집중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앞에서 언급한 *China 2030*의 평가를 대략적으로 지지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추정은 중국산업은 산업집중도가 높지 않다는 일반적인 관측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산운용사 Adveq의 리슈양사(李雙霞)는 중국은 거의 모든 산업에서 집중도가 상당히 낮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10년 동안 산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인수합병 등을 통한 구조 재편이 하나의 거대한 추세라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⁸⁰⁾

3. 향후 산업 재편 전망

본 절에서는 방대한 중국산업 전체를 분석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몇 가지 요인에 따라서 중국의 주요 산업으로서 석유산업, 자동차산업, 소매업, 철강산업, 조선업을 선정하였고, 이들 산업에서 미래의 산업 재편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은 산업별로 다른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는데, [표 5-4]는 산업별 특성에 따라 국유기업의 통제력과 외자기업 M&A 여부를 보여주고 있다. 산업별 특성에 따라 9개의 산업군으로 분류하였고, 특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점은 외자기업에 의한 M&A 허용 여부이다.

80) 投资中国网(2014), <http://capital.chinaventure.com.cn/11/172/1409290801.shtml> (accessed September 23, 2014).

우선 허가 또는 제한적 승인으로 되어 있는 산업군은 일반적 경쟁산업, 전략적 경쟁산업 및 전략적 자원산업의 3개 산업군이다. 일반적 경쟁산업의 국유기업들은 지분 투자로 전환되거나 시장에 의해 퇴출될 것이며, 외자기업의 M&A도 독려하고 있다. 전략적 경쟁산업이나 전략적 자원산업은 국유기업이 상대적인 통제를 하고 있으며, 외자기업의 M&A에는 제한적 승인을 하고 있다. 이들 산업의 국유기업들은 향후 혼합소유제의 형태로 전환될 전망이다. 중국의 전략산업 부문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가능성은 크지는 않지만, 한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철강, 조선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향후 경쟁 상대로서의 철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같이 본 절에서 선정된 5개 산업은 산업집중도, 한국과의 경쟁관

표 5-4. 산업별 국유기업 특성과 외자기업 M&A

	구체적인 산업	산업적 특징	국유기업 통제력	외자기업 M&A 여부
일반적 경쟁산업	경공업, 방직, 일반 기계, 여행 등	낮은 진입 장벽, 치열한 경쟁	지분 투자로 전환 혹은 퇴출	독려 또는 허가
전략적 경쟁산업	철강, 자동차, 장비제조, 항공, 조선, 항공운송 등	높은 진입 장벽, 규모의 경제, 국내 산업 보호	상대적인 통제	제한적 승인
전략적 자원산업	석유, 비철금속, 석탄 등	국가 안보와 관련 고투자 고수익	상대적인 통제	제한적 승인
전략적 고기술산업	항공우주, 핵공업, 기초 전자	국가안보와 관련 전략적 기술	절대적 통제	엄격한 제한 또는 금지
자연독점산업	우편, 전력망, 철도, 항구, 공항, 전신	자연독점 경쟁 배제	주도적 통제	엄격한 제한 또는 금지
민감 산업	신문, 출판업	정치적, 사회적 영향이 큼	높은 비중 유지	엄격한 제한
공공사업	수도, 난방, 가스	자연독점 높은 공익성	절대적 통제	점진적인 제한 해제
리스크가 높은 산업	금융, 보험, 증권	국가 안보와 관련	주도적 통제	조건부 승인
특수 산업	군사공업 등	특수한 업종	절대적 통제	금지

자료: 金碚, 刘成骅, 刘吉超, 卢文波(2013), 『中国国有企业发展道路』, p. 86, 经济管理出版社, 이흥규 「시진핑 시대 국유기업 개혁 심화」 p. 15; 刘景红(2012), 『国有企业改革』, p. 134, p. 208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계, 국유 기업개혁의 시범 실시 방안 등을 고려해서 대표적으로 선정하였다. 이 중에서 석유산업은 전략적 자원산업이며, 자동차, 철강, 조선은 대표적인 전략적 경쟁산업이며, 소매업은 일반적 경쟁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 석유화학산업

1) 산업 현황과 특징

중국은 혼합소유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유기업 개혁을 점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 석유화학산업 개혁을 가속하고 있다. 석유화학 분야는 철강, 자동차, 조선 등의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문제점이 부각되지 않아 2012년 공업업그레이드 계획(2011~2015년)에 포함되지 않았다.⁸¹⁾ 그러나 최근 석유화학산업 분야의 부정부패가 밝혀지고 생산과잉, 설비 낙후 등 문제점이 부각됨에 따라 석유화학산업 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석유화학산업은 1998년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재편되었으며 현재는 3대 석유기업인 중국석유천연가스주식회사(Petrochina, 中国石油天然气股份有限公司, 이하 ‘중국석유천연가스’), 중국석유화학공주식회사(Sinopec, 中国石油化工集团公司, 이하 ‘중국석유화학’), 중국해

81) Globalwindow, 2013, [http://www.globalwindow.org/GW/china/trade/info/overseamarket-detail.html?&SCH_TYPE=SCH_SJ&MENU_CD=M10115&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ID=5007066&UPPER_MENU_CD=M10114&BBS_ID=10&SCH_VALUE=&MENU_STEP=3&Page=1&SCH_NATION_CD=000000&SCH_START_DT=&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ARTICLE_SE=&SCH_END_DT=\(accessed on October 13, 2014\).](http://www.globalwindow.org/GW/china/trade/info/overseamarket-detail.html?&SCH_TYPE=SCH_SJ&MENU_CD=M10115&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ID=5007066&UPPER_MENU_CD=M10114&BBS_ID=10&SCH_VALUE=&MENU_STEP=3&Page=1&SCH_NATION_CD=000000&SCH_START_DT=&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ARTICLE_SE=&SCH_END_DT=(accessed on October 13, 2014).)

표 5-5. 중국 3대 석유공사 현황

	규모	연혁	주요 분야	재정 현황
중국석유천연가스 (中国石化天然气股份有限公司/ Petrochina)	본사: 베이징 160만 명 근무	1998년 7월 설립 2000년 4월 상장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개발, 석유 수출	2013년 매출액 2조 2천억 위안
중국석유화공 (中国石油化工集团公司/ Sinopec)	본사: 베이징 36만 명 근무	1998년 7월 설립 2001년 8월 상장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	자사 지분 75.8% 보유 (국의 투자자 19.6%, 국내 투자자 4.8%) 2013년 매출액 2조 8천억 위안
중국해양석유 (中国海洋石油总公司/ CNOOC)	본사: 베이징 10만 명 근무	1998년 7월 설립 2001년 2월 상장	해양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개발, 생산	자본금 949억 위안 2013년 매출액 5,890억 위안

자료: 중국해양석유총공사 홈페이지, <http://www.cnooc.com.cn/>(accessed on October 13, 2014); 중국석유천연가스주식회사 홈페이지, www.petrochina.com.cn/(accessed on October 13, 2014); 중국석유화공주식회사 홈페이지, www.sinopecgroup.com/(accessed on October 13, 2014)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양석유총공사(CNOOC, 中国海洋石油总公司, 이하 ‘중국해양석유’)가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석유산업은 탐사(Exploration), 개발(Development), 생산(Production)을 포함하는 상류 부문(Upstream)과 수송(Transportation), 정제(Refining), 판매(Marketing)를 포함하는 하류 부문으로 나뉜다.⁸²⁾ 위의 3대 석유기업은 수송 파이프라인 분야를 독점하고 있으며 상류 부문의 원유 및 천연가스 탐사 또한 전체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독점 현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2) 상류 부문(Upstream)은 석유화학 공정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를 분해해서 에틸렌과 프로필렌, BTX 등 기초 유분(추출물)을 만드는 단계이며, 하류 부문(Downstream)은 기초 유분을 다시 분해해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파라자일렌이나 전기·전자용 소재 등 고부가가치 화학 제품을 만드는 후속 과정이다.

표 5-6. 중국 3대 석유기업 점유율

(단위: %)

	탐사		수송관			정유	영업
	원유 생산량	천연가스 생산량	천연가스	원유	가공유	정유 기술	주유소 개수
중국석유천연가스 (中国石油天然气股份有限公司/ Petrochina)	53	68	75	63	47	30	20
중국석유화공 (中国石油化工集团公司/ Sinopec)	21	16	1	30	50	46	31
중국해양석유 (中国海洋石油总公司/ CNOOC)	15	6	24	7	3	5	0.3
합계	89	90	100	100	100	81	51

자료: 李毅(2014), p. 91.

2013년 중국 10대 기업 중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석유 부문 국유기업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중국석유화공과 중국석유천연가스인데, 3위 기업과의 격차도 상당히 크다. 또한 순수익 기준으로 2013년 중국 10대 기업에는 3대 석유 국유기업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 2013년 중국의 석유화학산업은 전년대비 8% 성장하여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 증가하였다. 원유생산량 또한 약 2억 톤으로 전년대비 1.65% 증가하였으며 원유 가공량 또한 4.79억 톤으로 전년대비 3.31% 증가하였다.⁸³⁾

83) 中国产业经济信息网(2014), <http://www.cinic.org.cn/site951/hangye/hyyw/2014-02-25/722042.shtml>(accessed on August 7, 2014).

표 5-7. 중국 매출액 및 순이익 기준 10대 기업

(단위: 억 위안)

순위	기업명	매출액	기업명	순이익
1	중국석유화공(Sinopec)	28,803	중국공상은행(ICBC)	2,626
2	중국석유천연가스(Petrochina)	22,581	중국건설은행(CCBC)	2,147
3	중국건축(CSCEC)	6,810	중국농업은행(ABC)	1,663
4	중국이동(China Mobile)	6,302	중국은행(BOC)	1,569
5	중국공상은행(ICBC)	5,896	중국석유천연가스(Petrochina)	1,296
6	중국철도건설(CRCC)	5,868	중국이동(China Mobile)	1,217
7	상하이자동차(SAIC Motor)	5,658	중국석유화공(Sinopec)	672
8	중국철도(China Railway Group)	5,604	교통은행 (Bank of Communications)	623
9	중국건설은행(CCBC)	5,086	중국해양석유화학(CNOOC)	565
10	중국농업은행(ABC)	4,626	초상은행(China Merchants Bank)	517

자료: Fortune China, www.fortunechina.com(accessed July 17, 2014)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석유기업 개혁과 M&A

중국 공업·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의 「2013년 석유화학산업경제 운영현황(2013年我國石油和化學工業運行情況)」에 따르면 중국의 석유화학산업은 생산 과잉, 설비 낙후, 생산 요소 가격 상승, 첨단기술 부재, 환경보호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최근 석유화학산업의 생산 과잉 현상이 점점 심화됨에 따라 원자재 활용 효율성이 저하되고 유가가 급락하고 있다. 2013년 원자재 활용 효율성은 기존의 60~80% 수준에 이르렀다.⁸⁴⁾ 더불어 각종 생산요소의 가격이 상승하여 기존의 유가 유지 또한 어렵게 되었다. 상류 부문으로 진출하기 위해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개발 투자액은 많으나, 그에 비해 낮은 응용력으로 인한 첨단기술 부재는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더욱 엄격해진 환경보호 기준에

84) Ibid.

따라 석유화학산업은 개발·투자 방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국면에 처해 있다. 따라서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개혁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 1998년 3월 중국 석유화학산업 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중국석유화공, 중국석유천연가스를 중심으로 재편하여 이들 기업만이 석유 수출입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다.⁸⁵⁾ 1999년 5월 국무원은 38호 문건⁸⁶⁾을 통해서 중국석유화공, 중국석유천연가스기업 이외의 독립적인 석유완제품 기업의 설립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그 후 2001년 9월에는 72호 문건에 의거하여,⁸⁷⁾ 상기 기업들은 대규모로 주유소를 건설하고 국내외에서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시작하였다.

2009년 중국석유화공은 당시 최대 규모인 약 73억 달러에 스위스의 Addax를 인수하여 나이지리아와 가봉의 석유 매장량 5억 배럴을 확보한 바 있다.⁸⁸⁾ 최근 중국석유화공의 해외인수합병 현황은 대규모는 아니나 안정적인 지분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⁸⁹⁾. 2013년에는 이집트의 아파치그룹의 지분 33%를 인수하였다.⁹⁰⁾

석유 국유기업들은 자원 확보, 수익 창출뿐 아니라 기술 이전을 통한 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중국해양석유는 캐나다 넥센을 인수

85) 석유협회(1999), 『중국석유산업 재편과 석유 공급』.

86) CNKI(1999), <http://www.cnki.com.cn/Article/CJFDTTotal-QHZB199905021.htm> (accessed September 12, 2014).

87) CNKI(2001), <http://www.cnki.com.cn/Article/CJFDTTotal-QHZB200109019.htm> (accessed September 12, 2014).

88) WSJ(2009), <http://blogs.wsj.com/deals/2009/06/24/sinopec-addax-the-dragon-flexes-its-deal-making-muscles/>(accessed October 12, 2014),

89) 혼합소유제 시행에 따라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90) Reuters(2013), <http://www.reuters.com/article/2013/08/30/us-apache-egypt-idUSBRE97T02720130830>(accessed October 12, 2014).

하여 상류 부문 개발 부문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중국석유천연가스 또한 2013년 이태리의 ENI와 모잠비크에 공동개발을 통한 기술 교류를 체결하였다.

1998년 석유화학산업 개편과 그 후 일련의 법률적 제약으로 쇠퇴했던 석유산업의 민영기업들은 새로운 발전 방향으로 해외 진출을 택했다. 지난 2년간 민영기업들이 국제원유의 지속적인 높은 가격, 개발 수익성을 고려하여 해외 석유광구 개발 M&A에 나서고 있다.

표 5-8. 민영기업의 해외 M&A 사례

(단위: %, 억 달러)

연도	회사명	지분 보유율	투자액	진행 상황
2011	광회에너지(广汇能源)	49	0.41	개발 초기
	광회에너지(广汇能源)	51	2.00	탐사 중
2012	해모기술(海默科技)	14.3	0.28	개발 초기
	통원석유(通源石油)	합작개발	0.03	탐사 중
2013	정화주식(正和股份)	95	5.11	개발 중
	미두주식(美都控股)	100	5.35	개발 중
	보모주식(宝莫股份)	51	0.20	탐사 전
	풍범주식(宝莫股份)	12	1.23 이하	탐사 중
	항태예보(恒泰艾普)	27.5	0.07	개발 초기
2014	보리리칭(宝利沥青)	17.4	0.06	개발 초기
	잠능항신(潜能恒信)	49	0.70	탐사 중
	금엽주옥(金叶珠宝)	100	6.65	개발 중
	광회석유(光汇石油)	40	10.75	개발 중
	인지유복(仁智油服)	51	0.88	개발 초기

자료: 中信证券研究部(2014b)

3) 향후 산업 재편 전망

중국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석유산업 국유기업을 다른 국가의 국영 석유공사와는 정치·경제적으로 다른 개념을 갖고 취급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의 국영 석유공사의 사례를 일부 적용해 보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영 석유공사의 개혁 방식에는 정치와 기업의 분리, 주주제 도입, 시장 경쟁 도입 등이 있다.⁹¹⁾ 18차 3중전회에서 제시된 ‘소유권과 경영권 분리’ 도입 추진은 정치와 기업 분리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의 석유화학산업 개혁은 국가가 관련 법률의 틀을 마련한 뒤에 위에서부터 개혁을 추진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또 다른 방식의 개혁은 주주제의 도입이다. 프랑스 TOTAL은 창립 초기 국유기업으로 분류되었으나 주주제 도입을 통해 개혁을 단행하였다.⁹²⁾ 프랑스 정부의 주식 보유 비중은 점점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경영진 임면권을 행사⁹³⁾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통제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도 유사한 모델을 통해서 국유경제의 통제력과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시장 논리에 따르는 개혁은 중국에 적용하는 어렵지만 공익성 투자를 강조한다면 일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노르웨이의 스타토일은 수익 대부분을 공공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다.⁹⁴⁾ 이는 18차 3중전회에서 발표한 국유기업 수익의 공공서비스 투자 확대라는 맥락에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91) 李毅, 施智染(2014a).

92) *Ibid.*

93) *Ibid.*

94) *Ibid.*

2009년 중국은 「석유화학산업조정, 진흥계획 세칙(石化産業調整和振興規劃細則)」⁹⁵⁾을 통해 2011년까지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정유 설비에 대한 정리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2013년 석유화학산업의 공급 과잉 및 낙후 설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가속하고자 하였다.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개혁은 2011년 푸청위⁹⁶⁾(傅成玉)가 중국석유화공의 회장으로 임명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1982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해양석유에서 경영진을 역임한 푸청위는 중국해양석유의 모델을 중국석유화공에 도입하여 개혁을 시도하였다. 2012년 8개의 공정 설계 및 건설 회사를 합병하여 중석화연화공정유한회사(重石化煉化工程股份有限公司)를 설립⁹⁷⁾하고, 석유공정기술서비스공사 및 윤활유서비스회사와 합병하여 홍콩증시에 상장⁹⁸⁾하였다.

2014년 2월 중국석유화공의 이사회는 사회 및 민영자본이 주식 투자에 참여하는 방식의 혼합소유제 도입 의사를 밝혔다. 민영 및 사회자본은 전체 지분의 30%까지 보유할 수 있고 그중 민영자본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중국석유화공은 51%의 지분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영 및 사회자본이 약 800억가량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혼합소유제 도입은 상류 부문과 하류 부문이 다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다.⁹⁹⁾ 그러나 민영

95) 中华人民共和国人民政府(2009), http://www.gov.cn/zwgk/2009-05/18/content_1317790.htm(accessed September 12, 2014).

96) 百度百科, “傅成玉”, <http://baike.baidu.com/view/58710.htm>(accessed October 13, 2014).

97) 中国石化, http://www.sinopecgroup.com/group/xwzx/gsyw/20120903/news_20120903_383890000000.shtml(accessed September 15, 2014).

98) 新华网(2013), http://news.xinhuanet.com/2013-05/23/c_124753153.htm(accessed September 15, 2014).

99) 李毅, 施智染(2014b).

기업은 기술력 및 자금 부족으로 기술 및 자본 집약적인 상류 부문(원유 탐사, 개발, 채굴 등 원유 생산 부문)에는 진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자기업의 경우, 높은 기술력과 풍부한 자금을 가지고 있지만 기술 평가 등이 어려우므로 하류 부문에 진입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국석유화공은 현재 자회사인 중국석화,¹⁰⁰⁾ 연화공정, 석유공정의 3개 부분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개혁 방안은 단독 상장 또는 구조조정 후에 민간 및 사회자본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된다.¹⁰¹⁾ 현재 석유산업의 반부패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지금이 석유 국영기업의 전면적인 개혁을 실시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일 수 있으나, 중국석유화공의 개혁 방안은 여전히 모호하다. 중국석유천연가스 직영주유소 2만 개, 또한 군대 및 다른 사회집단이 경영하는 주유소들이 5만 개가 있는 상황에서 중국석유화공¹⁰²⁾의 단독적인 민영자본 개방은 전체 시장에 대한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¹⁰³⁾

중국석유화공의 혼합소유제 전면 실시에 뒤이어 중국석유천연가스의 저우지핑(周吉平) 회장은 상류 부문 천연가스 개발의 개혁을 시작하여 하나의 회사 단위로 사회 및 민영자본을 개방할 계획을 내놓았다.¹⁰⁴⁾ 6개

100) 중국석화판매유한공사(中国石化销售有限公司)는 1985년에 설립되었으며 주로 중국석유화공주식회사(Sinopec)의 유류완제품(휘발유, 디젤, 등유)의 구매, 조달, 배송, 결산 등을 하며 중국 최대의 유류완제품을 제공하는 회사로 2013년 영업수익은 1.5조 위안이며 이윤은 251억 위안이다. 2014년 6월 30일까지 자본금 200억 위안이며 중국석유화공주식회사(Sinopec)의 모든 지분을 가지고 있다.

101) 李毅(2014).

102) 3만 개 주유소 보유

103) 李毅(2014).

104) *Ibid.*

표 5-9. 중국석유화학공주식회사(Sinopec) 개혁 방향

발표일자	개혁 방향
201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류품 판매업에 사회 및 민영자본을 개방하여 혼합 경영을 실현하겠다고 발표 - 유류품 서비스업의 현재 자산과 부채를 심의를 거쳐 구조조정을 통해서 증자방식을 통해서 사회 및 민영자본을 유치하여 혼합소유제를 실시 - 민영 및 사회자본의 비율이 30%를 초과하지 않겠다고 발표
2014.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회사인 중국석화판매유한공사(中国石化销售有限公司)를 구조조정하여 증자방식으로 민영 및 사회자본을 유치하겠다고 발표 - 2014년 4월 30일까지 판매유한공사의 총자산은 3417.58억 위안임. - 민영 및 사회자본의 비율을 30% 이상을 초과하지 않겠다고 발표 - 판매유한공사의 이윤율은 높고 자산회수율도 높은 편임. - 2013년 말까지 판매유한공사는 30351개의 주유소와 석유수송관 1만 킬로미터, 비축시설 1500만 입방미터임.

자료: 언론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항목의 플랫폼을 가지고 혼합소유제 개혁을 실시할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중국석유화학공주식회사(Sinopec)에 비해 개혁안이 구체적이지 않다. 그러나 중국석유천연가스 역시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할 예정이다.¹⁰⁵⁾ 중국 해양석유 또한 2014년 전면적인 개혁심화를 위한 소조를 설립하였으며 합자방식을 통해 2014년까지 현재 400개에서 8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⁰⁶⁾

나. 자동차 산업

1) 산업 현황과 특징

중국은 2009년부터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에 있어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다. 2013년 현재 중국의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2,212만 대와 2,198만 대로 2위인 미국의 1,104만 대, 1,588만 대에 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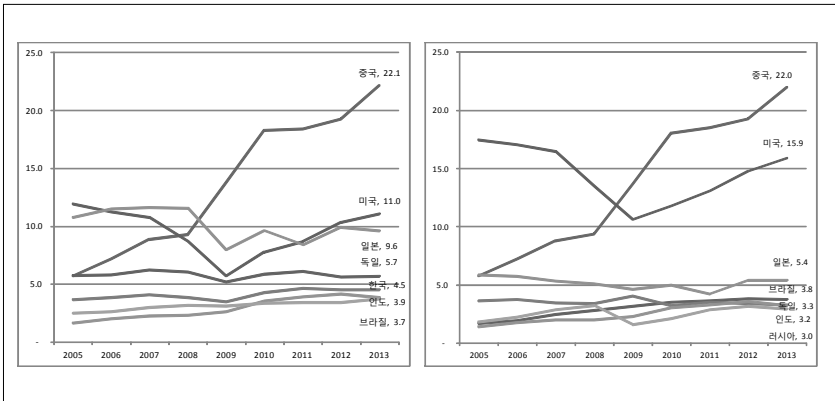
105) Ibid.

106) Ibid.

앞서고 있다. 전 세계에서 중국의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 비중은 2013년 25.3%와 25.7%로 명실공히 세계 최대의 자동차 생산국이자 시장이다.

그림 5-2. 주요국 자동차 생산량(左) 및 판매량(右)

(단위: 백만 대)



자료: 세계자동차산업협회 홈페이지, <http://www.OICA.net>(accessed September 30,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산업은 중국에서 구조조정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그 원인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생산 설비의 과잉이고 둘째는 생산 업체의 난립이다. [표 5-10]에서 나타나듯, 중국에서 자동차 생산량이 판매량을 초과하는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9년 이후 2013년까지 판매량과 생산량의 연평균이 증가율이 19.7%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연도별로 생산량이 판매량을 초과한 경우가 15년 중 8년에 걸쳐 나타났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는 초과 생산량 규모가 20만 대를 넘기도 했으며, 2013년에는 초과 생산량이 13만 대를 기록했다.

표 5-10.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 및 생산량 추이

(단위: 대)

연도	판매량	증가율	생산량	증가율	판매량-생산량
1999	1,836,635	15%	1,831,596	13%	5,039
2000	2,091,305	14%	2,068,186	13%	23,119
2001	2,363,217	13%	2,341,528	13%	21,689
2002	3,224,911	36%	3,253,655	39%	-28,744
2003	4,397,049	36%	4,443,491	37%	-46,442
2004	5,068,242	15%	5,070,452	14%	-2,210
2005	5,777,719	14%	5,707,688	13%	70,031
2006	7,221,396	25%	7,279,726	28%	-58,330
2007	8,791,528	22%	8,882,456	22%	-90,928
2008	9,385,290	7%	9,345,101	5%	40,189
2009	13,644,794	45%	13,790,994	48%	-146,200
2010	18,061,936	32%	18,264,667	32%	-202,731
2011	18,505,114	2%	18,418,876	1%	86,238
2012	19,306,435	4%	19,271,808	5%	34,627
2013	21,984,079	14%	22,116,825	15%	-132,746
평균		19.7%		19.7%	

자료: CEIC.

자동차 업계의 구조조정 필요성은 [표 5-11]를 통하여 읽을 수 있다. 여기에는 CEIC에 나타난 27개 주요 업체들의 생산량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3년 총 생산량의 97.7%를 커버한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집중도(CR)를 계산했다. 이에 따르면 '13년 상위 5개 업체의 집중도는 72.0%이며 상위 10개 업체는 88.0%이다. 또한 산업집중도는 대체로 높아지고 있다. 상위 5개로 보면, 2005년 67.0%에서 2013년 72.0%으로 높아졌으며, 상위 10개로 보면, 같은 기간 77.7%에서 88.0%으로 높아졌다. 참고로, 제 12차 5개년 계획상의 목표에 따르면 2015년까지 상위 10개 기업의 생산량 비중을 90%까지 높이기로 되어 있다. 2013년까지의 추세로 보면 거의

근접한 셈이다.

그러나 하위 17개 업체의 생산비중이 1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업체들의 진출입이 여전히 혼란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2005년 이후의 상황에 국한하여 살펴보면, 기존에 생산량이 있던 6개 업체의 생산량이 2013년에는 없어졌다. 즉 구조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한 것으로 짐작된다. 반면, 力帆·江南·金龍·陝汽·慶鈴·中興 6개 업체는 2005년에 없었지만, 새로 등장하여 생산을 하고 있다.

한편 생산량 8위부터 13위 사이에 민영업체들이 포진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된다. 비록 상위 7개 국유기업의 생산량 점유율이 80%에 이르지만, 長城·奇瑞·比亞迪·吉利·力帆와 같은 민영기업들이 1~3%의 비중을 가지고 생산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들 민영기업은 초거대 국유기업과는 상대가 되지 않지만, 다수의 성급(省級) 국유기업을 앞서나가고 있다.

표 5-11. 상위 27개 자동차 업체 생산량 점유율 및 산업집중도

		上汽	东风	第一	长安	北汽	广汽	华晨	长城	奇瑞	比亚迪	吉利	江淮	力帆	江南	重汽	金龙	陕汽	庆铃	东南	哈飞	昌河	跃进	凯马	华泰	南骏	唐骏	中兴				
		(단위: %)																														
05	16.0	12.7	17.1	11.0	10.4	4.1	2.1	1.1	3.3	0.0	2.6	2.7	0.0	0.0	0.3	0.0	0.0	0.0	0.0	1.0	4.0	2.1	0.1	0.0	0.0	0.0	0.0	0.0	0.0			
06	17.1	13.0	16.2	9.9	9.5	4.6	2.9	1.0	4.2	0.5	2.8	2.3	0.0	0.6	0.0	0.0	0.0	0.0	0.0	0.0	3.7	1.6	0.0	0.0	0.0	0.0	0.0	0.0	0.0	0.0		
07	17.5	12.9	16.3	9.8	7.9	5.8	3.1	1.4	4.3	1.1	2.5	2.4	0.0	0.0	1.1	0.0	0.0	0.0	0.0	2.8	1.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8	18.0	14.1	16.4	9.2	8.2	5.6	2.6	1.4	3.8	1.8	2.4	2.2	0.0	0.0	1.2	0.0	0.0	0.0	0.0	2.4	1.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9	19.9	13.9	14.3	11.0	9.1	4.5	2.6	1.7	3.7	3.3	2.4	2.4	0.0	0.0	0.9	0.0	0.2	0.0	0.2	1.4	0.7	0.0	0.8	0.0	0.0	0.0	0.0	0.0	0.0	0.0		
10	19.7	14.7	14.2	13.2	8.3	4.0	2.8	2.2	3.8	2.9	2.3	2.5	0.6	0.5	1.1	0.0	0.6	0.0	0.5	0.0	0.0	0.0	0.0	0.3	0.1	0.1	0.0	0.0	0.0	0.0		
11	21.4	16.5	14.0	10.8	8.3	4.0	3.0	2.6	3.5	2.4	2.3	2.7	1.1	0.7	0.9	0.3	0.6	0.5	0.6	0.0	0.0	0.0	0.0	0.0	0.2	0.4	0.1	0.2	0.0	0.0		
12	23.1	15.9	13.7	10.1	8.8	3.7	3.3	3.2	2.9	2.4	2.5	2.5	1.4	0.6	0.7	0.3	0.5	0.5	0.6	0.0	0.0	0.0	0.0	0.0	0.0	0.2	0.3	0.3	0.0	0.0		
13	23.1	16.1	13.2	10.2	9.4	4.6	3.5	3.4	2.1	2.3	2.5	2.3	1.1	0.6	0.8	0.4	0.5	0.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3	0.3	0.0		
C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05	16.0	28.6	45.7	56.7	67.0	71.2	73.3	74.4	77.7	80.3	83.0	83.0	83.4	83.4	83.4	83.4	83.4	83.4	83.4	84.4	88.4	90.5	90.6	90.6	90.6	90.6	90.6	90.6	90.6	90.6	90.6	
06	17.1	30.1	46.3	56.2	65.7	70.3	73.2	74.1	78.3	78.8	81.7	84.0	84.0	84.0	84.6	84.6	84.6	84.6	84.6	84.6	84.6	88.3	89.8	89.8	89.8	89.8	89.8	89.8	89.8	89.8	89.8	89.8
07	17.5	30.5	46.8	56.6	64.5	70.3	73.4	74.8	79.1	80.3	82.8	85.1	85.1	85.1	85.1	86.3	86.3	86.3	86.3	86.3	86.3	89.1	90.3	90.3	90.3	90.3	90.3	90.3	90.3	90.3	90.3	90.3
08	18.0	32.1	48.5	57.7	66.0	71.6	74.2	75.5	79.3	81.1	83.5	85.7	85.7	85.7	86.9	86.9	86.9	86.9	86.9	86.9	86.9	89.3	90.5	90.5	90.5	90.5	90.5	90.5	90.5	90.5	90.5	90.5
09	19.9	33.8	48.1	59.1	68.2	72.7	75.2	76.9	80.6	83.8	86.3	86.6	88.6	88.6	89.5	89.5	89.5	89.5	89.5	89.5	89.5	91.4	92.1	92.1	92.8	92.8	92.8	92.8	92.8	92.8	92.8	92.8
10	19.7	34.4	48.6	61.7	70.0	74.0	76.8	79.0	82.8	85.7	88.0	90.5	91.1	91.6	92.8	92.8	93.3	93.4	93.9	93.9	93.9	93.9	93.9	93.9	94.2	94.3	94.4	94.4	94.4	94.4	94.4	94.4
11	21.4	37.9	51.9	62.8	71.0	75.1	78.1	80.7	84.2	86.6	88.9	91.6	92.7	93.4	94.3	94.5	95.2	95.7	96.3	96.3	96.3	96.3	96.3	96.3	96.3	96.3	96.5	96.8	96.9	97.1	97.1	97.1
12	23.1	39.1	52.8	62.9	71.7	75.3	78.7	81.9	84.8	87.2	89.7	92.2	93.6	94.3	95.0	95.3	95.8	96.2	96.8	96.8	96.8	96.8	96.8	96.8	96.8	96.8	96.8	96.8	97.0	97.3	97.6	97.6
13	23.1	39.2	52.4	62.6	72.0	76.6	80.1	83.6	85.7	88.0	90.5	92.8	94.0	94.6	95.3	95.7	96.2	96.5	97.1	97.1	97.1	97.1	97.1	97.1	97.1	97.1	97.1	97.1	97.4	97.7	97.7	97.7

자료: OEC를 참조하여 저자 정리.

2) 최근의 구조조정 정책

여기에서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중국의 최근 구조조정 정책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시점부터 개괄하고자 한다. 2009년 1월, 중국은 경기부양책으로 10대 산업 진흥계획을 발표했고, 자동차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 경기부양 정책 때문에 전부터 강조해온 구조조정 방침을 소홀히 할 수 없으므로, 중국정부는 3월 업종별 구조조정 세칙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발표된 것이 ‘자동차산업 조정 및 진흥 계획 세칙’¹⁰⁷⁾이다. 여기에는 ‘4대4소’¹⁰⁸⁾라는 업체 숫자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고, 이들을 중심으로 업계를 재편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한편 이 세칙은 M&A를 통해 대기업 위주의 육성을 하겠다는 방침이 담겨 있으면서도 치뤄이(奇瑞)와 같은 민영기업도 중점 육성기업에 포함하고 있다.

이어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의 업종별 세부 계획으로 2011년 말 제조업 업그레이드 계획(2011~2015년)¹⁰⁹⁾이 발표됐다. 2009년의 세칙과 달리 구체적이 업체명은 담겨 있지 않지만, 산업집중도 제고·신에너지 자동차 개발·자동차와 IT 기술과의 융·복합 등의 기본 방향이 담겨 있다. 특히 앞서 언급했듯이, 2015년까지 10대 업체의 생산량 비중을 90%까지 높인다는 목표가 제시됐고, 실제로 그 목표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7) 汽车租赁网(2009) 汽车产业调整和振兴规划细则公布, <http://news.eooioo.com/20090321/917437.html>(accessed September 23, 2014).

108) 4大: 상하이(上汽), 제일(第一), 동평(东风), 창안(长安), 4小: 베이징(北汽), 광저우(广汽), 치뤄이(奇瑞), 중치(重汽).

109) 中华人民共和国人民政府(2011), 国务院关于印发工业转型升级规划(2011~2015年)的通知. http://www.gov.cn/xxgk/pub/govpublic/mrlm/201201/t20120119_64732.html(accessed September 30, 2014).

2013년 1월에는 자동차, 철강, 조선, IT 등 9대 산업 분야에 대한 구조 재편안¹¹⁰⁾이 발표되었다. 여기에 나타난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안 중 특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까지 상위 10대 기업의 집중도를 90%로 높인다는 계획이 재확인됐다. 이와 함께 3~5개의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집단을 육성한다는 방침도 명문화됐다. 둘째, 부품기업 역시 합병을 통한 거대화를 추진하며 완성차 업체와의 전략적인 연합을 도모한다. 셋째, 금융과 정보통신 등 자동차 서비스 부문의 발전을 도모한다. 넷째, 자동차 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한다.

3) 평가와 전망

2009년 이후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정책은 상당히 일관적으로 산업 집중도 제고와 대형기업 육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의 세척에서 언급한 ‘4대4소’ 기업이 실제로 그것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5-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4대 기업 중 상하이자동차가 1위 자리를 갈수록 굳히고, 동평자동차가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중이지만, 제일자동차와 장안자동차는 생산량 비중이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다. 4소 기업인 베이징자동차와 광저우자동차, 치루이 등도 의미 있는 생산량 비중 확대를 실현하고 있다고 말하기 힘들다. 즉, 2015년까지 상위 10대 기업 집중도 제고 목표는 거의 상하이자동차와 동평자동차라는 양대 거인과 정부가 간과했던 비야디(比亞迪)와 창청(長城)에 의해 달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리하면, 대형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에서 모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

110) 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2013), <http://www.miit.gov.cn/n11293472/n11293832/n15216906/n15217002/15218043.html>(accessed September 23, 2014).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소유제 기업이 더 우세하다든가, 어느 규모의 기업이 더 우세하다든가를 말하기 어려우며, 국유기업 중에서도 우세한 기업과 밀리는 기업이 엇갈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에서도 우세한 기업과 열세한 기업이 엇갈리고 있는 복잡한 업계의 다이내믹스가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즉, 표면적으로는 2015년까지 상위 10대 기업 90%라는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보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의도한 것과 상당히 다른 양상이 될 수 있다. 정부의 명시적인 지원보다 업계의 경쟁력 구도가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군소업체도 그리 쉽게 정리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위 17개 기업은 거의 모두 지방 국유기업들이다. 정리와 통폐합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들이 중앙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명을 하고 있는 상황임을 앞에서 확인한 바 있다. 2009년 이후 중앙정부의 반복되는 호소가 지방에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된다. 이렇듯 지방정부와 유착한 국유기업의 폐해는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으나 이를 극복할 방법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2015년에 표면적인 목표 달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 소매업

1) 소매업의 현황 및 특징

중국의 소매업은 최근 들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최근 들어 중국의 소매시장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왔다는 것이다. 중국국가통계국에 의하면, 과거 10년 동안 사회소비재 소매총액(명목 기준)은 약 4.5배 성장하였다. 즉 2003년에 사회소비재 소매총액은 약 52,516억 위안이었는데, 2013년에

는 무려 약 237,810억 위안으로 증가되면서 연평균 약 16.3%의 속도로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2014년 상반기에는 12.1%의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과거 10년 동안의 평균성장률보다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2014년 들어오면서 중국경제의 성장감속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는 한편, 성장률 감속은 중국의 소매업 기업은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소매시장의 유통방식의 다양화를 들 수 있다. 프랜차이즈 체인 형태의 유통방식이 중국시장에서 활성화되면서 백화점, 전문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과 함께 유통 유형이 다양화해지고 있다. 연해 지역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프랜차이즈 체인점이 발달하였지만, 최근 들어 성장세는 완만해지고 있다. 중국체인경영협회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의하면, 100대 프랜차이즈 체인기업의 소매판매액 성장률은 2010년에 21%에서 2013년에는 9.9%로 하락하고 있는데, 동 협회는 체인 유통업계의 급성장세가 주춤하면서, 안정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¹¹¹⁾

셋째, 전통적인 소매시장과 달리 온라인 소매업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시장 조사 기관에 의하면, 중국의 온라인 소매업 시장은 2013년에 39.4% 성장하여 세계 최대의 온라인 시장으로 발전하였으며, 전체 소매업에서 7.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전체 소매업의 12.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¹¹²⁾

특히 중국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한 형태인 O2O(online to offline)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2013년에 중국

111) 中国连锁经营协会(2014).

112) Fung Business Intelligence Centre(2014), pp. 5-6.

의 O2O 시장 규모는 1,700억 위안으로 79% 성장하였으며, 이 중에서 요식업 규모는 58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74% 증가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¹¹³⁾

2) M&A와 국유기업 개혁

최근 중국의 소매업과 관련하여 핫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M&A와 국유기업 개혁이다. 두 가지 이슈에 대하여 차례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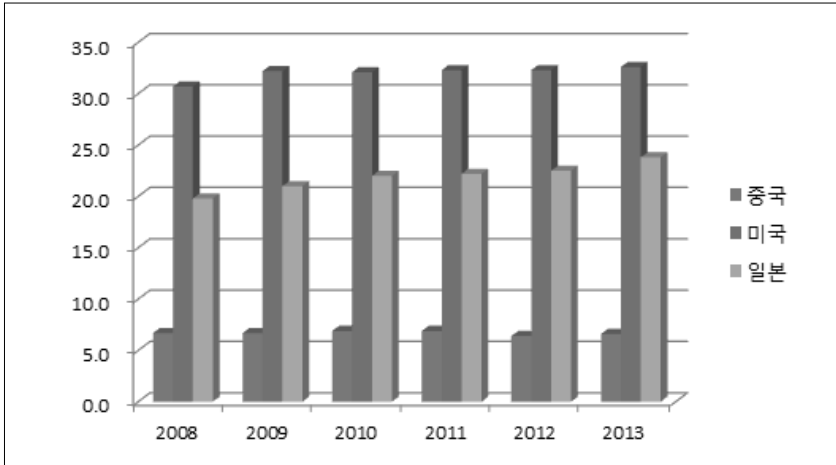
먼저 향후 몇 년에 걸쳐 중국의 소매시장에서 M&A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¹¹⁴⁾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중국에서 소매업(온라인이 아닌 전통적인 소매업을 의미)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은 대체로 지리적으로 분할되어 있고, 비교적 규모가 크지 않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소매업의 산업집중도를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중국에서 공개된 경제통계만을 갖고 산업집중도를 계산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은데, 최근 中信証券研究部은 Euromonitor의 자료를 이용하여 중국 소매업의 산업집중도를 산출하였는데, 이를 재인용하면 다음과 같다.¹¹⁵⁾

113) 차이나윈도우(2014), 『중국의 O2O 산업』(4. 28).

114) Fung Business Intelligence Centre(2014), pp.32~35; 中信証券研究部(2014a).

115) 中信証券研究部(2014a), p. 1.

그림 5-3. 소매업 산업집중도 비교(중국, 미국 및 일본)



자료: 中信証券研究部(2014a)에서 재인용. 산업집중도는 CR₁₀을 의미.

2013년 기준으로 중국의 소매기업 중에서 상위 10개 기업의 시장점유율(CR₁₀)은 6.6%에 불과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경우 각각 32.6% 및 23.8%로서 중국의 산업집중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자료에 의하면 슈퍼마켓 및 백화점 업종에서의 산업집중도 격차는 더욱 크다. 슈퍼마켓 업종에서는 2013년 기준으로 중국의 CR₁₀은 18%에 불과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각각 78%, 38%를 보여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2013년에 백화점 업종의 경우에도 중국의 CR₁₀은 7.9%, 미국과 일본은 52.6%, 49.3%로서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매업종에서 M&A는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기업 성장을 가속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채용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13년에 중국의 소매업에서 36건의 M&A가 성사되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44%가

증가한 것이다.¹¹⁶⁾ 마찬가지로 특히 산업집중도가 비교적 낮은 중국의 슈퍼마켓 및 백화점 업종에서는 향후에도 M&A가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국유기업의 개혁 역시 중국의 소매업종 분야에서 향후 산업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정부는 2013년의 3중전회에서 시장이 자원의 배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국유기업의 개혁을 실제로 실행 과정에는 있어서는 많은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국유기업 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경쟁이 심한 산업 부문에서 경영효율이 낮은 국유기업이 생존하기가 비교적 어려울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소매업 부문 역시 국유기업의 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산업으로 볼 수 있다.

3) 향후 산업 개편 전망

중장기적으로 보면, 인구보너스를 더는 누릴 수 없게 되면서 중국경제의 성장 감속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최근 10여년 동안 고속 성장을 구가하였던 중국의 소매시장은 구조조정 혹은 산업 개편의 대세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중장기적인 요인 이외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M&A 및 국유기업 개혁이 실제로 진행된다면 중국의 소매업 산업은 더욱 건전하게 발전하는 토대를 갖게 될 것이다.

향후 산업 개편의 방향을 전망해 보면, 중국의 소매업은 더욱 효율적인 기업들만이 생존하는 시장으로 변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M&A

116) Fung Business Intelligence Centre(2014), p. 32.

등을 통해서 이들 기업들의 산업 집중도 역시 상승하게 될 것이다. 국유 기업의 개혁이 만약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 역시 M&A 추세와 맞물려서 산업 개편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백화점,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등 여러 유형의 소매업은 각각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여 산업 개편을 전망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다만 중국시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전망을 내리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우선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어서 향후 산업지형은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O2O(online to offline)의 성장에 따라서 온라인 유통업체와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M&A도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유기업의 개혁은 과거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완전한 민영화 방식보다는 국유기업이 소매유통 분야 중에서 비효율적인 사업 분야를 정리하는 형식을 취할 가능성도 있고,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비즈니스 기회를 잘 살리면 M&A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

한편, M&A 추세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외국기업이 중국 소매시장에서 직면하는 사업 환경이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소매업에서는 지역적인 기반을 무시할 수 없으며, 지역의 문화, 요구 사항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업이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중국의 소매유통기업이 이미 진출한 외국기업을 타깃으로 삼는 M&A가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¹¹⁷⁾

117) Fung Business Intelligence Centre(2014), p. 32.

라. 철강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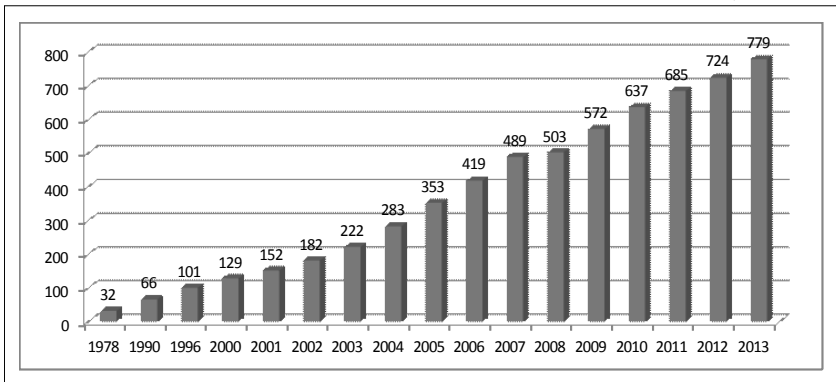
1) 현황

1978년까지만 해도 중국은 세계 제5위의 철강 생산국으로 중국의 철강 생산(조강 생산 기준) 규모는 3,200만 톤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 추진, 정부의 철강 산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1990년대 이후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1996년 1억 톤을 넘어서며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으로 부상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도 경제 고성장세와 맞물려, 전 세계 철강생산량 증가율을 압도하는 고속 신장세를 지속함에 따라 중국은 철강 생산 대국의 위상을 확고히 굳혔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7억 7,900만 톤으로 1978년에 비해 무려 2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 세계 철강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8.5%에 달한다. 또한 이는 세계

그림 5-4. 중국의 철강 생산량 추이

(단위: 백만 톤)



자료: 中国统计摘要(2014), p. 116.

제2위 일본의 철강 생산량(1억 1,000만 톤)의 약 7배의 규모에 해당한다. 한편, 중국은 2006년 철강 순수출국으로 전환하면서 세계 최대의 철강수출국으로 등극하였다. 2013년 중국의 철강수출 및 수입은 각각 6,150만 톤, 1,480만 톤을 기록한바, 중국은 세계 제2위 철강 수출국인 일본(4,250만 톤 수출)에 앞선 세계 최대 철강수출국이며, 세계 제7위의 철강 수입국이 되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철강산업의 강세는 세계 주요 철강기업 순위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철강생산 기준 세계 10대 철강기업 중 아르셀로미탈(룩셈부르크), 신일본제철-스미토모금속, JFE(일본), 포스코(한국)를 제외한 6개 업체가 중국 철강기업이다. 세계 10대 철강기업에 포함된 6개의 중국 철강업체 중 사강그룹만이 유일한 민영 철강사(중국 최대 민영 철강업체)이며 허베이강철, 바오강, 우한강철, 안강, 쇼우강은 모두 국유기업이다.

표 5-12. 세계 10대 철강기업 현황

(단위: 백만 톤)

순위	기업 이름	국적	생산량
1	ArcelorMittal(아르셀로미탈)	룩셈부르크	96.1
2	NSSMC(신일본제철-스미토모금속)	일본	50.1
3	Hebei Steel Group(허베이강철)	중국(허베이성)	45.8
4	Baosteel Group(바오강)	중국(상하이)	43.9
5	Wuhan Steel Group(우한강철)	중국(후베이성)	39.3
6	POSCO	한국	38.4
7	Shagang Group(사강그룹)	중국(장쑤성)	35.1
8	Ansteel Group(안강)	중국(랴오닝성)	33.7
9	Shougang Group(쇼우강)	중국(베이징)	31.5
10	JFE	일본	31.2

자료: World Steel Association(2014), p. 8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2) 중국 철강 산업의 문제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 후반 이후 철강 산업의 급속한 성장세에 힘입어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최대 수출국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철강산업 급성장의 부산물인 과잉생산은 중국 철강산업이 직면한 최대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철강은 시멘트, 석탄, 전기알루미늄, 조선, 평판유리 등과 더불어 중국의 대표적인 생산 과잉 업종으로 꼽힌다.

중국 철강산업의 과잉생산 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2억 7,100만 톤에 달하며, 설비 가동률은 74%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는데, 과잉생산 문제는 특히 대형 국유철강기업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¹¹⁸⁾ 대체로 중국의 대형 국유철강기업은 허베이, 장쑤, 랴오닝, 후베이, 베이징, 상하이 등에 지역적 기반을 두고 있다. 해당 지방정부는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 및 세수 확보를 위해 막대한 보조금 및 지원정책을 공여하였고, 이는 철강기업의 과잉생산을 야기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철강산업의 생산과잉은 철강 제품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결국 철강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철강업계의 수익은 2011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2014년 1/4분기 중국철강협회 회원사들의 총 영업손실은 23억 위안인바, 전체 회원사의 45%가 영업손실을 겪고 있다.¹¹⁹⁾ 중국 철강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중국 철강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일부 기업의 도산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내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산시성

118) National Australian Bank(2014), p. 2.

119) *Ibid.*

최대 민영철강업체인 하이신 철강이 2014년 3월 초 만기가 도래한 30억 위안의 은행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 철강산업은 최근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대기오염의 주범으로도 꼽힌다. 철강산업은 이산화탄소와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고 에너지 소모량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 환경보호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중국의 10대 대기오염 도시 가운데 7개가 허베이성에 소재하고 있으며, 특히 1위부터 6위까지 모두 허베이성 소재 도시가 차지하고 있다.¹²⁰⁾ 이와 같이 허베이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중국 철강 생산의 약 25%를 차지하는 최대 철강산지이기도 하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중국의 대기오염과 철강 생산의 관련성은 매우 깊은 것으로 추정된다.

3) 산업 재편 및 구조조정 방향

최근 중국은 양적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질적인 성장으로 성장 방식을 전환하기 위해 전면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생산과잉, 에너지 고소모 및 환경 문제 유발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가속하려는 정책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중국정부는 대표적인 생산과잉 업종의 하나인 철강 산업에 대해서도 과잉생산 현상을 해소하고, 자국 철강업체들의 경쟁력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철강 산업 구조조정 추진 방향과 윤곽은 ‘철강산업 12차 5개년 계획(2011년 11월)’에서 잘 드러난다. ‘철강산업 12차 5개년 계획’

120) National Australian Bank(2014), p. 3.

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정부가 철강산업의 발전 방식을 외형성장에서 구조조정과 기술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철강재의 품질 제고와 환경보호를 도모하고, 대형 국유 철강사를 중심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함으로써 산업집중도를 향상시킨다는 것이 ‘철강산업 12차 5개년 계획’의 골자다. ‘철강산업 12차 5개년 계획’ 발표를 계기로 중국정부는 철강산업 재편과 구조조정 계획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표 5-13. 중국정부의 철강산업 구조조정 계획 주요 내용

시기	발표 기관	주요 내용
2011.11	공업정보화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 산업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 - 외형 성장에서 구조조정과 기술 혁신으로 철강산업 발전 방식 전환 - 조강 생산 능력의 계획적 증가, 동부 연안 신규 공장 설립 제한 - 대형 국유철강사(바오강, 안강, 우한강철, 소우강) 중심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하여 3~5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 형성 - 철강기업 수를 대폭 축소하여 전국 총 생산량 중 상위 10대 철강그룹의 비중을 48.6%에서 60%로 확대 - 철강재 품질 향상
2013.10	공업정보화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5대 방안 - 생산능력 제한을 통한 과잉 문제 해소 - 중점 지역에 대한 구조조정 - 철강업계 규범 관리 강화 - 상품 질량에 대한 기준치 마련 -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등을 고려한 진보된 기술 촉진
2014.3	전국인민대표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력 없는 설비 폐쇄 목표 제시 - 2014년 2,700만 톤, 2017년까지 1억 톤 규모의 설비 폐쇄
2014.5	공업정보화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설비와 과잉 생산 능력 도태 목표 제시 - 제선 1,900만 톤, 제강 2,870만 톤
2014.7	공업정보화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설비 및 과잉 설비 도태 해당 기업 발표 - 도태 대상 설비: 제선 2,541만 톤, 제강 2,146만 톤 - 해당 기업: 제선 44개, 제강 30개 - 12차 5개년 계획의 노후 설비 도태 목표를 1년 앞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시행 강도를 강화한다고 밝힘.

자료: 최문선·김진우(2011, p. 1); 이길호(2014, p. 4); 변종만·차동수(2014, p. 1); 한국무역협회 상해지부(2014, p. 11)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특히 시진핑 신정부는 2014년 들어 3월 양회와 5월, 7월에 걸쳐 과잉 생산 억제를 위한 설비 폐쇄, 노후 설비 도태 목표 등을 주요 내용으로 고강도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였다(표 5-13 참고). 이를 보면 시진핑 지도부가 과거와 달리 노후 설비·과잉 설비 폐쇄 및 도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철강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를 강도 높게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이러한 철강산업 구조개혁은 대형 국유철강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철강산업 구조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철강산업 12차 5개년 계획’에 제시된 바와 같이 바오강, 안강, 우한강철, 쇼우강 등 대형 국유철강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M&A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소형 기업이나 수익성이 낮은 철강업체들의 도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난립구조를 보이고 있는 중국 철강업체 수는 크게 줄어들고 거대 국유 철강기업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유 철강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짐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위험 업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민간의 참여를 허용할 수도 있다. 비교적 참여 자본 규모가 큰 경우에는 민영기업 또는 해외자본의 참여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중국의 철강산업 구조조정 및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정부의 정책 의지가 과거에 비해 강한 것이 사실이나,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도 상존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와 일부 철강업체가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이들은 고용 및 세수 등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철강산업의 중요

성을 근거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추진을 꺼리고 있다.¹²¹⁾ 또한 일부 수익성이 약한 업체들의 경우 당장 인수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일단 생산 설비 투자를 확대해 놓고 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¹²²⁾ 이는 철강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그 실효성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마. 조선산업

1) 현황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전략산업으로 조선산업을 육성하면서 2013년 기준으로 선박 인도량, 신규 수주량, 수주 잔량 등 모든 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5-14에서 보면, 2013년 중국의 신규 수주량은 1,991CGT로 한국의 1,608CGT보다 383CGT 이상을 앞서며 전 세계 신규 수주량 총액의 40.9%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선박 인도량, 수주 잔량의 지표에서도 한국을 넘어서고 있다. 중국의 선박 인도량은 2005년에는 한국의 절반 정도의 수준이었으나, 2010년 금융위기 때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정책으로 인해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한국을 넘어서게 되었다.

중국의 중앙 국유기업들은 대련, 칭다오 등 북쪽 지역을 담당하는 중국선박중공업집단공사(中國船舶重工業集團, CSIC)와 상하이, 광저우 등 남쪽 지역을 담당하는 중국선박공업집단공사(中國船舶工業集團, CSSC) 등에 대부분 속해 있다. 중국선박중공업집단공사(CSIC)는 46개의 공업기

121) National Australian Bank(2014), p. 3.

122) 김창호(2013), p. 26.

표 5-14. 조선산업의 한·중·일 비교(2013년)

지표/국가		전세계	중국	한국	일본
선박 인도량	재화중량톤수(DWT) ¹²³⁾	10,757	4,335	3,336	2,468
	비중	(100)	(40.3)	(31.0)	(22.9)
	수정총톤(CGT) ¹²⁴⁾	3,657	1,288	1,252	684
	비중	(100)	(35.2)	(34.2)	(18.7)
신규 수주량	재화중량톤수(DWT)	14,477	6,884	4,419	2,260
	비중	(100)	(47.6)	(30.5)	(15.6)
	수정총톤(CGT)	4,866	1,991	1,608	719
	비중	(100)	(40.9)	(33.0)	(14.8)
수주 잔량	재화중량톤수(DWT)	28,430	13,010	7,641	5,443
	비중	(100)	(45.8)	(26.9)	(19.1)
	수정총톤(CGT)	10,387	3,995	3,203	1,599
	비중	(100)	(38.5)	(30.8)	(15.4)

자료: 중국조선공업산업협회(中国船舶工业协会) 홈페이지(www.cansi.org.cn); Clarkson(2012)을 참조하여 저자작성.

업, 28개의 연구소, 직원 14만 명, 총자산은 1,900억 위안이다. CSIC에는 大連船舶重工集團有限公司(Dalian Shipbuilding), 渤海船舶重工有限責任公司(Bohai Shipbuilding), 武昌造船廠(Wuchang Shipbuilding), 山海關船舶重工有限責任公司(Shanhaiguan Shipbuilding), 青島北海船舶重工有限責任公司(Qingdao Beihai shipbuilding) 등이 속해 있다. 한편 중국선박공업집단공사(CSSC)에는 2013년 말 기준으로 조선기업, 연구소 등 약 50개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의 상장회사를 가지고 있다.

중국 조선산업에서 민영기업들은 쟁수, 저장성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중국 최대 민영 조선소인 쟁수룽성중공업(江蘇熔盛重工有限公司)은 2014년 9월 7일에 정부로부

123) DWT: Deadweight.

124) Compesated Gross Tonnage: 표준화물선으로 환산한 수정총톤.

터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쌍수룡성중공업은 공격적인 경영과 무리한 해외 진출로 인하여 재무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으며, 결국 매각대상으로 시장에 나오게 되었다.

중국의 10대 조선소는 건조량 및 수주 잔량에 따라 다르지만, [표 5-15]와 같이 2012년 수주 잔량 순위는 다음과 같다. 10대 기업 중에서 국유기업이 5개, 지방기업이 4개, 외자기업이 1개를 차지하고 있다. 1위를 차지한 쌍수룡성중공업은 상술한 바와 같이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2014년 9월 기준으로 매각 대상이다.

표 5-15. 중국 조선소 순위(수주 잔량 기준, 2012년)

	조선소 명칭	소속	m,CGT
1	Jiangsu RongSheng(江苏熔盛重工有限公司)	지방기업	2,39
2	STX Dalian(stx 大连造船有限公司)	외자기업	1,96
3	Dalian Shipbuilding(大连船舶重工集团有限公司)	국유기업(CSIC)	1,78
4	Hudong Zhonghua(沪东中华造船(集团)有限公司)	국유기업(CSSC)	1,72
5	Jiangsu New YZJ	지방기업	1,63
6	Shanghai Waigaoqiao(上海外高桥造船有限公司)	국유기업(CSSC)	1,61
7	Jiangnan Changxing(上海江南长兴重工有限责任公司)	국유기업(CSSC)	0,93
8	Jinhai Heavy Ind(金海重工股份有限公司)	지방기업	0,83
9	Shanghai S,Y	국유기업(CSSC)	0,78
10	Zhejiang Yangfan	지방기업	0,68
	상위 10개사		14,31
	총합계		33,13

자료: Clarkson World Shipyard Monitor(2012).

표 5-16. 선박 종류에 따른 수주 잔량(2012년)

(단위: DWT)

구 분	산적화물선 (Bulk carrier)	유조선 (Tanker)	Containership	기타	합계	국내 주문율(%)
CSIC	5,95	5,99	2,08	0,08	14,11	61,45%
CSSC	13,91	8,25	3,57	2,09	27,81	32,18%
외자기업	7,11	0,56	1,49	0,31	9,48	4,64%
합자기업	1,65	0,06	1,00	0,30	3,00	54,67%
지방기업	36,35	9,61	4,47	3,42	53,85	31,33%
합계	64,96	24,47	12,61	6,20	108,25	33,78%

자료: Crakson World Shipyard Monitor(2012).

2) 중국 조선산업의 문제점과 M&A

중국정부는 개혁·개방이후 지속적으로 조선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國輸國造’¹²⁵⁾이라는 이념 아래 발전시켜 왔다. 2007년 12월에 발표된 조선산업 중장기발전정책(船舶工業中長期發展規劃, 2006-2015年)에 의하면 소규모 설비의 증설을 억제하고 중소 규모의 조선소를 통폐합하여 대규모 조선소의 생산설비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여 왔다. 즉,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하이만, 장강, 주장의 3대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조선소를 건설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인 2009년 2월에는 선박공업조정진흥규칙을 발표하여 조선산업의 성장을 유지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유동성 문제가 있는 조선소를 지원하여 수주 취소 및 인도 연기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여 생산 안정을 도모하였다. 이는

125) 중국의 물류는 중국선박으로 운반하고 여기에 쓰이는 중국선박은 중국에서 건조한다는 의미

조선산업이 중국의 135개 산업 중에서 113개 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철강, 화공, 경공업 등과 연관효과가 큰 산업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조선산업은 육성정책에 힘입어 세계 1위에 해당하는 양적인 성장을 이룩했으나, 세계적 경기의 불황속에서 생산과잉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12·5 계획에서 2010년 조선산업의 CR₁₀(상위 10개사의 산업 집중도)를 2015년까지 70%로 제고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12·5 계획의 마지막 3년(2013~15년) 동안 생산과잉 억제를 위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산업고도화에 더욱 힘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목표에 의해서 산업집중도는 더욱 높아지고 대형 국유기업 위주로 인수합병(M&A)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로 재무 상태가 좋지 못한 중소형 민영기업들과 대형 국유기업의 인수합병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고부가가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수합병(M&A)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3) 평가와 전망

향후 중국 조선산업의 핵심은 구조조정과 기술 혁신이다. 12·5 계획의 마지막 3년(2013~15년) 동안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경쟁력이 저하된 기업이나 독자생존이 어려운 업체들을 중심으로 폐업시키거나 추가적인 인수합병(M&A)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생산 설비 증설도 통제될 것이다. 2013년 한해에도 여러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구조조정과 함께 기술 혁신도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어서 과거의 저부가가치에서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형 선박, 고부가가치 선박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2013년 8월 4일 중국 정부는 조선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및 업그레이드 추진 실시 방안(船舶工业加快结构调整促进转型升级实施方案, 2013~2015年)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에 의하면, 국내의 인수합병(M&A)을 실시하고, 환경보호형 선박 개발, 특수선박, 고부가가치 선박, 해양플랜트 설비 등을 생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기술 혁신과 관련하여 고부가가치 선박과 해양플랜트 설비의 세계 시장점유율을 각각 25%,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을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2013년 11월에는 선박산업규범조건(船舶行業規範條件)을 발표하여 과잉생산능력을 억제하고 산업조정을 가속하여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생산 설비, 건조 기술 능력, 기술 혁신, 인사관리, 품질 보장시스템, 안정관리, 에너지 절약 등의 방면에서 구체적인 요구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의 설계 수준과 생산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기술 혁신과 관련하여 조선소의 연간 R&D 비용을 핵심사업 매출액의 2%이상으로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4년 9월에는 선박산업규범조건을 실시하는 대상기업 50개가 일차적으로 선정되면서, 향후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고도화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은 국유기업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현재 매각 대상으로 나와 있는 최대 민간 조선소인 쌍수룡성중공업의 경우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2014년 9월 7일에 정부로부터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현재 중국 국유기업의 하나에게 합병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중국 조선산업의 여타 산업정책들도 민영기업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노후 선박 폐기에 다른 보조금 지급이나 군용이나 정부 행정선의 조기 발주와 같

은 정책은 국유기업이 우선일 것이다. 2013년에 대표적인 국유기업인 중국선박공업집단공사(CSSC)는 내부 전략에 의해서 14개의 조선소를 8개로 통폐합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기술 확보를 위한 해외 M&A도 진행될 것이다.

기술 혁신은 해외 M&A 이외에도 주로 산학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연구개발(R&D)을 통해서 100여 대의 그린환경보호선, 대형 액화천연가스운반선(LNG선), 대형 액화가스운반선(VLGC), 대형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제조가 정책적으로 중점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4. 소결

본 장에서는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정책의 관련성을 간략하게 분석하였다. 최근 중국에서 발표된 산업정책에서는 국유기업의 산업 내부의 통제력과 주로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집중도 수준을 정책 목표의 하나로 밝히고 있다. 특히 중점산업으로 선정된 자동차, 철강, 시멘트, 조선, 전해알루미늄, 희토류, 전자통신, 의약, 농업 등의 산업에서는 사실상 국유기업을 대기업이나 대기업집단으로 육성하는 측면이 크다. 중소기업의 난립을 정리하고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인수합병에 의한 국유기업 대형화가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중국산업에서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집중도를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쉽지 않다. 일부 산업을 제외한다면, 공개된 통계자료만을 활

용하여 산업집중도를 대략적이라도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다. 통계자료의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집중도 개념의 정의, 산출방식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최근 중국의 산업정책에서 산업집중도 목표치는 엄밀한 구속력을 갖는 목표라기보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현실적으로 본 연구에서도 산업별로 국유기업이 해당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을 토대로 산업집약도를 매우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이를 통하며 볼 때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중국산업의 산업집약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본 연구는 재차 확인하였다. 따라서 산업별로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인수합병 등에 의한 산업구조 개편이 향후 중국산업의 지형을 변모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며, 이것은 중국의 국유기업 육성정책의 핵심과도 맞물려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의 분석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석유화학, 자동차, 소매업, 철강 및 조선산업의 5개 업종을 선정하여 산업별 기본 현황, 산업집중도 등에 의한 경쟁 현황과 미래의 개편 방향을 간략한 수준이지만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산업 내 민영기업의 향방,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간략히 도출하도록 시도하였다.

석유화학산업은 전략적 자원산업으로 3대 국유기업들이 대부분 독점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유기업인 중국석유(Sinopec)은 최근 혼합소유제 실험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유기업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민영 및 사회자본을 전체 지분의 30%까지 제고시키는 중국석유(Sinopec)의 실험은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성공 여부에 따라서, 전체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에 미치

는 파장은 매우 클 것이다. 민영 기업들은 주로 상류 부문보다는 하류 부문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적인 산업집중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산업은 전략적 경쟁산업으로 생산 설비의 과잉과 생산 업체의 난립으로 인해서 구조조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향후 상위 10대 기업의 집중도를 9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모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정부의 정책보다는 업계의 경쟁력 구도가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군소업체인 지방 국유기업들의 정리와 통폐합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소매업은 일반경쟁산업으로 유통방식의 다양화, 온라인 소매업의 급속한 팽창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10대 기업 시장점유율은 6.6%에 불과할 정도로 산업집중도는 낮은 편이다. 향후 효율적인 기업들만이 생존하는 시장으로 변모하면서 M&A 등을 통한 산업집중도는 상승할 것이다. 국유기업과 민영기업들이 모두 경쟁을 통해서 상호 인수합병이 진행될 것이며,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유리한 국유기업 위주로 산업이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철강업은 전략적 경쟁산업으로 대표적인 과잉 생산 산업이다. 경쟁력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계획을 통해서 10개 상위기업의 산업집중도는 60%까지 제고할 전망이다. 대형 국유기업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M&A가 이루어지면서 중소형 기업이나 수익성이 낮은 업체들의 도태가 예상된다. 그러나 지방정부와 일부 철강업체의 반대 등으로 인해서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조선업은 전략적 경쟁산업으로 조선 인도량, 신규 수주량, 수주 잔량

등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유기업들은 대부분 중국선박중공(CSIC)와 중국선박공업(CSSC)에 속해 있다. 상위 10개 기업의 산업집중도를 2010년의 48.9%에서 2015년까지 70%까지 높일 계획이다. 최근 최대 민간조선소인 쌍수룡성중공업이 파산하면서 향후 대형 국유기업 위주로 인수합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 조선업은 향후 인수합병에 의한 구조조정과 기술혁신을 통해서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평가 및 시사점



1. 요약

본 연구는 중국 시진핑 지도부하의 국유기업 개혁 방향을 살펴보고 기업 경쟁력, 사업 다각화, 산업 집중도 분석을 통해 중국 국유기업 개혁을 평가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로 국유기업 개혁의 3단계(2003년~12년)를 평가하고, 4단계인 2013년 이후를 전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기간에 국유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사업 다각화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였다. 또한 국유기업 개혁을 산업정책과 연결시켜 산업 집중도에 대한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서 석유, 자동차, 철강, 조선, 소매업에 대한 산업구조 과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 추진 현황을 정리하였다. 먼저 국유기업의 유형과 현황을 정리하고, 개혁개방 이후의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였다. 특히 최근 시진핑 주석의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의 방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국유기업 개혁 과정은 크게 1단계(1978~92년), 2단계(1993~2002년), 3단계(2003~12년), 4단계(2013년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개혁과정을 거쳐 현재 국유기업 수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전체 공업기업의 영업수입 및 이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영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유기업의 경영효율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진핑 체제의 신정부는 제18기 3중전회와 2014년 양회를 통해 국유기업 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중국 국유기업 개혁 추진의 중점 방향을 요약하면 혼합소유제의 적극적인 추진이다. 그러나 중국 신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혼합소유제는 국유기업의 전면적인 민영화보다는 일정 제한된 범위에서만 민간자본 투자를 허용하는 형태로, 결과적으로 자본력이 우세한 국유기업 중심의 공유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직까지 혼합소유제 중심의 중국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방침이나 실행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신중하고 점진적인 방식에 의해서 향후 여러 가지 시범 방안과 지방정부 차원의 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 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 성과 간의 관계를 생산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국 A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571개의 기업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성은 매출액을 변수로 분석하였는데,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 모두 양(+)의 값을 가지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민영기업의 인적자본이 국유기업보다 생산성에 더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반면에 국유기업의 물적자본은 민영기업보다 생산성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익성은 순이익, 영업이익, 자기자본이익률, 총자산이익률을 변수로 실증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최대주주와 10대 주주의 지분율이 양(+)의 계수를 가지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앙 국유자산감독위원회(SASAC)는 음(-)의 계수로 나타나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A주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주주의 지분율이 높고 국유자산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지 않을 수록, 수익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국유기업이 고유 업종에서 벗어나 사업 다각화를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지와 다각화된 업종에서 제대로 이윤이 창출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3장과 같이 중국 A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571개 기업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각화 자체와 관련 다각화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으나 비관련 다각화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특히 민영기업의 비관련 부문 축소는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둘째, 매출액은 있으나 이윤은 없는 非이윤 부문의 개수는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모두 관련 부문이 더 많다. 셋째, 매출액 대비 이윤을 집계하면 국유기업은 비관련 부문이 더 큰 반면 민영기업은 관련 부문이 더 크다. 요약하자면 국유기업은 이윤이 발생하는 부문의 숫자와 이윤의 크기가 비례하지만, 민영기업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정책의 관련성에 대하여 간략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최근 중국에서 발표된 산업정책에서는 국유기업의 산업 내부의 통제력과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집중도 수준을 높이는 것을 주요 정책 목표의 하나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산업 집중도 목표치는 엄밀한 구속력을 갖는 목표이기 보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중점산업으로 선정된 자동차, 철강, 시멘트, 조선, 전해 알루미늄, 희토류, 전자통신, 의약, 농업 등의 산업에서는 사실상 국유기업을 대기업이나 대기업집단으로 육성하는 측면이 크다. 일반적으로 중국 산업의 산업 집중도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산업별로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인수합병 등에 의한 산업구조 개편이 중국의 국유기업 육성정책의 핵심과도 맞물려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의 분석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석유화학, 자동차, 소매업, 철강 및 조선산업의 5개 업종을 선정하여 산업별 기본 현황, 산업 집중도

등에 의한 경쟁 현황과 미래의 개편 방향을 간략하게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산업 내 민영기업의 향방,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간략히 도출하도록 시도하였다. 산업 분석은 사실상 개별 산업마다 각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유형화하여 분석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우선, 산업 집중도, 한국기업과의 경쟁 여부 그리고 중국정부의 중점 육성 방침을 연계해서 산업 유형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국유기업, 민영기업, 산업집중도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끝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 도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6-1]과 같다.

표 6-1. 중국 산업별 국유기업 전망과 시사점

산업	산업 유형	국유기업 전망	민영기업 전망	산업 집중도	한국에 대한 시사점
석유	전략적 자원(독점)	Sinopec의 혼합소유제 실험	주로 상류 부문보다는 하류 부문에 진입 예상	큰 변화는 없음.	중국내 공급과잉 상황에 대한 대응 및 하류부문의 경쟁상황 분석 및 대응
자동차	전략적 경쟁	우수한 기업 중심으로 산업 재편 하위의 지방 국유기업 정리도 쉽지 않음.	양극화 현상	2015년까지 상위 10개 기업 90% 달성 가능	경쟁 격화, 협력업체들과 함께 혁신 모델 개발
소매업	일반 경쟁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책적으로 유리한 국유기업 위주로 산업 재편	민영기업과 국유기업의 경쟁, 상호 인수합병도 가능	산업 집중도 상승 예상	외국기업 진입은 비교적 용이하지만, 경쟁은 치열
철강	전략적 경쟁	대형국유기업 중심으로 산업 재편 진척	특정 부문에서 민영기업 성장 가능	2015년까지 상위 10개 기업 60% 달성	지주산업으로서 외국기업의 진출은 제약이 지속될 것임. 철강산업의 세계적인 조정 상황에서 전략적인 접근 필요
조선	전략적 경쟁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대형 국유기업 위주로 재편	최대 민영조선소 파산하면서 민영기업 위축될 전망	2015년까지 상위 10개 기업 70% 달성	고부가가치로의 특화와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 필요

자료: 제5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저자 작성.

2. 평가 및 시사점

가. 중국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평가

1) 혼합소유제에 대한 평가

2013년 양회를 통해 공식 출범한 시진핑 신정부는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경제 전반에 걸친 개혁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2013년 11월에 개최된 제18기 3중전회와 2014년 양회에서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를 목표로 전면적인 중장기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다. 2013년의 제18기 3중전회에서 청사진을 제시했다면 2014년 양회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경제 개혁 정책들이 발표되었다. 2014년 전인대 업무 보고를 살펴보면, 그 핵심은 ‘안정 속 개혁 추진’으로 안정적인 성장이라는 기본 전제에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즉 안정적인 성장이라는 틀 안에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이며, 여전히 개혁보다는 안정이 더 중요한 개념이다.

국유기업 개혁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최근의 국유기업 개혁이 과거와는 확연하게 다른 강도 높은 개혁안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있던 정책이나 개념들을 재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여러 단계에 걸친 국유기업 개혁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성 등의 많은 문제점들과 모순들을 드러내었고, 오히려 민영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국 신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유기업의 개혁 방향은 이러한 문제점에서 출발했으며, 그 핵심은 국유 부문 효율성 제고에 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국유기업의 축소나 민영화를 뜻하기보다는 국유 부문의 안정과 효율성 제고가 가장 큰 목표인 것이다. 이러한 국유기업 효율성 개선을 위해

중국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방안이 바로 혼합소유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자위의 국유기업 지배구조를 ‘기업관리’에서 ‘자본 운영 관리’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혼합소유제란 쉽게 말해 국유자본, 집체자본, 비공유자본(민간자본)의 교차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것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중국의 소유제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유 부문에 민간자본 진출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국유기업의 경영 리스크가 분산되고, 경영 및 투자전략의 최적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통해 경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결국 경영 성과와 효율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한된 민간자본들이 국유기업의 절대적인 지분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가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국유기업이 내실있는 민영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식으로 혼합소유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본문 3장의 결과는 혼합소유제의 개혁 방향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민영기업의 인적자본이 국유기업의 인적자본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향후에는 민영기업의 인적자본이 국유기업에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혼합소유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유기업의 인적자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이사회 도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인적자본 쇄신에 노력하고 민영기업의 인적자본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유기업의 물적자본이 민영기업보다 생산성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유기업의 자본이 사업 영역 확장의 필요에 따라 민영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둘째, 국자위의 통제가 수익성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 국유기업

의 개혁 방향이 국자위의 통제를 벗어나야 한다. 따라서 점차 국자위의 통제가 관리에서 자본 운영 관리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은 옳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아직까지 혼합소유제 중심의 중국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방침이나 실행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실제 혼합소유제 추진의 시행 여부 및 정도는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혼합소유제 추진 여부, 세부 계획,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중국 신지도부가 신중하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중국의 개혁 조치들처럼 우선 여러 가지 시범 방안과 지방정부 차원의 개혁을 시도해 보는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최근 지방 소재 국유기업들의 개혁 실시 방안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지방 정부들의 실험 방안들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혼합소유제의 추진 여부와 속도는 조절될 것이다.

2) 사업 다각화와 산업 집중에 대한 전망

기본적으로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와 산업 집중 현상이 모두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를 살펴보면, 국유기업의 다각화는 관련 분야보다 비관련 분야에서의 다각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비관련 부문에서 관련 부문보다 더 큰 이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中國石化(SINOPEC)의 소매업 진출, 上海寶鋼(Baosteel)의 금융업 진출 등이 점점 더 본격화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에 대한 경영 자율권 보장으로 인해 향후 우리나라의 포스코나 일본의 JR 사례와 같은 비관련 다각화 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다각화 방식은 신규 투자가 아닌 민영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유자본과 민간자본의 혼합 소유제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국유기업이 사업영역 확장의 필요에 따라 민영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식으로 ‘혼합소유제’가 실현될 공산이 크다.

산업 집중 현상을 살펴보면, 산업별로 다르겠지만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집중 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 발표된 중국의 산업정책에서는 국유기업의 통제력과 산업 집중도 수준이 하나의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 집중도 목표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산업구조 개편이 중국의 국유기업 육성정책의 핵심과도 맞물려 있다. 한가지 확실한 점은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 집중 현상이 산업별로 다르게 진행될 것이다. 제5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석유화학, 자동차, 소매업, 철강 및 조선산업의 5개 업종의 경우, 대부분 산업 집중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3) 한계점과 문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합소유제 중심의 국유기업 개혁에는 여전히 한계점과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혼합소유제 개혁 방향은 경제 각 부문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일부 산업에만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우선 국방 및 국가안보는 혼합소유제 개혁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자동차나 가전과 같이 이미 민간 및 외자의 진입으로 지분이 분산된 분야는 혼합소유제로 인한 영향이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주로 철강, 통신, 에너지 등과 같이 자본력과 기술이 요구되는 기간산업이 혼합소유제 개혁의 중점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국유기업 개혁이 국유기업 위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단기간에 전략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전히 거대 국유기업의 존재가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전략적 산업에 대한 혼합소유제 추진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극히 낮은 비중의 지분만을 허용한 채 리스크가 큰 분야나 일부 사업 분야에 영업권을 보장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산업의 경우에는 과잉 생산을 억제하기 위한 개혁이 추진 중인바, 그 핵심은 국유기업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함으로써 산업 집중도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또한, M&A 과정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업이나 소형 민영기업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있다. 즉, 업종에 따라 오히려 거대 국유기업이 탄생할 여지도 있다.

셋째, 국자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국유 자본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을 모색 중인 국유자본운영공사의 실효성 여부도 불확실하다. 국유자본운영공사가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테마섹의 성공 요인은 소유-경영의 철저한 분리에 있다. 테마섹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싱가포르 정부는 전문경영인 인사권과 경영권에 간섭하지 않으므로써 테마섹의 성공적인 경영을 이끌었다. 이와 같이 국유자본운영공사가 국유자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정부나 국유자본 기득권 세력이 이와 같은 권한을 쉽게 포기할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와 같이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혼합소유제는 우선 일부 기업과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방안을 실시한 이후 심의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유기업 개혁은 당장 대대적인 사유화,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와 같이 근본적이고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

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혼합소유제 중심의 국유기업 개혁은 국유기업 집단의 모회사 지분 분산보다는 자회사 및 일부 사업을 개방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국유 독점에 국한되었던 분야에 민간기업의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국유기업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쟁력이 약하고 규모가 작은 국유기업부터 혼합소유제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이 한국정부나 한국기업에 주는 직접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에 대한 의존도, 중국 기업의 빠른 성장과 글로벌화 등을 감안하면 국유기업 개혁이 한국에 미칠 수 있는 파장과 잠재력은 엄청나다. 2010년에 창업한 기업인 샤오미가 2014년에는 삼성전자를 제치고 내수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시장과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중국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철저히 파악하여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1) 한국기업의 중국 내수 진출에 대한 시사점

첫째, 먼저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은 더욱 치열한 경쟁 속에 뛰어들 것이다. 국유기업 개혁이 추진되면서 중국의 기업들은 활발한 M&A와 자회사 간 통폐합을 통해 내수시장 진출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응과 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기업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고부가가치로

특화하거나 기술 개발을 통한 혁신을 실현하는 것이다. 자동차산업도 향후 상위 10대 기업의 집중도를 9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모두에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정부의 정책보다는 업계의 경쟁력 구도가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됨에 따라서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협력업체와 함께 혁신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이나 협력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중국 소매업을 예를 들어보자. 중국 소매업은 향후 민영기업과 국유기업이 치열한 경쟁속에서 상호 인수합병이 가능한 상황에서 우수한 기업들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혜택을 받는 국유기업들이 여러 가지로 유리한 가운데, 외국기업의 진입도 비교적 용이할 것이다. 한국기업이 중국기업과의 인수합병(M&A)을 통해서 진출하게 되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할 수 있다. 현재 중국에 진출해 있는 이마트와 롯데마트에게는 더욱 힘든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둘째,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된 규제와 법 집행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중국은 전략 육성 사업 부문에서 우월한 시장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반독점법 집행 강화, 파산법, 기업 국유자산법 등을 시장경쟁 중심으로 개정할 것이다. 특히 혼합소유제를 통한 국유기업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 집행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중국은 2008년 8월부터 시행된 반독점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2013년 이후 LCD, 분유, 백주, 금·은가공 기업 등에 반독점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징수한 데 이어 외국 자동차 업체와 마이크로소프트, 쉘컴 등 외국 IT기업에 이

르기까지 반독점법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은 향후 공정한 시장경쟁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 아래 외자기업 및 국유기업에 대한 반독점법 규제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합소유제를 통한 국유기업 개혁 추진은 반독점법 집행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중국의 혼합소유제 추진 과정 중 중국기업 간 또는 외국기업과 중국기업 간 인수합병이 빈번해지고 중국 내 외국기업의 사업 진출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장 지배력이 높아진 국유기업과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독점법 규제가 한층 강화될 여지가 커질 것이다.

현재 중국은 외국기업에만 반독점법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기준으로 국내외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반독점법 집행이 자국 산업이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차별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는 우려와 불만의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혼합소유제 추진이 주는 기회를 활용하여 중국 진출을 모색하고자 하는 우리기업은 중국의 반독점법 집행 강화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우리기업의 대중 진출 기회 확대로 중국 내 사업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중국 반독점법 규제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 반독점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준법경영에 대한 인식 고취가 선행되어야 하며, 반독점법 규제 동향과 그 준수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반독점법 집행 강화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

2) 글로벌 시장 내 치열한 경쟁

중국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기업과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기업과의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장차 국유기업 개혁을 통해 중국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제고될 경우 한국기업과 글로벌 경쟁력 심화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3장에서도 분석되었듯이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기업의 최대 주주 지분율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국자위 통제체제가 자본 통제 위주로 전환된다면 그 비중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기업들은 양국간 경쟁산업과 중국 기업들의 대형화와 글로벌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선산업을 살펴보자. 세계 1위를 중국에게 넘겨준 이후로, 한국 조선업은 여전히 고부가가치 선박 영역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국유기업 개혁으로 인해서 조선소 상위 10대 기업의 산업 집중도가 70%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또한 최대 민간조선소인 쌍수룡성중공업의 파산으로 인해서 향후 대형 국유기업 위주로 인수합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 조선업이 국유기업 위주의 구조조정과 기술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로의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선박분야 영역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프로젝트에 맞는 선박을 건조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자체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도 키워야 한다. 한편으로는 중국 조선소의 성장을 역이용하면서 새로운 분업체계를 모색할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 조선 기자재산업의 성장을 도모하여 중국과의 분업체계를 구축하여 동반 성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의 기회는 다음 절에서 더욱 자세하게 서술하도록 하겠다.

3) 글로벌 시장 내 협력 기회

중국기업의 글로벌화는 한국기업에 협력의 기회와 그로 인한 시장의 확대에 이어질 수도 있다. 산업 내에서 중국기업의 성장으로 과거보다 산업 내 협력이 확대되고 양국간 교역,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 한국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기업과의 협력 및 협업의 여지를 파악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해외 사업자와 협력이 활발한 통신,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전력망 구축 사업에 한국의 솔루션 구축 기술의 협력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국가 인프라 및 신흥전략산업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 허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사업 진출에도 관심을 가질만하다.

특히 중국의 신산업은 민영기업들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중국민영기업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 민영기업은 집중화전략 혹은 수직적 다각화를 추구하면서, 축적된 자본을 신산업에 투입할 것이다. 주로 기존의 전통산업보다는 새로운 산업에 많이 진출할 것이며, 중국정부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민영기업이 직접 부담하면서 진출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한편 주목해야 할 것은 결집된 민간자본의 역량이다. 이미 復星(FOSUN)그룹과 같은 기업집단은 국유자본의 배경이 전혀 없이 제약·건설·철강·미디어에 걸친 다각화된 투자 그룹을 만들었다. 또한 中國民生投資有限公司(中民投)는 중국 유일의¹²⁶⁾ 민영은행인 民生銀行에 뿌리를 두고 500억 위안의 자본금으로 설립되어 신에너지·항공·물류·해외투자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¹²⁷⁾. 특히 국유자

126) 2014년 4월, 민영은행 확대 정책이 집행되기 전 民生銀行이 유일한 민영은행이었음(최필수 2014).

본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느린 태양광·풍력 등 신에너지 사업으로의 민간 자본 진출이 기대된다. 또한 항공업과 같이 전통적인 국유 독점 사업의 개방 조짐이 보임에 따라 이런 부문에서 민간 역량을 발휘할 여지도 클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국유기업 개혁은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많은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혼합소유제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들이 발표되지 않아서 아직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중국 국유기업 개혁에 대해서 정리하고 평가와 시사점을 서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 있다. 앞으로 중국 국유기업 개혁이 더욱 명확해지면서 보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라며, 이 연구가 그 기본적인 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127) 財經(2014. 8. 25), 「解碼中民投」.

■ 참고 문헌 ■

[국문 자료]

- 강동수·이준엽. 2006. 『중국 기업의 소유구조와 경영 성과』. 한국개발연구원.
건홍리서치. 2010. 『국유기업 개혁 중 정부 작용 연구』. 건홍리서치.
김근정. 2014. 「중국 상위 1% 자산 독점?... 중국 기업도 다르지 않아」. 『아주경제』.
(7월 28일)
김창호. 2013. 『2014년 철강산업 전망』, p. 26. 키움증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5. 「중국의 제9차 5개년계획 및 2010년까지의 장기발전계획」,
p. 20. 정책자료 95-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 2014. 「중국 국유기업 개혁 추진 현황」. 『KIEP 북경사
무소 브리핑』, Vol. 17 No. 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월 6일)
문익준. 2014. 「중국 국유기업 개혁을 위한 4가지 시범 방안」. KIEP 2014년 아시아태평양
실·구미유라시아실 공동 동향 세미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월 15일)
문진영·김병철. 2012.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내용과 그 한계점」. 『국제노동브리프
3월호』, p. 78, p. 81, p. 84. 한국노동연구원.
박민숙. 2014. 「중국 80개 인프라 프로젝트에 민간투자 허용」. KIEP 2014년 아시아태평양
실·구미유라시아실 공동 동향 세미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월 30일)
변종만·차동수. 2014. 「철강산업」. 『Industry Comment』, p. 1. 우리투자증권.
삼성경제연구소. 2008. 「중국 대형 국유기업의 지배구조 개혁과 관리체계 혁신」. 『SERI
China Review』, 제2008-6호, p. 8.
석유협회. 1999. 「중국석유산업 재편과 석유 공급」. 『석유협회보』, (7월 8일)
송영관·안덕근. 2012. 「중국 국유기업과 한중 FTA」, p. 11, pp. 13~14. 『정책연구시리즈
12-13』, KDI.
이길호. 2014. 『철강산업 7대 이슈 점검』, p. 4. 한국신용평가.
이재형 외. 2013. 「시장구조 조사」, pp. 20~21, pp. 25~28. 한국개발연구원.
이홍규. 2014. 「시진핑 시대 국유기업 개혁 심화·핵심 정책의 평가 및 시사점」. 『INChinaBrief』,
Vol. 269, p. 15.

- 정무섭 · 표민찬. 2009. 「중국 상장기업의 산업별 경쟁력 추이 연구: 중요소생산성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연구』 제13권 제2호. (12월)
- 정형곤 · 김진욱 · 김홍식 · 광채기 · 이정현. 2010. 「한·중·일 공기업 개혁정책의 변천과 성과」, p. 12, p. 98. 『연구자료 10-6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용성. 2014. 「세계 500대기업중 100곳 중국, 한국은 17개」. 『이주경제』. (7월 8일)
- 조현준. 2013. 「국유기업 개혁 과제」. 양평섭 · 나수엽 편.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과제와 전망』, p. 23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지만수 · 이영. 2003. 『중국 부실채권 문제의 원인과 해결전망』. 정책연구 03-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차이나윈도우. 2014. 「중국의 O2O 산업」. 차이나윈도우. (4월 28일)
- 최문선 · 김진우. 2011. 「중국, 철강산업 규제에 돌입하나?」. 『산업 News comment』, p. 1. 한국투자증권.
- 최필수 · 문익준 · 이한나. 2013. 「중국 제18기 삼중전회의 주요 내용과 향후 경제개혁의 방향」. 『오늘의 세계경제』, 제13-23호, pp. 4~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필수. 2014. 「중국의 민영은행 확대정책과 설립 동향」. 『지역경제포커스』, 제14-9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필수 · 김영선. 2014. 「최근 대중 수출 감소의 원인: 석유화학 품목을 중심으로」. 『지역경제포커스』, 제14-33호, p.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필수 · 박지혜. 2010. 「중국 국유기업 문제 없다」. 『파이낸셜 뉴스』. (4월 22일)
- 한국조세연구원. 2010. 『중국 국유기업 개혁 연구 보고서』. pp. 7~8. 한국조세연구원.
- 한국무역협회 상해지부. 2014. 『중국 철강산업 현황 및 전망』, p. 11. 한국무역협회.
- KDB대우증권. 2014. 『KDB Daewoo Daily』, p. 10. KDB대우증권. (6월 25일)

[중문자료]

- 國有資產監督獎勵委員會(2014), 財經-國資改革〇〇, <http://www.sasac.gov.cn/n1180/n1280/n20515/n2697206/15709888.html>(accessed on April 13, 2014).
- 白重恩, 劉俏, 陸洲, 宋敏, 張俊喜. 2005. 「中國上市公司治理結構的實証研究」. 『經濟研究』, 2005年2期, pp. 81~91.
- 白重恩, 錢震杰, 武康平. 2008. 「中國工業部門要素分配份額決定因素研究」, 『經

- 濟研究』2008年2期。pp. 16~28。
- 財經。2014. 「解碼中民投」. 『財經』, 8월.
- 羅仲偉。2009. 「中國國有企業改革: 方法論和策略」, 『中國工業經濟』, 1月, 第1期, pp. 5~17
- 林毅夫, 蔡昉, 李周。1997. 「現代企業制度的內涵與國有企業改革方向」. 『經濟研究』, 第3期, pp. 3~10.
- 董敬怡。2014. 「以管資本為主加強國有資產監管」. 『財經』, 4월.
- 李毅。2014. 「石油業籌謀混合所有」. 『財經』, 3월, p. 91.
- 李毅, 施智染。2014a. 「國家石油公司改革的海外標本」. 『財經』, 5월.
- _____. 2014b. 「大話石油改制」. 『財經』, 5월.
- 金碚, 劉戒驕, 劉吉超, 盧文波。2013. 『中國國有企業發展道路』, p. 86. 經濟管理出版社
- 劉泉紅。2012. 『國有企業改革: 路徑設計和整體推進』, p. 134, p. 208.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吳敬連。2003. 『當代中國經濟改革』, 上海遠東出版社。pp. 125~132.
- 『中國統計年鑑』。2004~2013. 각 호(各號). 中國統計出版社.
- 『中國統計摘要』。2014. . 中國統計出版社.
- 中信証券研究部。2014a. 『商業零售行業并購專題報告』. 『中信証券』, p. 1.
- _____. 2014b. 「從并購資源到實現價值大量: 淘沙始見金」. 『中信証券』.
- 中國連鎖經營協會。2014. 『2013年中國連鎖百強』. 中國連鎖經營協會.

[영문 자료]

- Bai, Chong-en., Li David D. and Wang Yijiang. 1997. "Enterprise Productivity and Efficiency: When is up really down?"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24, pp. 265-280.
- Beirne, J. Liu G,S and Sun Pei. 2013. "The performance impact of firm ownership transformation in China." Working Paper Seires, No 1598. European Central Bank.
- Chen, K., Jefferson, G.H., Rawski, T.G., Wang, H.C. and Zheng, Y.X. 1988.

- “Productivity change in Chinese industry, 1953-1985.”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 12, pp. 570-591.
- Clarkson Research. 2012. *World Shipyard Monitor*.
- CITIC Securities Research. 2014. “A New era of big changes - A review of the new round of SOE reforms.” p. 3, p. 7.
- Deng, Morck and Wu. 2011. “Monetary and Fiscal Stimuli, Ownership Structure, and China's Housing Market.” IRES Working Paper, IRES2011-004
- Elliott Robert and Zhou Ying. 2013. “State-Owned Enterprises, Exporting and Productivity in China.” Department of Economics Discussion Paper 13-03. University of Birmingham.
- Fung Business Intelligence Centre. 2014. “The Changing Face of China's Retail Market.” *Fung Business Intelligence Centre*, pp. 5~6, pp. 32~35. (September)
- Geng Xiao, Xiuke Yang and Anna Janus. 2009. “State-owned enterprises in China: Reform dynamics and impacts,” p. 157.
- Groves Theodore, Hong Yongmicao, John McMillan and Barry Naughton. 1994 “Autonomy and Incentives in Chinese State Enterpris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9, 1994, pp. 183-209.
- Ho Daniel and Angus Young. 2013. “China's Experience in Reforming Its State-Owned Enterprises: Something New, Something Old and Something Chinese?”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y, Management and Social Sciences*, p. 87.
- Holz Carsten A. 2002. “Long live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deflating the myth of poor financial performanc.” *Journal of Asian Economics*, 13, pp. 493-529.
- Jefferson, G. H., Rawski, T. G. and Zheng, Y. 1992. “Growth, efficiency, and convergence in Chinese industry: A comparative evaluation of the state and collective sector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40(2), pp. 239-265.
- Jefferson, G. H., Rawski, T. G. and Zheng, Y. 2000. “Ownership, Productivity Change, and Financial Performanc in Chinese Industry.”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28, pp. 786-813.

- Kang, Young-Sam and Kim, Byung-Yeon. 2012. "Ownership structure and firm performance: Evidence from the Chinese corporate reform." *China Economic Review*, Vol. 23, pp. 471-481.
- KPMG. 2013. "State-owned entities: From centrally-planned origins to hybrid market competitors." p. 1, p. 11. KPMG.
- Li, Wei. 1997. "The Impact of Economic Reform on the Performance of Chinese State Enterprises, 1980-1989."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5, No. 5, pp. 1080-1106. (October)
- National Australian Bank. 2014. "Reorganising China's faces competing forces - economic and social". *China Economic Update*, p. 2, p. 3.
- OECD. 2009. "State Owned Enterprises in China: Reviewing The Evidences," Occasional Paper. *OECD Working Group on Privatisa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 Owned Assets*, p. 3. (January 26)
- Sutherland, Dylan, and L. Ning. 2008. "Exploring and Explaining the Extent of Concentration and Diversification in Chinese Business Group." *Processed*.
- Szamoszegi and Kyle. 2011. "An Analysis of State-owned Enterprises and State Capitalism in China."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p. 6.
- Woo, Wing Thye, Wen Hai, Yibiao Jin and Gang Fan. 1994. "How Successful Has Chinese Enterprise Reform Been? Pitfalls in Opposite Biases and Focu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18, pp. 410-437.
- World Bank and DRC. 2013. "China 2030: Building a Modern, Harmonious, and Creative Society." World Bank. pp. 105-106.
- World Steel Association. 2014. "World Steel in Figures 2014". *World Steel Association*, p. 8.
- Xu Xionian and Yan Wang. 1999. "Ownership structure and corporate governance in Chinese stock companies." *China Economic Review*, 10. pp. 75-88.
- Yu Mei. 2013. "State ownership and firm performance: Empirical evidence from Chinese listed companies." *China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6. pp. 75-87.

[인터넷 자료]

- 중국조선공업산업협회(中國船舶工業協會) 홈페이지. www.cansi.org.cn(accessed Oct 2, 2014)
- 테마섹 홈페이지. <http://www.temasek.com.sg/>(accessed July 30, 2014)
- 세계자동차산업협회 홈페이지. <http://www.OICA.net>(accessed September 30, 2014)
- 중국해양석유총공사 홈페이지. <http://www.cnooc.com.cn/>(accessed on October 13, 2014)
- 중국석유천연가스주식회사 홈페이지. www.petrochina.com.cn/(accessed on October 13, 2014)
- 중국석유화학공주식회사 홈페이지. www.sinopecgroup.com/(accessed on October 13, 2014)
- 중국건축재료집단(中國建築材料集團有限公司). <http://www.cnbm.com.cn>(accessed August 7 2014)
- Globalwindow. 2013. 중국 석유화학 분야 구조조정 가속화될 전망. http://www.globalwindow.org/GW/china/trade/info/overseamarket-detail.html?&SCH_TYPE=SCH_SJ&MENU_CD=M10115&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ID=5007066&UPPER_MENU_CD=M10114&BBS_ID=10&SCH_VALUE=&MENU_STEP=3&Page=1&SCH_NATION_CD=000000&SCH_START_DT=&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ARTICLE_SE=&SCH_END_DT=(accessed on October 13, 2014)
-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홈페이지(國務院國有資產監督管理委員會). <http://www.sasac.gov.cn/n1180/n1566/index.html>(accessed August 6, 2014)
- _____. 監事會主席. <http://www.sasac.gov.cn/n1180/n20240/n13563062/index.html> (accessed August 6, 2014)
- _____. 2008. 中華人民共和國企業國有資產法. <http://www.sasac.gov.cn/n1180/n1566/n11183/n11244/5751091.html> (accessed April 13 2014)
- _____. 2009. 國資委國有企業管理模式研究. <http://www.sasac.gov.cn/n1180/n1271/n20515/n2697175/12403737.html> (accessed August 4, 2014)

- _____. 2014. 財經國資改革結團, <http://www.sasac.gov.cn/n1180/n1270/n20513/n269n206/15709888.html>(accessed on April 13, 2014)
- _____. 2014. 國務院國資委舉辦“四項改革”試點新聞發布會. <http://www.sasac.gov.cn/n1180/n1566/n259730/n264168/15962412.html>(accessed August 6 2014)
- _____. 2011. 中國醫藥集團總公司. <http://www.sasac.gov.cn/n1180/n12534878/n13979253/14010876.html>(accessed August 6 2014)
- _____. Main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SASAC. <http://www.sasac.gov.cn/n2963340/n2963393/2965120.html>(accessed August 6, 2014)
- 中國產業經濟信息网. 2014. 2013年我國石油和化學工業運行情況. <http://www.cinic.org.cn/site951/hangye/hyyw/2014-02-25/722042.shtml> (accessed on August 7, 2014)
- 中國人大網. 中華人民共和國憲法修正案. http://www.npc.gov.cn/wxzl/gongbao/1993-03/29/content_1481290.htm(accessed April 13 2014)
- 中華人民共和國人民政府. 2008. 中華人民共和國企業國有資產法. http://www.gov.cn/flfg/2008-10/28/content_1134207.htm (accessed September 30, 2014)
- _____. 2005. 中華人民共和國公司法. http://www.gov.cn/flfg/2005-10/28/content_85478.htm(accessed September 30, 2014)
- _____. 2014政府工作報告. <http://www.gov.cn/zhuanti/2014gzbg.htm>(accessed April 22, 2014)
- _____. 2009. 石化產業調整和振興規劃. http://www.gov.cn/zwgk/2009-05/18/content_1317790.htm(accessed September 12, 2014)
- _____. 2006. 國務院辦公廳轉發國資委關於推進國有資本調整和國有企業重組指導意見的通知.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7/content_503385.htm (accessed September 22, 2014)
- _____. 2006. 國資委: 國有經濟應保持對七個行業的絕對控制力. http://www.gov.cn/jrzq/2006-12/18/content_472256.htm(accessed September 22, 2014)
- _____. 2010. 國務院關於促進企業兼併重組的意見. http://www.gov.cn/zwgk/2010-09/06/content_1696450.htm(accessed September 23, 2014)

- _____. 2011. 國務院關於印發工業轉型升級規劃（2011—2015年）的通知. http://www.gov.cn/xxgk/pub/govpublic/mrlm/201201/t20120119_64732.html(accessed September 30, 2014)
- _____. 2013. 中共中央關於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問題的決定 http://www.gov.cn/jrzq/2013-11/15/content_2528179.htm(accessed Oct 2, 2014)
- 中華人民共和國工業和信息化部網. 2013. 《關於加快推進重點行業企業兼併重組的指導意見》發布. <http://www.miit.gov.cn/n11293472/n11293832/n15216906/n15217002/15218043.html>(accessed September 23, 2014)
- 中國石化. 中石化煉化工程（集團）股份有限公司在京揭牌. http://www.sinopecgroup.com/group/xwzx/gsyw/20120903/news_20120903_38389000000.0.shtml(accessed September 15, 2014)
- 新華網. 2013. 中石化煉化工程在港正式挂牌上市 http://news.xinhuanet.com/2013-05/23/c_124753153.htm(accessed September 15, 2014)
- _____. 2012. 十八大報告. http://www.xj.xinhuanet.com/2012-11/19/c_113722546_4.html (accessed April 15, 2014)
- _____. 1997. 高舉鄧小平理論偉大旗幟，把建設有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全面推向二十一世紀. http://news.xinhuanet.com/zhengfu/2004-04/29/content_1447509.htm(accessed April 15, 2014)
- _____. 2013. 授權發布：中共中央關於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問題的決定. http://www.sn.xinhuanet.com/2013-11/16/c_118166672.htm(accessed April 22, 2014)
- _____. 2014. 地方國資改革啓動6.7万亿資本盛宴. http://jjckb.xinhuanet.com/2014-08/20/content_517600.htm(accessed October 10, 2014)
- 人民網. 2014. 關於2013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計劃執行情況與2014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計劃草案的報告. <http://politics.people.com.cn/n/2014/0316/c1001-24645112.html>(accessed April 22, 2014)
- 百度百科. “傅成玉”. <http://baike.baidu.com/view/58710.htm>(accessed October 13, 2014)
- 投資中國網. 2014. 李雙震：中國所有的行業集中度都偏低. <http://capital.>

- chinaventure.com.cn/11/172/1409290801.shtml(accessed September 23, 2014)
- 汽車租賃網. 2009. 汽車產業調整和振興規劃細則公布. <http://news.eooioo.com/20090321/917437.html>(accessed September 23, 2014)
- CNKI. 1999. 國務院及國務院辦公廳1999年5月份文件目錄. <http://www.cnki.com.cn/Article/CJFDTotat-QHZB199905021.html>(accessed September 12, 2014)
- _____. 2001. 國務院及國務院辦公廳9月份文件目錄. <http://www.cnki.com.cn/Article/CJFDTotat-QHZB200109019.html>(accessed September 12, 2014)
- Fan, gang and Hope, Nicholas. 2013. The Role of State-Owned Enterprises in the Chinese Economy. http://www.chinausfocus.com/wp-content/uploads/2013/05/Chapter-16_SC.pdf(accessed September 22, 2014)
- Fortune. 2014. Global 500 2014. <http://fortune.com/global500/>(accessed Oct 2, 2014)
- Fortune China, <http://www.fortunechina.com>(accessed July 17, 2014)
- Reuters. 2013. Apache sells Egyptian oil stake to Sinopec for \$3.1 billion, forms global JV. <http://www.reuters.com/article/2013/08/30/us-apache-egypt-idUSBRE97T02720130830>(accessed October 12, 2014)
- Wanton, Julie. 2010. “Coming to Terms with Industrial Policy”. China Business Review, May 1, 2010. <http://www.chinabusinessreview.com/coming-to-terms-with-industrial-policy/>(assessed September 23, 2014)
- WSJ. 2009. Sinopec-Addax: The Dragon Flexes Its Deal-Making Muscles. <http://blogs.wsj.com/deals/2009/06/24/sinopec-addax-the-dragon-flexes-its-deal-making-muscles/>(accessed October 12, 2014)

[데이터 베이스]

WIND, 중국 금융 데이터베이스
CEIC

■ Executive Summary ■

As the reform of state-owned enterprise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accelerates under leadership of Xi, this research, through the analysis of enterprise competitiveness, business diversification, industrial concentration, aims to forecast directions of state-owned enterprise reform in China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This research is comprised of six chapters. Followed by introduction, chapter two summarizes current status of the reform progression. Firstly, types and current status of state-owned enterprise are described and events after Chinese economic reform are arranged chronologically. Though exhibited great reduction in number, present state-owned enterprise has total industrial enterprise operating income and profit less than private enterprise and thus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has not improved. New government under Xi Jinping stated their decision to promote state-owned enterprise reform in the Third Session of the Eighteenth Central Committee of the Party and the two sessions (National People's Congress and 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of 2014. Through this, central focus of state-owned enterprise reform can be summarized as aggressive pursue of mixed

ownership. Cautious and gradual methods are expected to take place through various trial and reform at the level of provincial government is likely.

Chapter three contains the analysis of relations between Chinese corporate governance and performance, using scales such as productivity and profits. Database used for analysis was from 571 enterprise listed in stock market A from the year 2004 to 2013.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as followed. First, human capital contributes to productivity significantly greater in private enterprise than in state-owned enterprise. On the other hand, physical capital contributed to productivity greater in state-owned enterprise than in private enterprise. Second, Chinese enterprise listed in A stock market were found to have higher share ratio of shareholders and lesser the supervision by State-owned Assets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Commission, greater its profits.

Chapter four describes the study on how well Chinese state-owned enterprise has promoted business diversification out of inherent type of business and whether promotion of diverse business has led to sufficient profitability. First, this study shows that level of diversification and especially relevant diversification has shown to increase, not irrelevant diversification. Irrelevant business diversification are declining at a fast rate. Second, number of not profitable, non-profit fields with sales is higher in relevant fields of both private and state-owned enterprise. Third, analysis of sales versus profitability reveals that

state-owned enterprise has greater irrelevant fields, while private enterprise has greater relevant fields. In summary, number of profitable fields and sales are proportional in state-owned enterprise, where as in private enterprise relation is inverse proportional.

Chapter five contains brief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state-owned enterprise reform and industrial policy. Generally, level of integration in Chinese industries is low and unidentical industry-wise, industrial restructuring such as Mergers and Acquisitions(M&A) are found to be in tune with state-owned enterprise upbringing policy. Petrochemistry, automobile, retail business, steel and shipbuilding industry likewise five industrial fields are selected for analysis on 1)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2) competitiveness based on industrial concentration, 3) directions of private enterprise within industries and 4)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This research propose that key of state-owned enterprise reform is mixed ownership, and when executed successfully, would bring up tremendous change in China's ownership system. State-owned fields accessed to private capital would disperse management risk and optimization of management and investment policy would follow. Moreover, both business diversification and industrial concentration of state-owned enterprise are expected to occur. As far as diversification of state-owned enterprise is concerned, irrelevant fields of state-owned enterprise would more likely to experience diversification than relevant

fields.

Nevertheless, limitations and shortcomings of state-owned enterprise are as follows. First, directions of mixed ownership differs by industrial fields and mixed ownership might appear only in some industries. Second, state-owned enterprise reform may place heavy emphasize on state-owned enterprise and possibly favor state-owned enterprise. Generally, limited private capital is rarely considered to be used in taking over absolute share of state-owned enterprise. In fact, state-owned enterprise is more likely to M&A internally stable private enterprise during the progression of mixed ownership.

Implications of South korea are that opportunity for both intense competition and cooperation coexist. Firstly, South korean enterprise already in China would dive into more intense competition. Not only in Chinese internal market, competition with Chinese enterprise would become more intense in global market, thereby we must prepare it. So, there is a high need to make provision for regulations and law enforcement strengthening regarding state-owned enterprise reform. Secondly, globalization of Chinese enterprise could provide opportunity to South korean enterprise for cooperation and as a consequence, leads to enlargement of market. Within the industry, growth of Chinese enterprise has led to increased cooperation and it may also impact positively by bilateral trade and investment expansion.

A Study on State-Owned Enterprises Reform in China

Ik Joon Moon, Pil Soo Choi, Chang Kyu Lee,
Su Yeob Na, Hyo Jin Lee and Min Suk Park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122, 1199
<http://www.kiep.go.kr>